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

전주학총서 39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

초판 1쇄 인쇄 _ 2017년 8월 30일

초판 1쇄 발행 _ 2017년 9월 01일

발행처 _ 전주역사박물관

주 소 _ 전주시 완산구 송고개로 259

전 화 _ 063-228-6485~6

전 송 _ 063-228-6484

만든곳 _ 흐름출판사

ISBN 979-11-5522-130-3 94900

978-89-93003-88-8 (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近現代 全州 都市風景 日常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

이태영 — 송화섭 — 김남규 — 하태규
신귀백 — 함한희 — 최진성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

주제 :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

일정 : 2017년 9월 2일~10월 21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문의 :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6)

강좌 내용

구분	강의일	주제	강사
1강	9월 2일	전주 서점가와 출판거리	이태영(전북대학교)
2강	9월 9일	전주 음식점과 막걸리집	송화섭(전주대학교)
3강	9월 16일	전주, 추억의 다방	김남규(전주시의회)
4강	9월 23일	근현대 전주 길의 변천	하태규(전북대학교)
5강	9월 27일	현장답사	전주역사박물관
6강	9월 30일	전주 영화 이야기	신귀백(영화평론가)
7강	10월 14일	전주 한옥마을	함한희(전북대학교)
8강	10월 21일	전주의 근대건축	최진성(전주고등학교)

차례

근현대 전북 전주의 출판문화 _이태영	7
1. 서론	
2. 1940년대와 ‘대양당인쇄소’	
3. 1950년대와 ‘보광출판사’	
4. 1960년대와 ‘가림출판사’	
5. 1970년대와 전주 ‘신아출판사’	
6. 결론	
전주 음·식문화의 발상지, 남문밖시장 _송화섭	31
1. 문제 제기	
2. 전주부성 풍남문밖시장의 음식문화사	
3. 전주의 음·식문화	
4. 해장국의 발달과 한국인의 음주문화	
5. 맷음말	
시대별, 장소별 다방의 역할과 전주다방 65년 추억 이야기 _김남규	69
1. 들어가며	
2. 전주의 다방	
3. 전주 다방의 역할	
4. 마치며	
근현대 전주 길의 변천 _하태규	85
1. 전주의 옛길	
2. 일제강점기 전주 길의 변천	
3. 해방 후 간선도로 개설과 길의 변천	

전주 영화 이야기 _신귀백 117

1. 프롤로그, 한국 영화사 훑어보기
2. 극장 전주
3. 전주충무로, 감독과 배우
4. 전주의 영화산업
5. 촬영 공간 전주
6. 에필로그, 전주에서 산다는 것

전주한옥마을 _함한희 143

1. 전주의 한옥마을과 선비골
2. 근현대 시기 전주 선비들
3. 근현대 선비들의 행적
4. 선비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터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공간 변화 _최진성 165

1. 고지도의 전주읍치 경관
2. 조선시대 전주읍성의 도로망과 주요 경관
3. 1918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4. 1931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5. 1931년 전주역사도심의 기능체 분석
6. 제안 및 한계점

근현대 전북 전주의 출판문화

이 태 영 | 전북대학교

1. 서론
2. 1940년대와 ‘대양당인쇄소’
3. 1950년대와 ‘보광출판사’
4. 1960년대와 ‘가림출판사’
5. 1970년대와 ‘신아출판사’
6. 결론

1. 서론

조선시대 후기인 19세기 초부터,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판매를 위한 책, 즉 완판방각본 책을 출판하였다. 완판방각본은 목판본으로 출판한 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은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대비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리하여 완판본을 출판한 서점들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거래하는 큰 서점으로 성장하였다.

전북 최초의 서점인 ‘서계서포’를 비롯하여 이후 ‘다가서포, 문명서관, 창남서관, 칠서방, 완흥사서포, 양책방’은 조선시대 후기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서점이었다. 이 서점에서는 완판방각본으로 ‘한글 고전소설, 실용서, 이세 교육용 책, 사서삼경, 중국 역사서’ 등 아주 다양한 책을 출판하여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하였다.

이후 활자가 수입되면서 목판본 출판은 사양길로 접어들어 전주에서는 석판본(石版本)과 활자본(活字本)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석판본은 목판본 이후에 나온 인쇄법으로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이 사용되어 1930년대와 40년대에 책을 많이 발간하였다. 전주에서 석판을 인쇄한 출판소로는 ‘朝日石版印刷社, 完山石版印刷所, 天華堂, 東亞石版印刷所, 以文堂石版所, 博文社印刷所, 漢陽堂石版印刷所, 兄弟石版印刷所’ 등이 있다. 출판소의 위치는 주로 현재의 중앙동, 다가동, 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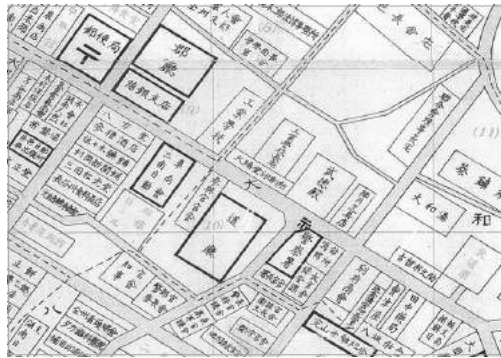
활자본은 목활자본과 납활자본이 대부분이다. 목활자본은 족보나 문집 간행에 많이 사용되었다. 납활자본은 일본인들이 들여와서 전주에서는 주로 30년대와 40년대에 많이 발간되었다. 전주의 ‘愛知屋活版印刷所’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활자로 책을 찍은 서점들이

있고, 새로운 인쇄기술이 석판을 이용하여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석판 인쇄가 활성화되는 사이에, 활자 인쇄가 대중화되면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찍어내게 된다. 그리하여 50년대에는 대학교재, 시집, 교지 등이 출판되고, 60년대에는 한국문학사를 이끈 『散文時代』, 『四季』와 같은 동인들이 전주에서 발간되게 된다. 70년대에는 전국 규모의 잡지인 『수필과 비평』, 『문예연구』 등이 전주에서 발간된다. 이 연구에서는 활자가 대중화된 시점인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근현대 전주의 출판문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1940년대와 ‘대양당인쇄소’

1931년에 발행한 「전주 안내도」를 보면 ‘대양당인쇄소(大陽堂印刷所)’가 나온다.¹ 위치는 지금의 구 도청 바로 동쪽 편 첫 건물이다. 70년대에 ‘사리문 다방’이 있었고, 현재 ‘문우당인쇄소’가 있는 건물 북쪽 끝이다.



이 인쇄소에서는 우리 지역을 선도하는 문예지와 신문 출판에 관여하였다.

1931년 「전주 안내도」

1 1931년에 일본어로 된 다음과 같은 책을 발행하였다. 全羅北道, 『全羅北道商工一班(일본어), 大陽堂, 1931.

1)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어린이 잡지 『파랑새』²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어린이 잡지는 바로 1946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창간되었는데, A5판 34면으로 발행된 『파랑새』이다. 『파랑새』 제3호(1946.5.20)의 판권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 겸 발행인 김수사(金樹史)

인쇄인 오영문(吳永文)

인쇄소 대양당(大洋堂)인쇄소

발행소 아동문화연구회(전주시 대화정 140)

임시정가 5원

발행인 김수사는 김영만(金榮滿, 1917~)이다. 1960년대의 여성 종합지 『女苑』의 편집주간을 지냈다.³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 김영만의 나이 29세였다. 전주에서는 ‘전주문화동우회’가 생겨났다. 시인 김해강(金海剛), 신석정(辛夕汀), 김목랑(金木浪), 신근(辛槿), 김표(金豹), 김영만(金榮滿)이 주축이 되었다. 여기서 어린이 잡지의 창간이 논의되었다.(『한국잡지백년』 3, 2004)

김영만의 고등보통학교 동창인 오영문(吳永文)이 도청 앞에서 조그만 활판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오영문은 그 뜻을 받아서 잡지 발행을 도와주었다. 오영문은 부유한 집 아들이어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애국

2 파랑새 잡지에 관한 정보는 문학평론가 최명표 선생이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에 감사드린다.

3 김영만은 1947년 3월 서울에서 『어린이세계』를 발간했고, 1955년 12월 학원사에 입사하여 대학 수험 잡지 『향학(向學)』 창간 편집장을 지냈다. 1956년 5월 이후 『여원(女苑)』 편집주간을 지냈다. 당시 함께 일한 사람으로는 편집장 임방현(林芳鉉, 전 국회의원), 최일남(崔一男, 소설가), 고정기(高廷基, 전 을유문화사 주간) 등이 있다.(『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5.15.)

심 많은 사람이었다.

1946년 1월에 2월 창간호를 내놓았는데 예상외로 환영을 받아 일부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쓰기도 했다.(『잡지뉴스』 1996년 4월호, 김영만의 회고담)

2) 광복 이후 최초의 신문 『건국시보』

『건국시보(建國時報)』는 1945년 8.15 광복 후 최초로 발간된 신문이다. 해방 이틀 후인 8월 17일 전북임시대책본부가 창간했던 전주에서 발행한 당시 최초의 한글 신문이었다.

1945년 8월 16일, 전주에서는 치안과 경제 문제 등을 다루는 ‘전북임시대책본부’를 발족하였다. 풍남동 최한규 집에서 배은희 서문교회 목사, 이주상 전주시장, 정우상 변호사, 오명순 언론인 등 애국지사와 청년들이 모여 여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신문 발행을 논의하였다.

편집 책임자는 전북신문의 이평권 기자가, 기자로는 매일신보 최정한, 만선일보 오명순, 부산일보 출신 정중모, 김광필, 김용주, 서광석 씨 등이 참여하였다. 인쇄와 보급은 전북일보 전신인 『전북신보』가 맡았는데, 이 신문은 일본어 인쇄만 가능했다.

마침 도청 옆 ‘대양인쇄소(사장 오영문)’에 5호 한글 활자가 한 벌 있으므로 이를 가져다 인쇄에 돌입했다. 판형은 타블로이드판 1면이었다. 16일 밤 인쇄하여, 조간으로 17일 새벽에 전주 시내 일원은 무가지로 배포하였다. 일선 시군은 『전북신보』 보급망을 활용해 배포했다.

1면으로 시작한 『건국시보』는 11호부터 제호를 ‘전라민보(全羅民報)’로 바꾸고 타블로이드판 양면 인쇄를 하였다.(『전북중앙신문』, 「문화포커스」, 2006.8.6.)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대양당 인쇄소’의 다양한 출판물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인 『파랑새』를 발행하고,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건국시보』를 한글로 발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인쇄·출판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3. 1950년대와 ‘보광출판사’

1) 출판의 내용

1950년대 전주역 앞에 보광출판사(普光出版社)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출판사는 1950년대 전주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활자를 이용한 출판이 일반화되면서 대학 교재, 시집, 교지, 지도 등 아주 다양한 책과 잡지를 발간하였다.

(1) 『국악보(國樂譜)』

이 책은 필경본으로 잘 알려진 책이다. 국악 전반에 대한 악보를 제시하고 있다. 필경본에는 ‘麒麟峰下刊行’이라고 되어 있다. 아래의 책이 필경본으로 간행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도서관을 검색해 보았지만 아직 활자본으로 재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鄭垆兌, 『國樂譜』, 普光出版社, 1955.

(2) 시집, 동인지

조재섭·이기반 시인의 시집 『두 날개』와 신석상 소설가의 동인지 『新創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新創作』 창간호는 전주 보광출판사에

서 발행하였고, 편집은 신석상이 맡았다. 총판은 전주 육서점에서 맡고, 정가 50원에 500부 한정본으로 찍었다. 표지화로는 박민평 화백이 그렸고, 컷트는 김영태, 題字는 신석정 시인이 하였다. 탈색지대창작동인회(소설 동인)에서 주관하였는데, 동인으로는 박조웅, 신석상, 윤형묵, 이흥근, 김영희 등이었다.(서상진, 2001 ㄴ)

동화작가 한별 金完東은 1930년 『동아일보』에서 동화 ‘구원의 나팔소리’로 3등으로 입상하여 등단하였다. 『반딧불』이란 제목으로 보광출판사에서 작품집을 출판하였다.

현재도 활발히 문예 발표를 하고 있는 문학잡지 『表現』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문학잡지 『表現』은 2017년 봄호가 65호로 현재 신아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현재 발행인은 서정환, 회장은 소재호, 주간은 유대준이다.

曹在燮 · 李基班, 詩集 『두 날개』, 이기반(장정), 보광출판사, 1957.

신석상, 『新創作』(창간호), 탈색지대창작동인회(소설동인), 보광출판사, 1964.3.15, 64면.

김완동, 『반딧불』, 한별 金完東 選集, 보광출판사, 1965.

전라문화회, 『表現』, 전라문화회작품집(제1집), 보광출판사, 1979, 242쪽.

(3) 저서, 대학 교재

전북대학교에 근무하시면서 과학사를 전공하신 고 오진곤 교수의 저서가 1962년부터 1976년까지 4권이 발간되었다.

吳鎭坤, 『自然科學史概論』, 普光出版社, 1962.

吳鎭坤, 『近代의 科學革命』, 普光出版社, 1971.

吳鎭坤, 『科學史』, 普光出版社, 1972.

吳鎭坤, 『新科學史』, 普光出版社, 1976.

(4) 교지, 종교단체 잡지

1950년대 전주성심학교 교지인 『옥잠화』를 발간하였고, 1970년대 전주 전동천주교회의 교회지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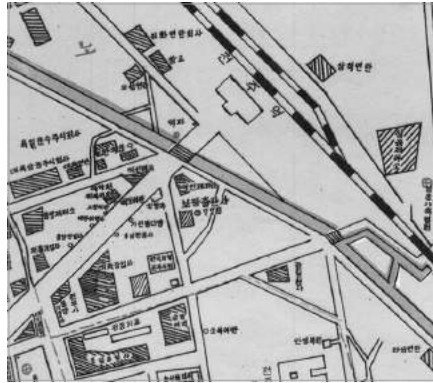
성심여중·고, 『옥잠화』(교지) 10호, 보광출판사, 1958.

전동천주교회 사도회, 『전동천주교회』(본당 건립 회갑 기념 교회지), 보광출판사(전주시 서노송동 601), 1975.7.5.

(5) 지도

전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인 「전주상공안내시가지도」를 발간하였다. 이 지도에 보광출판사가 나온다.

대한상공선전사, 「전주상공안내시가지도」, 보광출판사, 1962.



1962년 「전주상공안내시가지도」에 나타난 보광출판사 약도

(6) 기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칼럼집, 회갑 기념 논총 등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였다.

박종호, (現代語纂) 『東洋哲學入門』(프린트본), 보광출판사, 1956.

全宋朱, 『全北觀光資源』, 普光出版社, 1965.

全榮來, 『太古와의 對話』(全榮來 칼럼 엮세이 120선), 普光出版社, 1973.

柳井李珊錫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會 編, 『柳井 李珊錫教授華甲紀念論叢』, 普光出版社, 1984.

4. 1960년대와 ‘가림출판사’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전주 가림출판사(嘉林出版社)는 지역의 다양한 책은 물론이고,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잡지를 간행하였다. 비록 인쇄·출판에 그치고 있지만 출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1) ‘가림출판사’의 위치

‘가림출판사’는 당시 전주중앙초등학교(현 경기전) 동문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70년대 팔달로를 개통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1962년에 발행한 「전주상공안내시가도」라는 지도에 이 출판사가 나온다. 1965년에 발행한 『湖南略圖』란 책 속의 지도에도 나온다.



1965년 「湖南略圖」



1962년 「전주상공안내시가도」

4 가림출판사와 『散文時代』에 대한 여러 정보를 대화를 통해 제공해 주신 문학평론가 최명표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가림출판사’의 운영⁵과 출판

1964년 가림출판사에서 발행한, 평론가 김현의 평론집 『存在와 言語』의 판권지를 통하여 이 출판사의 그 인적 구성과 주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64년 7월 인쇄

발행인 김종배

발행소 가림출판사

전주시 전동 2가 54

등록번호 바5호

발행인으로 된 ‘金種培’ 씨는 뒷날 정치에 입문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가림출판사’는 1968년까지 책을 내고 이후에는 책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인한 시인의 증언에 의하면 김종배 사장은 활자를 만드는 업도 했다고 한다.⁶

소설가 김승옥이 쓴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 ‘金種培’ 씨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값이 쌀 뿐만 아니라 활자 모양도 깨끗하고 예쁜 델 찾았더니 드디어 전주에 그런 인쇄소가 한 군데 있어서 찾아갔더니 뜻밖에도 그 전주의 가림인쇄소 사장이란 분이 종이값만 부담한다면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 등 인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한다고 연락해 온 것이다. 우리는 귀를 의심할 만큼 기뻐다. 의젓하게 활자로 인쇄된 동인지를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김승옥, 2004, 184쪽)⁷

5 시인 ‘이계진’은 ‘가림출판사’를 방문한 바 있는데 이때 ‘嘉林’이란 어휘가 마음에 들어 뒤에 ‘이가림’이란 필명을 썼다고 한다.(강인한 시인의 증언)

6 이 말씨는 문학평론가 최명표 선생한테서 전해 들었다. 감사드린다.

김종배 사장이란 분은⁸ 당시 연세가 40대 중반인 키가 자그마하고 강건하게 생긴 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하며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비록 뚜렷한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이상이 높았다. (중략) 최하림이 방문하여 “대학생 몇 명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문학동인지를 발간하고 싶어서” 운운하니 선뜻 “내가 당신들을 가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김승옥, 2004, 186쪽)

3) 가림출판사와 유기정

62년 당시, 전주 가림출판사가 좋은 활자를 보유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이 계간 『시인세계』에 실린 최하림 선생과의 대담에서 풀 수 있다.⁹

그때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삼화당과 평화출판사의 활자가 제일 좋았는데, 새 활자가 나오니 그 출판사에서 쓰던 것을 전주에 있는 가림출판사에 주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같은 전주 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림출판사의 활자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어디에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한 번 낼 때마다 300~500부 정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팔려 나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문화저널21』에 실린 최하림 선생과 대담 내용)

위의 글에서 최하림 선생님의 구술 중에 나오는 ‘삼화당’과 ‘평화출판사’는 누가 운영하던 출판사였을까? 다음 아닌 전주 출신으로 인쇄출

7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주에 있는 가림출판사를 어떻게 알았을까? 필자가 추천한데, 아마 서울에 있는 유기정 씨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8 김종배 사장은 출판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공화당 당직자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출판업에서 손을 떼었다고 한다. 전주의 출판문화 발전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신아출판사 서정환 사장님 증언)

9 계간 『시인세계』에 실린 이 글은 『문화저널21』에 다시 실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판업에 평생을 바쳐 온 유기정(柳琦諄) 씨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유기정 씨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유기정, 2004)

유기정 씨의 약력

1922년 전주 노송동 출생
1942년 20세에 서울로 상경
1944년 22세에 평화당인쇄에 취업
1954년~1962년, 서학동에 전주한지공업사 설립
1954년 서울 상경, 평화당인쇄의 복구사업 시작
1954년 12월 1일, 32세에 삼화인쇄소(三和印刷所) 창업
1957년 삼화인쇄주식회사
1961년 주식회사 삼화출판사를 설립
1967년 4색 오프셋 전자인쇄기와 자동전자색분해기 도입
1955년 한국 최초로 원색인쇄, 컬러인쇄 시작
1958년 활자 개량
1950년 후반부터 1960년 중반까지 원색 동판인쇄로 우리나라 인쇄업을 주도(유기정, 2004, 119쪽)
1971년부터 제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
1992년 세계중소기업연맹 총재

전주 출신 유기정 씨는 1944년 22세의 나이에 서울에 상경하여 ‘평화인쇄소’에 취직한다. 나중에 그 집의 둘째 따님과 결혼하여 사위가 된다. 그리고 1954년 ‘삼화인쇄소’를 창업한다. 그러니까 최하림 시인의 구술에 나오는 ‘삼화당’은 유기정 씨가 운영하던 ‘삼화인쇄소’를 말하고, ‘평화인쇄소’는 장인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가림출판사에서 1962년에 『散文時代』가 활자판으로 나오는데, 이 활자는 서울의 ‘삼화인쇄소’에서 보내준 것이다. 실제로 삼화인쇄소는 1958년 활자를 개량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던 활자는 사

실상 유기정 씨의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유기정 씨가 고향 후배인 전주 가림출판사의 김종배 씨에게 넘겨준 것이다. 비록 서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활자였지만, 당시 최고의 활자만을 사용하던 삼화 인쇄소에서 넘겨준 활자라서 당시 최고 수준의 활자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삼화출판사를 경영한 유기정 씨도 우리나라 인쇄·출판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꾸준한 인쇄 시설의 도입, 활자의 개량, 원색 동판인쇄 등으로 우리나라 인쇄업을 주도하였다. 가히 완판본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인쇄·출판문화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4) 가림출판사 발간 문학잡지와 시집

가림출판사는 이 지역의 문학 발전은 물론, 한국의 문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학 발전과 관련된 문학잡지와 시집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산문시대(散文時代)』¹⁰(1962년)

『散文時代』는 1962년 6월에 1호가 발간되었고, 10월에 2호, 1963년 6월에 3호, 10월에 4호, 1964년 9월 5호를 낸 문학 동인지이다.¹¹ 한국문학사에서 전혀 새로운 잡지가 전주의 가림출판사에서 200부 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이 출판사는 1960년대에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획기적

10 KBS전주방송국 이휘현 PD는 『문화저널』 2016년 2월호에서 ‘산문시대 이야기, 그리고 전주 가림출판사란 제목의 글에서 이 전설적인 출판사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11 동인지 『散文詩代』에 관한 이야기의 인용은 대부분 ‘김승옥 산문집, 내가 만난 하나님(개정판)’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인 업적을 남기게 된다.¹²

『散文時代』 1호에서 5호까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서상진, 2001)

『散文詩代』(창간호)

1962.6.15. 발행, 판형:16×24(국판 크라운판), 면수-110면, 계간

발행인: 산문시대동인회(김현, 김승옥, 최하림¹³)

총 판: 서울대 문리대학 구내 후생서점

발행처: 전주 가림출판사, 값 30원, 200부 한정본

목 차: 김현-人間序說, 잃어버린 處容의 노래, 김승옥-乾, 生命演習, 최하림-여름詩集, 城(戲曲)

『散文詩代』(2호)

1962.10.20. 발행, 판형16×24, 면수-231면

발행인: 산문시대동인회(김현, 김승옥, 최하림, 강호무, 김창웅, 김치수)

발행처: 가림출판사, 값 30원

총 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구내 후생서점

목 차: 김승옥-幻想手帖, 강호무-蕃地植物, 김산초-잃어버린 海市, 최하림-樹林密語, 김현-批評考

『散文詩代』(3호)

1963.2.26. 발행, 판형16×24, 면수-317면

발행인: 산문시대동인회(김현, 김승옥, 최하림, 강호무, 김창웅, 김치수, 김성일, 염무웅)

발행처: 가림출판사, 값 30원, 500부 한정본

12 동아일보 1964.1.13.일자 기사에 ‘活氣 띠는 同人誌 運動’이란 기사에 『散文時代』가 언급되어 있다.

13 『散文詩代』 창간호의 동인 세 사람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사실과 지역 출판사에서 출판한 사실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시 지식인이자 문인으로서 서울이라는 중심 지역과 자본과 통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목 차: (강호무특집)강호무-癌素質, 김성일-
月經있는 아침, 김치수-靑色の 눈, 지
오반니 · 모로니, 이승윤-불란서 문
학기상도, 김현-비평고(2)

『散文詩代』(4호)

1963.10. 발행

발행인: 산문시대동인회(김현, 김승옥, 최하
림, 강호무, 박광수, 김산초(김창웅),
김치수, 김성일, 염무웅, 서정인)

발행처: 가림출판사



『散文詩代』 3호 표지

『散文詩代』(5호)

1964.9. 발행

발행인: 산문시대동인회(김현, 김승옥, 최하림, 강호무, 박광수, 김산초(김
창웅), 김치수, 김성일, 염무웅, 서정인)

발행처: 가림출판사

(2) 김현(1964), 『存在와 言語』: 김현평론집

동인지 『散文詩代』의 창간을 주도한 평
론가 김현의 첫 평론집이 가림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김현의 평론집 ‘存在와 言語’에
대한 申東漢의 평에 대한 기사가 경향신문
1964년 11월 7일자에 ‘김현 評論集 存在와
言語’라는 기사로 실려 있다.

앞날의 열쇠를 못 가져 괴로와하고 방황
하는 人間群像, 그 가운데에서도 言語의 藝



『存在와 言語』의 뒷표지

術에 뜻을 두는 사람은 열쇠를 못 찾아 더욱 안타까와 하고 있다. 이 열쇠 못 찾는 괴로움을 겪은 評論家 김현은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의 處女評論集 “存在와 言語”에서 句句節節이 말하고 있다.(이하 생략)

문학평론가 김현(김광남, 1942~1990)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산문시대』, 『사계』, 『문학과지성』 등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1970년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등과 함께 계간 『문학과지성』을 창간하여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존재와 언어』, 『상상력과 인간』 등 8권의 평론집을 발간하는 등 문학평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위키백과 참조)

(3) 姜好武(1965), 『棺木』(姜好武 詩集)

동인지 『散文詩代』의 동인으로 참여한 강호무의 첫 시집이다.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강호무(姜好武)는 1941년 일본 오오사카(大阪)에서 출생하였고, 귀국하여 전남 광양군 광양읍 읍내리에서 자랐다. 순천고를 거쳐 1963년 국학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散文詩代』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제2집에 단편 「蕃地植物」을 발표하면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4) 姜寅翰(1966), 詩集 『異常氣候』

강인한(姜寅翰) 시인은 194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5) 辛夕汀(1967), 『山の 序曲』(辛夕汀 第四詩集)

신석정 시인의 회갑을 기념하여 출간된 작자의 제4시집으로 1967년 가림출판사에서 700부 한정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시집에는 조지훈(趙芝薰)이 병상에서 써 보낸 서(序)가 머리에 있다.

(6) 시 동인지 『四季』(1966년)

황동규(黃東奎), 박이도(朴利道), 정현종(鄭玄宗), 김화영, 김주연, 김현이 참여하여, 1966년 『四季』라는 동인지를 가림출판사에서 발행하면서 1968년 3호까지 동인지를 발행하였다.

『四季』 1호는 1966년 6월 14일 인쇄하여 1966년 6월 20일 출간되었다. 황동규 시인이 저자 대표로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500부 한정판으로 발행되었다. 『四季』 2호는 1967년 6월 25일 박이도 시인이 발행자 대표로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350부 한정판으로 출판하였다. 『四季』 3호는 1968년 7월 20일 정현종 시인이 발행자 대표로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350부 한정판으로 출판하였다.

1966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에 ‘詞華集 「四季」 創刊’이라는 기사가 났다.

黃東奎 · 김현 등 20대의 詩人和 평론가 6명이 年刊 詞華集 『四季』 1호를 냈다. 嘉林出版社(全州)의 500부 限定版인 「四季」는 黃東奎의 「平均率」(8편) · 朴利道の 「回想의 숲」(7편) · 鄭玄宗의 「記憶祭」(7편) · 金華榮의 「어둠의 中心」(6편) 등 近作 詩篇과 金柱演의 「詩와 眞實」 · 김현의 「露宿」 등 散文이 발표됐다.(동아일보 1966.6.28.)

(7) 崔勝範(1968), 『候鳥의 노래』(詩集)

고하 최승범 시인은 시조시인으로 1931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8년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시집 『候鳥의 노래』를 출판하였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로 현재 고하문학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인지 『全北文學』을 발간하고 있다.

(8) 『全北文學』(1969)

『全北文學』은 창간호부터 4집까지 가림출판사에서 발간되었으며, 전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잡지로 올해로 발간 48주년이 된다. 내용은 주로 시가 실려 있고, 표지에 그림이 담겨 있는 특징을 보인다.



『全北文學』 창간호 표지

1969년 7월 10일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신석정, 최승범, 박병순, 백양춘, 강언덕, 송하선, 진을주, 채규판, 최진성, 허소라 등 전북 지역의 문인들뿐 아니라 미나미 구니카즈, 린환창 선생 등 일본과 중국의 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42호부터 『전북문학』 표지에 실린 그림들은 비공 장옥진, 고운 박광식, 벽산 강현식, 일당 김태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으로, 화조도, 사군자, 풍경화, 추상화 등 동·서양을 망라하는 작품들을 싣고 있다.

(9) 기타

가림출판사에서는 문학잡지, 시집 이외에도 대학 교재, 지역 역사서 등의 책을 발간하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辛錫信 編譯(1962), 韓國姓氏要覽.
 李機衡 編輯(1964), 諸禮祝輯(新式鉛活字本)
 朴錦身(1965), 叢智에의 길.
 강백성(1965), (신기한)원자력.
 金智文(1965), 造林學.
 呂寅榮 編(1968), Wir Lernen Deutsch : für die Hochschule.
 崔碩男(1967), 忠將李英男事蹟記.
 金英培(1968), 駕洛文獻.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 가림출판사는 1960년대 전주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지역 문인들의 문학잡지와 대학 교재를 펴냈으며, 한국문학의 발전을 선도한 중요한 동인지들을 생산해 낸 60년대 전국 최고의 출판사였다.

5) 잡지 『문학과 지성』의 탄생 배경

(1) 동인그룹 『68문학』

『68문학』은 문학 동인 그룹으로, 1968년 『散文時代』와 『四季』 동인들이 주가 되어 결성하였다. 1969년 1월에 『68문학』 제1집을 발간하고,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이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염무웅이 『창작과 비평』으로 가면서 두 개의 유파로 갈라졌다.

『68문학』의 동인은 『散文時代』의 김승옥, 최하림, 강호무, 김성일, 김현, 김치수, 염무웅 등과, 『四季』의 김화영, 황동규, 정현종, 박이도, 김주연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박상룡, 박태순, 이청준, 홍성원, 이성부, 이승훈, 김병익 등이 참가하였다. 이 동인지는 개방적이면서 시, 소설, 평론 관계자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었다.(한국문학대사전)

1962년 『散文時代』 잡지를 발간한 산문 동인 모임과, 1966년 『四季』

를 발간한 시 동인과, 1968년 발간한 『68문학』이 함께 뒤이어 나온 『문학과 지성』의 모태가 된 것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주의 인쇄문화를 한국문학사에 기록한 것이다.

임영봉(2007, 397쪽)에 따르면, 이들 동인지의 발간을, 독자적인 문학을 표현하고자 하는 4.19세대들이 기성 문단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한국문학의 새 주체로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1970년대와 전주 ‘신아출판사’

1900년대 중반의 전라북도의 인쇄·출판문화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1970년대 들어 현재까지 전주를 대표하는 출판사는 전주 ‘신아출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원판본의 후예답게 수많은 잡지와 책을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이다. 신아출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신아출판사 홈페이지)

- 1970. 02. 신아문예사 창립
- 1984. 08. 신아출판사 창립
- 1990.07. 월간 『소년문학』 창간
- 1992.09. 수필전문지 격월간 『수필과 비평』 창간
- 1992.05. 수필과비평문학상, 신곡문학상, 백제문학상을 제정
- 1993.11. 종합 문예지 계간 『문예연구』 창간
- 2000.01. CTP 전국 최초로 도입
- 2005.10. 종합 문예지 계간 『계간문예』 창간
- 2006.08. 황의순문학상 제정
- 2011.01. 격월간 『수필과 비평』 월간으로 발간
- 2015. 신아문예대학 문예강좌 개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 1길 16(태평동 251-30), 신아출판사
(우, 560-080) TEL : 063-275-4000

신아출판사는 월간 『소년문학』을 필두로 각종 종합 문예지를 선보이며, 92년 『수필과 비평』을 창간 전국적으로 600여 명의 수필가를 배출해 수필의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94년 창간한 『문예연구』는 중앙으로부터 우수 문예지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88년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을 시작했고, 91년에는 전주에 없었던 컬러인쇄기를 도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출판사로 변신했다.

1) 전국적인 수필 문예지 『수필과 비평』

『수필과 비평』은 한국 수필의 세계화를 목표로 수필 본연의 문학적 아름다움과 위상을 밝혀 가는 1992년에 창간한 고급 문예지이다. 이 잡지에서는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있으며, 신곡문학상, 황의순문학상 등을 제정, 수필 발전에 공이 많은 작가에서 시상하고 있다.

발행인으로는 서정환 사장, 주간에는 유인실 문학박사, 편집장으로는 한경선 선생이 활동하고 있다. 편집위원과 이사로는 전국적으로 수필과 문학에 명성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잡지로 평가받고 있다.

2) 전국적인 우수 문예지 『문예연구』

『문예연구』는 1993년 11월 15일 창간된 종합 문예지이다. 소설, 시, 수필, 희곡,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엄선하여 편집하는 전국 규모의 잡지이다. 매호마다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작가의

글을 싣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작가, 평론가들이 작품을 싣고 있다.

현재 발행인은 서정환 사장이며, 편집장 이종호 사무국장, 주간 강연호 원광대 교수, 편집위원으로는 시인 정양, 전정구 전북대 명예교수, 공종구 군산대 교수, 유성호 교수,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참여하고 있다.

6. 결론

전주의 근현대 출판문화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두 가지 특징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소외되는 문화가 너무 많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불과 몇 개의 출판사의 역할은 전주는 물론 한국의 인쇄출판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전라북도는 조선시대 전국 최고의 인쇄출판문화를 선도한 완판본의 고장이다. 완판본은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고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이다. 활자의 수입으로 목판본 인쇄가 쇠퇴하면서 완판방각본의 출판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멈추게 된다. 이어서 석판본 인쇄가 활발해지고 또 활자본 인쇄가 대중화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인쇄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1930년대부터 1970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주의 인쇄문화는 나름대로 특징을 보이면서 꾸준히 발전하였다.

1940년대는 ‘太陽堂印刷所’에서 전국 최초의 어린이 잡지 『파랑새』를 발간하였고, 광복 이후 최초의 신문인 『건국시보(建國時報)』를 발간하였다.

1950년대는 ‘普光出版社’가 전주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대학 교재, 시집, 교지 등 아주 다양한 책과 잡지를 발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전주 ‘嘉林出版社’는 지역의 다양한 책은 물론이고,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잡지를 간행하였다. 산문 동인지 『散文時代』와 시 동인지 『四季』가 발간되고, 김현의 평론집 『存在와 言語』, 姜好武 시집 『棺木』, 姜寅翰 시집 『異常氣候』, 辛夕汀의 第四詩集인 『山の序曲』, 崔勝範 시집 『候鳥의 노래』가 발간되었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잡지인 『全北文學』이 창간호부터 4집까지 발행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가림출판사’는 명실공히 한국문학을 이끈 출판사가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전주 ‘신아출판사’는 현재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수많은 책을 출판하여 전국적인 출판사로 활약하고 있다. 『수필과 비평』은 전국 최고의 수필 전문 잡지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적인 우수 문예지인 『문예연구』는 매호마다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작가의 글을 싣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작가, 평론가들이 작품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인동출판사, 선명인쇄소, 대흥정판사 등의 활약이 있었지만, 지면관계상 소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승옥, 『(개정판) 내가 만난 하나님』(김승옥 산문집), 도서출판 작가, 2004.
- 박연희, 「1960년대 외국문학 전공자 그룹과 김현 비평」, 『국제어문』 40, 2007, 291~320쪽.
- 박윤영,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2012.
- 서상진, 「서상진의 잡지세상-산문시대」, 『새전북신문』, 2001.7.26.
- 서상진, 「서상진의 잡지세상-신창작」, 『새전북신문』, 2001.08.30.
- 안용희, 「1970년대 지역문학의 존재 양식 試論 -『전북문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4집, 2016, 169~195쪽.
- 유기정, 『나의 꿈 더불어 잘 사는 사회』(유기정 자서전), 삼화출판사, 2004.
- 유창민, 「시 동인지 『사계』의 신세대 의식 연구」, 『인문학연구』 8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09~129쪽.
- 이서진, 「동인지 『散文時代』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영봉, 「동인지 『散文時代』 연구」, 『우리문학연구』 21, 2007, 395~420쪽.
-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27, 2007, 245~269쪽.
- 『잡지뉴스』 1996.4월호, 김영만의 회고담.
- 『문장 웹진』 2006.9월호, 최하림 시인과 이진명 시인의 대담 내용.
- 『문화저널21』에 실린 최하림 선생과 대담한 내용.
- 「문화포커스」, 『전북중앙신문』 2006.8.6.
- 『한국문학대사전』, 문원각, 1973.
-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5.15.

전주 음 · 식문화의 발상지, 남문밖시장

송 화 섭 | 전주대학교

1. 문제 제기
2. 전주부성 풍남문밖시장의 음식문화사
3. 전주의 음 · 식문화
4. 해장국의 발달과 한국인의 음주문화
5. 맺음말

1. 문제 제기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도시이다. 전주 하면 떠올리는 게 음식이다. 그러나 음식의 명향, 전주음식이 왜 맛있느냐고 묻는다면 명확한 답변도 못하고 어물쩍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비빔밥은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고, 전주콩나물국밥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으며, 백반집은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전주 막걸리집은 막프로젝트로 삼천동과 서신동 등 막걸리타운이 형성되면서 술꾼 관광객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전주 가맥집들은 밤마다 사람들로 붐빈다. 남부시장 야시장에는 온통 먹거리 코너에 북새통을 이루고, 한옥마을에는 전통음식보다 젊은 코드에 맞는 새로운 음식들이 전주음식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주음식이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은 게 아니다. 전주음식이 명성을 얻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주음식의 발상지를 추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전주 사람들이 외식(外食)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외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시장이 유일하였다. 전주부성은 관아 건물들이 들어섰고, 성문 밖에는 농촌이 있었다. 전주부성 안팎에 장날이면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뤄 큰장(大場)이 섰다. 한일합방 직후 일제강점기는 조선시대의 생활문화가 유지되던 시기였고, 전라감영이 있었지만 남문밖시장에 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5일장이 발달하면서 보부상과 장돌뱅이들이 주로 거처하는 주막이 있었다. 주막은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잔이면 잠자리가 해결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세수(稅收) 문제로 주막이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으로 세분화되면서 해체되었다.

이러한 근현대화 과정에서 남문 밖 장시음식(음식과 술)은 장꾼들과 상인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전주부성 내 중심지에는 중앙동과 다가동 변화가에는 일본인 취향의 요정과 요리집들이 번창하고 있었다. 요정과 요리집은 일본인들이 주 고객이었다. 그리고 요리집과 가까운 곳에는 유곽이 위치하였다. 해방 이후 유곽과 권번이 해체되면서 술집은 더욱 번창하였다. 전주극장 뒷골목에 ‘짬골목’이 번창하였고 덩달아 숙박업이 성행하였다. 6.25동란이 지난 후에는 남문밖장의 음식점들이 서서히 전주부성의 성문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場市飲食이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시음식이었던 백반,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국수집, 비빔밥집, 팔죽집, 칼국수집 등이 부성 안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주막집은 왕대포집, 막걸리집을 태동시켰고, 요정이 한정식집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주음식의 발상지는 전주 남문밖장이란 사실이다. 그럼 전주음식의 근원을 추적해 보자.

2. 전주부성 풍남문밖시장의 음식문화사

1) 前朝後市와 남문밖장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성문 이름 가운데 풍남문이 있다. 풍남문에는 성 안쪽에서 보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이요, 성 밖에서 보면 풍남문(豊南門)이라는 액호가 걸려 있다. 풍남문이 호남에서 제일 큰 읍성이라는 뜻이다. 풍패지향 가운데 ‘풍’ 자를 따서 남문에 붙여 풍남문이 되었다. 전라감영 객관의 액호는 豊沛之館이다. 그렇다면 전주가 풍패지향이 되는데, 풍패는 중국의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인 풍패에서

따왔다. 옛날 중국에서 읍성을 조성할 때 제시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전조후시(前朝後市)이다. 풍남문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전라도 행정을 관할하는 감영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관찰사가 집무하고 있었다. 풍남문 밖에는 전라도에서 제일 큰 시장[大場]인 풍남문 밖 장[南門外場]이 조성되었다. 후에 남문박장시를 남부시장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사문 밖에는 큰 장과 작은 장[小場]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주부의 시장 형태를 사문외장이라 하였다. 남문 밖에는 생활용품과 곡식을 파는 큰 장(2일)이 들어섰고 현재 그곳이 남부시장이다. 동문외장은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주로 팔던 작은 장(9일)이며, 현재 동문사거리 밖에 조성된 동부시장이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문외장은 어물과 소금 등 어물전과 염전이 조성된 작은 장(7일)이었으나, 현재 서문외장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다. 북문외장은 비단을 포함한 포목과 잡곡이 주로 거래하는 작은 장(4일)이었으며, 현재 중앙시장의 북문외장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사문 밖에는 큰 장과 작은 장이 5일장으로 섰으나,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던 1894년에 동학농민군의 부성 침입을 막으려고 수천 호의 민가를 불태우면서 서문박장은 사라졌다. 사문박장은 남문박장(남부시장), 동문박장(동부시장), 북문박장(중앙시장)으로 남았다.

전주의 큰 장시는 단연 ‘남문박장’이었다. 이를 줄여서 남박장이라 불렀다.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이었고, 남문박장은 물산의 유통이 풍성한 경제의 중심이었다. 전주부성은 지리적으로도 한양을 향하는 관문이었으며, 산간과 평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간선교통로가 발달하여 내륙 물산의 생산과 소비가 용이한 곳이었으며, 서해안 포구가

가까워 해산물과 바다에서 물길이 전주까지 이어져 강해도시[江海之會]로 발달하였다. 전주의 남박장은 호남이 아닌 삼남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었으며, 국가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정기 시장 가운데 하나였다. 이름하여 국중시장(國中市場)이었다. 물산이 풍부하면 상인과 소비자가 들끓고 상품을 파는 시전이 들어서고 유통을 담당하는 보부상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쉴 부대시설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시장음식으로 국밥과 비빔밥과 국수가 있다. 그래서 ‘場국밥, ‘場터국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장은 장터를 말한다. 장터음식의 특징은 속전속결(速戰速決), 박리다매(薄利多賣), 대량생산(大量生産)이다. 수천 명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에서 백반상을 차렸다가는 돈을 챙길 수가 없다. 음식에서도 생산과 유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에 속전속결 음식으로는 국밥, 국수, 비빔밥이 제격이다. 전주 남박장의 대표적인 장터음식은 콩나물국밥이었다. 콩나물국밥은 원래 탁배기국밥이었다. 전주 교동에서 기른 쥐눈이 콩나물로 만든 국밥이 우선이었고,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양푼비빔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주의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의 기원은 남부시장의 장터음식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¹

그러나 처음부터 콩나물국밥집과 콩나물비빔밥집이 점포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국밥과 국수는 상거래의 상품이 아니기에 점포를 가질 수 없었다. 전주의 남박장은 시전(市廛)이 많이 조성되어 돈의 유통이 잘되는 곳으로 유명한 시장이었다. 돈은 점포를 가진 시전상인

1 송화섭, 「전주 남문 밖 장시음식이 전주음식에 미친 영향」, 『전주학연구』 제10집, 전주역사박물관, 2016.

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좌판을 늘어놓는 잡상인들의 난전(亂塵)도 동시에 뜬다. 특히 전주의 남박장은 시전보다 난전이 더 흥행하였던 곳이다. 난전은 난장과 다르다.

2) 장시음식의 대중음식점화

조선시대 전주의 변화가는 전주부성의 안팎 마을과 교동과 풍남동, 그리고 남부시장이었다. 1960년대까지도 전주 사람들의 거주생활권은 교동과 풍남동이었으며, 경제생활권은 남부시장 중심의 사대문 성문 밖시장이었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변화가는 교동과 풍남동 그리고 남문밖시장이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점들이 남부시장 주변에 몰려 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전통 음식점이 남부시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이유가 신선한 식재료의 구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주음식이 맛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에 있다.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관행이 음식점 점주들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소문난 음식점들은 남부시장의 새벽 장보기를 한다. 전주부 인근 자연마을에서 남부시장으로 반입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점주들이 새벽부터 장터에 모여든다. 남부시장 근처에 자리 잡은 ‘반야(飯野)’라는 돌솥밥집은 식탁에 삭힌 발효음식을 올리지 않는다. 아침에 남부시장에서 구입한 채소를 겉절이로 내놓는 것을 고집하는 음식점이다. 오로지 신선한 야채를 사용한다.

전주 남부시장은 상설시장이었기에 항상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사람의 운집이 많아서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다 보니 상인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막집과 음식점이 함께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주막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방식이었다. 주막집과 선술집에서 술과 함께 내놓는 국밥, 국수가 성행하였고, 장날에는 비빔밥도 만들어 파는 장사도 등장하였다. 시장음식의 특성은 박리다매(薄利多賣)다. 이윤이 적더라도 많이 판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음식은 국밥, 국수, 비빔밥이 적합하다. 전주 남문밖장에서 콩나물국밥은 탁백이집에서 팔았고, 비빔밥은 양푼비빔밥이었다.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남문밖시장에서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이 꽃피우게 된 것이다. 시장음식 가운데 도축장의 소와 돼지의 부산물로 만드는 돼지순대국밥, 소머리국밥은 나중에 점포에서 팔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주 옥류동에서 맑은 물로 기른 콩나물 맛은 소금만 치고 끓여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대표적인 장시음식(場市飮食)으로 발달하였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콩나물국밥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 후기 5일장은 상설시장에 주막음식을 발달시켰다. 주막은 술과 음식으로 잠자리가 해결되는 곳이었다. 주점은 상점 사이에 자리를 잡거나 가판으로 국밥과 술을 팔던 모습이 조선 후기 풍속화에 등장한다. 풍속화에는 주막에서 술을 팔거나 거리의 좌판에서 술을 파는 그림도 있으며, 사람들이 야유회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있다. 본격적인 외식은 시장에서 술과 음식을 사서 먹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장시의 음식문화와 전통이 남아 있는 곳이 전주 남문밖시장이다. 장시에서는 물자 교환과 상거래만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중음식과 장꾼들에게 파는 간이음식도 영업을 하였다. 주막에서 당연히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방식이었다.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팔던 술과 음식을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음식이 발달하게 된다.

음식의 외식화는 집 밖에서 화폐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화폐경제가 시작된 이후에 시장 또는 연회를 공연하는 놀이판 등의 가판에서 술을 팔거나 주막에서 술을 파는 것이 효시가 된다. 탁배기술과 함께 곁들여 팔았던 것이 소머리국밥과 돼지머리와 내장을 넣은 순대국밥, 돼지국밥이었는데, 전주에서는 콩나물국밥이 유명하였다. 전주 교동 인근에서 생산된 콩나물이 상품의 가치로서 으뜸이었고, 콩나물을 식재료로 만든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을 즐긴 것이다. 시장에서 돈이 도는 것이 단지 상품 거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사고파는 행위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음식문화는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음식이 상품으로 판매된 곳도 시장이 최초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음식의 외식화는 상설시장과 5일장에서 시작되었고 대중음식점의 뿌리도 남문밖장이다. 일제시대까지도 돈을 주고 음식을 매매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는 시장이 아니면 없었다.

3. 전주의 음·식문화

전주음식의 사례는 30년 이상 오랫동안 전주에서 대를 이어 전통음식점으로 자리 잡은 식당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크게 한식과 술집으로 구분하였다. 한식에는 배반, 비빔밥, 콩나물국밥을 대상으로 하였고, 술집은 요정, 한정식집, 왕대포집·선술집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한식

(1) 백반

한식이 백반이다. 백반은 흰쌀밥(백)과 반찬(반)을 말한다. 백반의 정통성은 집에서 먹는 밥상이다. 전주에서 가정집 백반상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집이 죽림집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식의 전통은 백반이다. 한식을 밥상이라고 한다면, 한정식은 술상(+밥상)이다. 전주 구 도청 앞에는 ‘백반집거리’가 있다. 그 중심에 죽림집이 있다. 도청이 신시가지로 옮겨 가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굳건하게 버티고 백반집거리를 이끌고 있는 곳이 죽림집이다. 1950년 6.25동란 이후 생계 수단으로 백반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도 영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전북도청 앞에 백반 영업집들이 들어섰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도청 앞에 식당이 들어섰다.

1958년 죽림집은 처음으로 도청 앞에 문을 열었다.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점심밥 장사하는 게 목적이었다. 백반상은 값이 싸면서 반찬 가짓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밥상이다. 죽림집이 전성기 때에는 도청 공무원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고 한다. 가정식 백반이 집 밖으로 나온 시점도 1950년대 중반으로 보인다. 백반이 외식화되기 이전에는 가정식 밥상이었으나, 생업수단으로 손맛이 뛰어난 사람이 밖에 백반집을 개업하기 시작하면서 한식당이 생겨난 것이다. 구 도청 앞 백반집거리가 그러한 사례이다. 집안에서 계절마다 제철음식이 올라오는 밥상이 외식화되면서 밖에서 먹는 한식 백반이 된 것이다. 가정식 백반이 집밖으로 나와서 한식과 한정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가정식은 계절음식이 특징인데, 백반이 상품화되면서 계절음식보다는 1년 내내 고정된 반찬을 밥상에 내놓는 집이 많다. 계절이 바뀌면

밥상의 반찬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을 내놓는 백반집이 많다. 계절 감각을 잊어버린 백반을 ‘철부지 한식’이라 할 수 있다. 계절식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철없는 백반들이 전통음식으로 팔려 나간다. 가정식은 계절마다 제철음식을 밥상에 내놓는 것이 주부들의 도리요, 규범이다. 그러나 외식화된 백반상에서 계절음식을 맛보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런데 죽림집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음식 솜씨로 밥상을 차리는 집이다.

작통 한식집이 판치는 마당에 계절식 백반을 내놓는 집이 죽림집이다. 계절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가정식 백반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죽림집의 주인 김산옥 씨는 시어머니 서경자 씨에게 음식 솜씨를 물려받아 대를 이어 영업을 하고 있다. 메뉴판에는 백반, 돼지고기 수육, 홍어탕만 쓰여 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음식이었단다. 김산옥 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한식의 기초가 되는 장 관리와 젓갈을 담는 데 신경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한다. 옛날 그대로 이어받아 한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젓갈과 장은 한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젓갈은 여러 가지의 김치를 담그는 데 넣어야 하고, 고추장, 된장, 간장은 반찬과 찌개를 만드는 데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죽림집은 안채에 별도로 장독대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효식품을 관리하지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식의 깊은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추를 삭히거나 무장아찌, 깻잎도 갈치속젓을 쓴다. 젓갈은 전라선을 타고 여수에서 올라오는 젓갈 아줌마들이 젓갈을 대 준다. 9월에 담는 토하젓은 구이저수지 근처 맑은 물에서 잡은 강새우, 민물새우를 쓴다.

죽림집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음식이 밥상에 오른다는 점이다. 계절의 변화를 음식의 미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백반상을 차려 내놓는다.

주로 젓갈, 탕, 찌개, 무침, 전, 조림, 김치, 겉절이 등이 백반상의 중심적 반찬이다. 김치는 봄에 나박김치, 여름에는 오이김치·열무김치, 가을에는 무청김치·경종배추김치, 겨울에는 김장통배추김치·동치미·꼬들빼기김치가 밥상에 오른다. 죽림집에서 유일하게 밥상에 오르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깍두기다. 깍두기는 전라도에서 김치 축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찌개와 무침도 계절마다 바뀐다. 겨울에는 묵은지 찌개가 올라오면, 여름에는 민물새우탕이 오르고, 된장찌개도 계절마다 찌개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 죽림집의 전 맛도 일품이다. 봄에는 유명한 전주 미나리, 머웃대 새순을 부쳐 먹고, 달래, 냉이, 질경이, 담뱃대나물도 무침으로 오르고, 햇 야채전이 갖가지 등장하고, 여름에는 호박전, 깨전, 부추전이 오르고, 가을에는 가지전, 호박전, 양애전이 밥상에 오르고, 겨울에는 홍어전, 명태전, 상어전이 밥상에 오른다. 한겨울에는 12가지의 재료를 넣은 ‘느리미전’과 다른 집에서 맛보기가 쉽지 않은 정월 대보름 음식도 내놓는다. 탕도 계절 따라 다르게 오르는데, 깨탕은 단골로 오르고, 가을에는 버섯탕, 겨울에는 토란탕이 밥상에 오른다. 김산옥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음식 솜씨를 그대로 내놓는다. 다른 한식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조림과 멸치짬지를 내놓는다. 쇠고기로 만든 장조림을 귀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멸치볶음이 아니라 멸치짬지를 만들어 내놓는 것도 시어머니의 방식이다. 김산옥 씨가 효부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죽림집에서는 음식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전주음식의 명소 가운데 명소라 할 수 있다. 김산옥 여사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손님들에게도 가족 대하듯 한다. 제철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면 손님에게 친절하게도 제철음식을 가리키며 지금이 제맛철이니 먹

어 보라고 권유한다. 마치 음식 해설사처럼 미각을 돋구어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경종배추김치를 밥상에 내놓고서 손님에게 권유하는데, 그 말을 듣고 김치를 씹어 보니 맛이 상큼하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미꾸라지탕(추어탕)을 먹어야 한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때 놓치지 말고 제철음식을 먹어 보라고 귀뜸해 주니 참으로 고마울 뿐이다. 칠레산 홍어가 판치는 세상에 가끔 흑산도 홍어라도 들어오면 항아리 독에 넣어서 숙성시킨 다음 홍어맛을 아는 귀한 손님들에게 홍어맛 보라고 전화를 한다. 상술이 아니라 정이다. 무엇이든지 때 놓치면 무용지물이란다. 제때에 제맛을 내는 음식을 먹어야 제맛이지 철 모르는 음식은 팔지 않겠다는 식이다. 1년 내내 같은 음식이 밥상에 오르는 것은 별로 없다. 어찌 보면 김산옥 씨는 음식 장사를 하면서 잔꾀를 부리지 않는 진정한 한식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한식을 만들어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즐겁다. 그래서 집안에서 먹는 음식처럼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새벽 5시면 남부시장에 장 보러 가는 일이 관행이 되었다. 식재료를 구입하는데도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채소를 구입하지 않고 노지에서 피약별 받으며 자란 채소를 구입한다. 나물은 주로 진안고원에서 자란 것을 사다 쓴다. 죽림집의 음식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죽림집은 한옥에서 한식을 먹는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안성맞춤의 집이다. 죽림집은 집에서 밥 먹듯이 밖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다. 전주에서 한식의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가정식 백반집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이다. 전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식 백반집을 전통음식 지정 업소로 선정하여 관광객들에게 전주음식의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청이 떠나 버린 뒤 한산해진 백반집거리를 지켜 주는 한식 마니아들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음식의 명향 전주에서 백반집거리를 특화시켜

가장 정통성이 있는 한식거리로 조성해야 한다.²

(2) 콩나물국밥

아무래도 전주콩나물국밥이 명성을 얻기 시작한 곳은 남부시장이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보부상들이나 장삿꾼들이 전주콩나물국밥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콩나물국밥이 이미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며, 1929년 12월 1일자로 발간된 『別乾坤』이라는 잡지 「天下八道名食物禮讚」이라는 칼럼에 소개되고 있다. “탁백이국”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콩나물국밥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탁백이국은 원료가 단지 콩나물일 뿐이다. 콩나물을 솟혀 너코(시래기도 조금 넣기도 한다) 그대로 푹푹 삶아서 마늘 양념이나 조금 넣는 등 마는 등 간장은 설녕탕과 한가지로 大禁物이요 소곰을 쳐서 휘휘 돌려 노르면 그만이다. 元來 달은 채소도 그러하겠지만 콩나물이라는 것은 가진 양념을 만히 넣어 맛있는 장을 쳐서 잘 만들어 노아야 입맛이 나는 법인데 全州콩나물국인 탁백이국만은 그러치가 안타. 단지 재료라는 것은 콩나물과 소곰뿐이다. 이것은 분명 전주콩나물 그것이 달은 곳 것과 품질이 달은 관계이겠는데 그러타고 전주콩나물은 류산암모니아를 주어서 길은 것도 아니요 역시 달은 곳과 물로 길을 따름이다. 다가치 물로 길으는데 맛이 그렇게 달으다면 결국 全州의 물이 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옛것든 것처럼 맨콩나물을 푹신 삶아서 소곰을 쳐가지고 휘휘 내져서 노흔 것이 그와같이 맛이 있다면 신통하기가 짝이 엷는 것이다. 이 신통한 콩나물국밥을 먹는 법이 또한 운치가 있다. 아침 식전에 그러치 아니하면 子正후에 일즉 일어나서 쌀쌀한 찬 기운에 목을 웅숭커리고 탁백이집을 차저간다. 탁백이집이라는 것은 서울가트면 선술집이다.

2 송화섭 외, 『전주음식』, 민속원, 2009.

전주콩나물국밥은 솥에 콩나물을 넣고 김치 시래기와 마늘 양념을 조금 넣는 등 마는 등 하고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전부다.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장(醬)은 금물이고 반드시 소금(鹽)으로 맛을 내어야 한다. 맨콩나물을 푹신 삶아서 소금을 치는 일밖에 없는데, 다른 곳과 맛이 다르다니 신통할 수밖에 없다. 전주콩나물국밥의 맛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다가치 물로 길으는데 맛이 그렇게 달으면 결국 순창의 물이 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전주콩나물국밥의 맛은 콩나물 맛이었고, 콩나물은 물맛이었다. 전주콩나물국밥의 맛이 다른 곳과 차별이 날 정도로 다르다면, 결국 전주의 물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다. 그 물맛은 기린봉과 성황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황산은 전주의 주산으로서 현재는 승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황산과 기린봉 사이에는 후백제 견훤궁터가 있는 곳이다. 성황산과 기린봉의 아랫마을이 풍남동과 교동이다. 이 마을에서 기른 콩나물이 일품이었고, 전주콩나물국밥의 맛을 좌우하였다. 전주콩나물국밥은 다른 어느 지방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의 별미였다. 탁백이국(콩나물국밥)은 아침 식전 새벽녘에 쌀쌀한 찬 기운이 감돌 때에 콩나물국밥이 감칠맛이 나고 운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콩나물국밥을 즐긴 사람 전주콩나물국밥
 람들이 새벽녘의 남부시장 사람들이었다. 시장에는 동트기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팔 과일과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해산물을 운반하고 경매하고 정돈해 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들이 잠든 새벽 내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생산자와 중간상인과 소매상인들이다. 이들이 대충 당일에 팔 물품을 정리해 놓고 나면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각이다. 새벽일을 마치고 해 뜨기 전에 시장 사람들이 먹는 밥이 콩나물국이었다. 해장국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해장국은 ‘해 뜰 때쯤에 장터에서 먹는 국밥’이라는 축약어이다.

(3) 비빔밥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이고, 비빔밥은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정착된 상태이다. 전국 어디를 가도 전주식 비빔밥이요, 일본 식당에서도 ‘전주비빔밥’이라는 메뉴가 등장하고, 비빔밥 전문점이 개설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다. 전주비빔밥의 명성은 유럽으로 뻗어 가서 웰빙 음식으로 즐기는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히 전주 비빔밥이 글로벌시대에 세계 음식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주는 비빔밥의 메카가 되었다. 그래서 전주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주식 비빔밥’을 꼭 한번은 먹고 싶어 한다. 전주에는 비빔밥을 전문으로 내놓는 집이 있지만, 집집마다 맛이 조금씩은 다르다. 한마디로 전주비빔밥은 만드는 집에 따라 조리법이 약간씩 다르다.

일제시대까지 전주에서는 탁백이국(콩나물국)이 비빔밥보다 더 유명했다. 당시에 비빔밥은 전주보다도 진주가 더 유명했다. 지금도 진주 비빔밥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비빔밥 하면 전주라는 등식이 형성되었다. 전주 사람들이 비빔밥을 상품화하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데 선도한 것이다. 전주 사람들은 언제부터 비빔밥을 즐겨 먹었을까? 이와 관련하는 역사 기록은 없다. 다만 작촌 조병희 선생은 『완산고을의 맥박』에서 1920년대 전주비빔밥 이야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전주비

빔밥의 유일한 역사적 사실이다. 3가지의 이야기를 싣는다.

(가) 남부시장의 비빔밥을 비비는 솜씨는 천하일품이었다.

건장한 사내가 양푼으로 왼손에 받쳐 들고 오른손아귀로 꼭 쥔 수저 두 가락으로 양푼을 빙빙 돌리며 비벼 대는데 한참 흥이 나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치뜨린 양푼이 허공을 빙빙 돌기도 하였다. 「온유한 마음으로 멋과 맛을 챙기는 고장 전주」 가운데 일부)

(나) 음식점에 들르게 되면 넓다란 양푼을 손에 받쳐 들고 옥죄 손가락 두어 개로 비빔밥을 비벼 대는 장정을 보게 된다. 흥이 나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빙빙 돌렸던 양푼을 허공에 빙빙 돌렸다가 다시 손으로 받쳐 들고 비벼 대는 솜씨는 남박장만이 가지고 있는 정경이었다. 「1920년대 전주 남박장의 추억」 가운데 일부)

(다) 싸리비 다 팔 때까지 쪼그리고 있었더니 발도 저리고 허기가 몰려와 장마당의 비빔밥집을 찾아 들어선다. 치마 길이만큼이나 긴 앞치마를 두른 주모가 넓다란 바재기를 손에 받쳐 들고 손가락 두 개로 밥을 비벼 대다가 말미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내놓는 비빔밥은 남박장의 별미였다.

(가) (나) (다)의 내용은 전주비빔밥의 발상지가 남부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빔밥을 만드는 방식도 양푼 비빔밥이었다. 두 개의 손가락을 든 장정이 양푼 안에 든 밥을 비벼 댄 후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내놓는 비빔밥이 일미였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비빔밥의 기원에 대하여 조선시대 음식사서인 『시의전서』에 등장하는 골동반이 전주식 비빔밥의 효시라는 주장이 있지만, 골동반과 비빔밥과는 만드는 방식도 먹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전주비빔밥의 골동반 근거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정말 전주비빔밥은 뿌리도 없는

것일까. 민속이란 쓰여지지 않은 역사일 뿐 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주비빔밥의 유래에 대하여 궁중음식설 · 농사음식설 · 제사음식설 · 거지음식설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궁중음식설이라면 왕실에 진상하는 음식이기에 문헌기록으로 나올 법한데 없다. 그리고 전주에서 조상 제사를 지낸 뒤 음복하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는 풍속도 없다. 농사음식설이라면 도성과 부성에서 살았던 전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비빔밥을 해 먹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거지음식설은 터무니 없는 비빔밥의 중상모략이다. 전주비빔밥의 명성은 전주 읍성의 안팎에서 찾아야 한다. 전주비빔밥의 기원은 시장음식설이 가장 유력하다. 전주식 비빔밥은 전주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문밖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³

2) 술집

(1) 요정-행원

조선시대에는 궁중 및 지방 관아에 소속된 관기들이 있었다. 전라감영에도 관노청이라 하여 감영 내에 관기를 관장하는 곳이 있고, 교방이라 하여 기생을 양성,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곳이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 국권 침탈로 조선의 왕권이 상실되면서 지방관제가 단절되면서 관기들도 해체되었고, 관기들을 모아서 새롭게 기생조합으로 출발한 조직이 권번(券番)이었다. 권번은 경향 각지에 있었다. 권번은 기생들이 노래와 춤을 배우는 양성 교육과정은 있지만, 주로 일제시대 관리들의 주연에 불려 나가는 직업적 기생들이었다. 조선시대 관청에

3 송화섭 외, 『전주음식』, 민속원, 2009.

서 베풀던 향연에 나아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던 관행이 요정(料亭)에서 술시중을 하는 서비스걸로 바뀐 것이다. 요정은 일제시대에 생겨난 요리집을 말한다. 권번은 춤과 노래 실력을 가진 기생을 요정으로 내보내고 감독 관리하는 일이 주 사업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전주에는 일본식 권번이 들어섰다. 권번은 기생조합이었으며, 기생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민간단체로 기생을 양성하는 기생학교가 부설되었다. 기생은 조선시대 관기의 후신이다. 官妓들이 관리들의 주연에 동석하는 것처럼, 권번의 기생들은 일제강점기 자본가, 지주, 관리들의 주연에 동석하였다. 조선왕조의 관청이 해체된 만큼 자본주의 방식의 주연을 베푸는 음식점들이 태동하였다. 이 음식점이 요리집[料亭]이었다. 요정은 ‘요리를 즐기는 정자’라는 일본식 용어다. 전주에는 일제강점기에 樂園(대표: 한태수)이라는 요정이 있었다. 낙원의 일부를 남전 허산옥이 인수하면서 행원이 들어선다. 행원의 전신은 낙원이었다. 허산옥은 낙원 일부를 인수받기 이전에 경기전 뒤쪽에서 운심각이라는 요리집을 운영하였다.

허산옥은 1926년생이며, 김제군 부량면 용골마을에서 태어났다. 허산옥의 본명은 허귀녀였다. 가정이 어려워 16살에 권번에 들어가 기생 교육을 받는다. 그가 21살 되던 해에 해방을 맞는다. 해방은 기생의 딱지를 떼고 권번의 굴레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 거나 다름없었다. 해방 이후에 허산옥은 기생으로서 전주 동광미술학원에서 모델로 활동을 마치고 미술 활동의 보폭을 넓혀 갔다. 그는 소리를 하는 데 소질은 없었지만, 가야금을 잘 다루고, 살풀이춤을 추는 데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여 주었다. 타고난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 그가 동광미술학원에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림을 배운 것이 화가로 활동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해방 직전 1943년경 허산옥은 운심각을 운영하였다. 운심각은 산다마(三玉, 금옥·산옥·연옥)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요정이었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에 옥자가 든 세 명의 기생이 의기투합하여 운심각을 열었다. 해방 직후에 전주에서는 운심각이라는 요정보다 산다마라는 이름으로 물 좋은 요정이란 소문이 파다하였다. 산다마에 가야 술대접 받고 술 마시는 기분이 낫다고 할 정도였다. 취기가 오르면 기생과 어울어져 춤을 추고 놀았다. 기생들이 입에 접시를 물고 춤을 추면서 주석을 돌면 사람들은 접시에 돈을 얹어 주었다. 산다마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한다는 소문이 서울에까지 퍼져 서울에서 운심각으로 술 마시러 올 정도였다. 운심각이 성업을 하면서 산다마가 독립하는 길로 나서면서 산다마가 해체된다. 산다마의 금옥이가 서울에 올라가 큰 요정을 했고, 연옥이는 경상도로 가고, 허산옥이 목원의 일부 건물을 인수하고 행원(杏園)을 열었다.

행원은 ‘살구꽃이 만발한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상호명이다. 행원은 산수화로 명성을 가진 의재 허백련이 지어 주었다고 한다. 허산옥은 목원 일부인 안채와 아래채를 인수하였다. 아래채는 해방 이후에 ‘전주 국악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곳은 목원 당시부터 권번 출신의 기생들이 기악과 소리와 춤 연습을 하던 곳이었다. 이곳이 권번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목원의 요정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최고령 화가인 하반영 선생도 목원이 무척 컸으며, 허산옥은 목원 일부를 인수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도 행원의 명성은 자자하였다.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전주에 출장을 가면 ‘행원에 들러봤는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하니, 행원의 명성은 전국구였다.

행원의 주인이었던 민소완 씨에 따르면, 행원이 1943년에 문을 처음 열었다고 한다. 허산옥이 목원 일부를 인수하기 전에 정모씨가 목원을

운영하였고, 뒤이어 허산옥이 행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정을 열었다. 허산옥은 16살에 권번에 들어가서 기생 수업을 받으면서 모델로 활동하였고, 그림을 배우면서 행원으로 화가들을 불러들였다. 남전은 의재 허백련에게 산수화를 배우고, 강암 송성룡에게 붓글씨를 배우고, 월전 장우성에게 장미를 배웠다. 남전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국의 수많은 화가들이 행원을 찾았다. 의재 허백련 외에 김은호, 이응로, 이상범, 허건, 변관식 등 이름난 화가들이 행원을 도왔다. 허산옥 씨는 동양화와 묵화를 그리는 화가였고, 기생 출신으로 국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국전 화가가 되었다. 1950년 직후에 전국의 이름난 화가들이 행원을 찾았고, 허산옥은 화가들에게 각별한 대접을 하였다. 이인철 선생님은 허산옥이 손이 큰 여장부라고 할 정도이니,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그림과 병풍을 사들이는 후원자 역할도 하였다. 화가들이 전주에 오면 여관방을 잡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할 정도였다. 원주 출신 이용우는 허산옥의 후원으로 평생 전주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허산옥의 후원자 역할은 효산 이광렬을 중심으로 전주에서 화풍이 형성될 정도였으며, 전주가 예향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70년대 후반까지 행원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요정이었다. 직원이 30명 정도였다고 하니 기업형 요정이었다. 남전이 화가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행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허산옥 아래에 있던 안경해(속칭 안마담) 씨가 잠시 운영을 하다가 허산옥 씨의 권유로 민소완 씨가 행원을 사들여서 직접 운영하였다. 남전 선생이 행원은 판소리 하는 사람이 인수해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권하다시피 하여 인수를 하여 전세를 주었다고 한다. 80년대는 민소완 씨가 운영을 하다가 90년대는 전미자 씨가 행원을 운영하였다. 전미자 씨가 월광(한옥마을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만성장도 행원의 숙주들이 나와서 차린 한정식

집이다. 전미자 씨의 회상에 따르면, 행원에서는 서울에서 높은 사람들이 전주에 내려온다고 하면, 명주바지를 숫자만큼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앉아있으면 양복 바지가 구겨지니까, 행원에 오시면 양복 바지를 벗고 속바지(명주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술 마시며, 춤추며 놀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가씨들에게는 방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로 밖에 나와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다.

권번의 기생들이 밤에 술자리에 나가 소리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전주에서 행원이 유일하였다. 그래서 행원의 별채에는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배우는 큰 방이 있다. 이곳에서 행원의 기생들은 춤과 노래를 연습하였다. 소리와 춤을 연습하는 곳이라서 전주국악원이라고 불렀다. 행원의 사랑채가 국악원 같은 곳이었다. 행원의 안채는 밤마다 술 손님을 받는 요정이었고, 사랑채에서는 기예를 가진 기생들을 안채로 보내어 향응을 베푸는 데 시중을 들게 하였다.

(2) 한정식집-백번집

일제강점기의 요정은 해방 이후에 한정식을 낳았다. 요정에서 한정식집으로 변화는 봉건왕조의 신분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교방의 기녀가 일제강점기 권번의 기생으로 관리, 사대부들의 술 시중을 드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신분제의 해체로 더 이상 기생 노릇을 할 사람이 없어졌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근대화의 과도기에 태동하였던 요정과 기생집도 자취를 감추고, 요정에서 한정식집으로 변화가 온 것이다. 한정식이 요정의 전통을 이은 것은 술상의 전통은 받았으나 술시중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밥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권번에서 국악과 전통춤을 배워서 요정에서 웃음 팔고 몸 팔던 요정에 대한 기억이 있다. 요정에서는 한량들이 즐긴 풍류가 있었으나, 한정식집에서는 풍

류의 자취가 사라졌다. 한정식집의 풍류는 술 한잔하면서 소리도 듣고, 기생 치마폭에 그림 그리고 글씨를 쓰는 관행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나, 이제 한정식집의 전통도 사라지고 오로지 밥집으로 전락한 것이다. 밥집은 백반집이다. 전주에서 대표적 요정이 행원이었다면, 대표적인 한정식집은 백반집이다.

백반집은 1958년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서 칠봉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칠봉옥은 전주 산세인 완산칠봉에 위치한 식당 이름이었다. 해방 이후 외식집들이 한두 곳씩 생겨나면서 주로 명칭은 △△옥, ○○관,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기 시작하였다. 주로 밥집은 ‘옥(屋)’ 자를 붙였고 요정은 ‘관(館)’ 자를 붙였다. 요정은 일반적으로 ‘기생집’으로 통한다. 옥과 관의 명칭은 해방 직후 음식점이 생겨나면서 일본식 음식점 명칭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음식점 이름은 식민 지배의 잔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백반집은 칠봉옥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밥집으로 출발했음이 분명하다. 칠봉옥이 전주에 처음 문을 연 것은 현 사장인 주환 씨의 모친이다.

모친(김종화)은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20세에 전주로 시집을 왔다. 모친은 당시 삼례 한내다리 근처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였다. 하천 바닥에서 돌과 모래를 퍼내어 건축업자에게 팔았다. 당시는 맨손으로 삽 들고 일하는 방식이어서 골재를 퍼 올리는 인부들이 많았다. 인부들의 새참과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식사와 술안주를 만들던 모친은 음식 솜씨로 현장 인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모친은 한내다리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매운탕[魚川湯]을 잘 끓인다는 소문이 나면서 익산이나 전주에서 음식점을 차려 보라는 건축업자들의 권유를 받는다. 건축업자들은 골재 전표를 가져와 돈을 계산해 주는 간조를 하면서 어천탕을 대접받고 한내다리를 떠나 전주에서 음식점을 하라

고 강권하다시피 하여 처음으로 음식점의 문을 열게 되었다. 문을 열었지만 외상을 달아 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는 잘되어도 쌀 살 돈이 없어 이모 집에서 쌀 한 말을 빌려다가 밥 지어 판 적도 있다고 한다. 이모 집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숙시키며 살았는데 하숙비를 쌀로 받던 터라, 칠봉옥이 쌀이 떨어지면 간혹 쌀을 빌려오던 집이었다.

칠봉옥을 운영한 지 3년 후에 ‘백번집’으로 상호명을 바꾼다. 백번집은 구 전북도청 부근(현재 한국식당 앞) 서인창고 건물을 개수하여 이전하면서 탈바꿈한다. 칠봉옥을 드나들던 전주향교의 어른들이 술안주가 좋은 집이라 하여 “백제 땅의 주막이다”이라는 뜻에서 백번집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여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백’ 자는 백제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식탁에 반찬과 술안주가 꽉찬다, 뽀뽀하다, 걸다, 많다는 의미로 ‘번’ 자를 붙여서 ‘백번집’으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를 100번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면서 80만 원을 주고 100번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도 백번집은 100번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주의 음식점에 반찬 가짓 수가 많은 것도 전주음식이 외식화되던 초창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푸짐한 밥상과 안주감을 많이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초에 향교 어른들이 백번집을 드나들면서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백번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백번집에서 시도 읊고 글도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던 예술인들이 앞다퉈 그림을 가지고 와서 방에 걸어놓고 작품 전시를 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백번집에 저명인사와 문인, 예술인들이 찾아오자 화가들의 그림을 소개할 기회라 생각하여 동양화, 서예 글씨를 표구까지 해 가지고 와서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갤러리와 같은 곳이었던 것이다. 서예로 유명한 석정, 벽천, 월당 선생의 글씨들이 백번집에 걸려 있는 것도 그때부터 걸어 놓은 것이다. 강암 선생의 글씨도 받았지만, 선생님의 요청으로 백번집 식당이 아닌 안집에 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문인과 예술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음식 시중을 드는 여자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의 권유가 잇따랐고, 요정 비슷하게 여자들을 밥상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비록 밥상이지만 밥상보다는 술상으로 변하면서 안주음식이 많아지고 시중드는 아가씨들이 방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백번집은 반요정(半料亭)과 같은 곳이 되었다. 아가씨들이 음식점에서 시중든다는 소문이 나면서 애인을 가진 기동서방들이 자기 애인을 백번집에 취업시키고 월세방을 얻어 주어 마치 작은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가씨들은 요정집에서 기생이 하는 시중을 드는 것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상에서 시중을 드는 풍속이 생겨나는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한 반요정이 한정식집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백번집은 안주 음식이 좋고, 아가씨들이 서빙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문인, 예술인보다는 고급 관리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장소가 부족하여 이전을 거듭하였다. 1978년경 구 전라북도청 앞 큰 2층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2층은 100명 1층에는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었다. 당시 전주에서 1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은 백번집 밖에 없었다. 식당의 규모가 커지자 자발적으로 찾아와 음식 시중드는 일을 맡아서 취업하는 여자들도 생겨났는데, 광주에서 아가씨 6명이 자발적으로 와서 취업할 정도로 성업하였다. 그리고 전주에서 사회봉사단체의 규모가 큰 행사들이 열리면서 백번집은 전성기를 맞게

된다. 전성기 때에는 1층과 2층에 수많은 사람들이 취흥을 즐기기 위하여 밴드를 불러서 서양 음악을 즐기기도 했다. 판소리를 부르던 세대가 가고 팝송을 듣기 시작하던 7080세대들이 보컬밴드를 불러 공연을 시키고 술 마시며 집단적인 취흥을 즐겼다. 당시 전매청 전속 밴드가 저녁때에는 손님방에 들어가서 음악을 연주할 정도로 음식점이 흥성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백번집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오스카극장, 삼남극장에서 영상 홍보를 할 정도로 성업하였다. 당시 백번집을 자주 애용하였던 단체들은 로터리, 와이즈맨, 라이온스 같은 사회단체였으며, 전주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백번집이었다. 그러나 1970년 초 전주코아호텔이 생겨나면서 대규모 행사가 호텔 쪽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정식집에 손님들이 뜸해져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업을 확장하여 서학동에 백만장이라는 반요정집을 내고, 여름에 피서를 즐기면서 식당업을 할 수 있는 고덕산장을 열어 전주음식을 선도하였다. 당시 관청 공무원들과 고위급 사람들은 행원을 드나들었지만, 요정집에 버금갈 정도의 백번집은 대중화된 한정식집으로 명성이 높았다. 백번집은 한정식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한정식은 밥상이 아니라 술상이다. 한정식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내놓은 일본형 한국식 술상이다. 술상은 일제강점기 요정에서 풍류객들이 즐기는 수단이었었는데 한정식이라는 밥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요정에 기생이 있었다면 한정식집에는 밥시중을 드는 아가씨들이 방 안에 들어왔다. 한정식집은 반요정(半料亭)처럼 운영되었다. 백번집은 반요정의 전형을 보여 주는 음식점이다. 한정식집은 한옥풍 분위기의 온돌방에서 술상형의 밥상이 나온다. 이제 서빙하는 아가씨들도 자취를 감추었지만, 백번집에 가면 반요정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다. 백번집에 무수하게 걸린 그림들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 합작 그림은 반요정의 상징적인 흔적이다.

(3) 대포집 · 선술집

酒店, 酒家가 태동한 것은 조선 전기이다. 조선 전기는 거리의 술집 [行壚]이었다. 주로는 처음에는 술 사발씩만을 팔던 방식이었으나 술안주(술국)를 끓이기 위하여 화로(火爐)를 설치하면서 酒母가 그곳에 앉아서 술을 파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주점의 모습이 조선 후기 풍속화의 주막 풍경에서 나타난다. 실제 주막의 발달은 보부상들이 견인하였다. 대포집은 주막거리에서 보부상들이 상행위 질서 유지와 조직관리를 위한 대포잔(大砲盞)돌리기 관행에서 비롯된 술집 명칭이고, 선술집은 대포집이 민간인들의 주점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선술집 영향을 받아서 생긴 술집 이름이다. 즉, 대포집은 주막에서 나왔고, 선술집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선술집인 立ち飲み屋(たちのみや) 영향을 받아서 생긴 명칭이다. 조선시대 주막을 중심으로 보부상들의 음주문화가 전승되었는데, 대포잔돌리기가 그 한 사례이다.

대포잔돌리기는 보부상 집단적 관행이었다. 보부상들은 조직과 결속을 강조하는 모임에서 대포잔을 돌리며 서로의 동료애와 동류의식을 강화하는 음주문화를 즐겼다⁴. 일제강점기 주막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선술집과 닮은 대포집들이 술집 전문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선술집은 말 그대로 술을 서서 마시는 술집을 말한다.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도 선술집 같은 그림이 있기는 하나, 선술집의 대중화는 일제강점기에 양조장(釀造場)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조장에서는 막걸리를 만들었고, 신식 소주인 희석식 소주를 양산하면서 소위 대포집,

4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61쪽.

막걸리집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전주막걸리의 명성은 남문 밖 장터에서 시작하였다. 1965년 전주시 상가 지도를 들여다보면, 남박장 주막거리에 오성주조장이 있었고, 전주천 건너편에 완산주조장이 있었다. 오성주조장·완산주조장의 위치는 매곡교와 완산교 사이 일대에서 막걸리 수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양조장은 일제강점기에 태동하지만 왜 전주천변 남문밖장 매곡교 부근에 집중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1950년대 전주 상가 지도를 살펴보면 오성주조장 인근에는 ○○하숙, ○○여인숙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매춘업이 성행하고 있다. 왜 이곳이 매매춘 지대가 되었을까. 남부시장 옆에 위치한 매매춘 지대와 막걸리 양조장과 하숙, 여인숙 집결 지역을 묶어서 연결해 보면 보부상, 장돌뱅이가 연상된다. 매곡교 근처에 도레미파집, 김제집의 해장국집이 있었다 하니 주막거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 매곡교 근처에는 하숙집이 집중 분포하였느냐 하는 점인데, 장돌뱅이들이 숙박을 지정해 놓고 남부시장 장날마다 찾아왔기 때문이다. 매매춘업은 일제강점기 주막의 해체 과정에서 장돌뱅이도 떠나고 해장국집도 떠나고 숙박업만 남은 결과로 보인다. 주막거리의 특징은 장삿꾼들이 모여들면 술집이 생겨나고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아가씨들이 모여드는 방식은 장시문화의 기본 원리이다. 위도 파시장터와 장수 변암 주막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⁵

그러나 일제는 식민통치 자금을 국내에서 마련하기 위한 稅收에 혈안이 되고, 주막업은 숙박업, 주점업, 음식업으로 분화되면서 해체되었

5 구본술, 「주막과 장터의 문화사적 고찰-장수 변암 도주막거리와 시동강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 34집, 남도민속학회, 2016.

다. 숙박업은 여관, 여인숙, 하숙집으로 생겨났고, 주점업은 대포집(왕대포), 선술집, 막걸리집을 파생시켰으며, 음식업은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등 국밥집을 태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막에서 분화된 대포집과 음식점은 1960년대 일반인들도 시장 안에 점포를 낼 수 있는 법이 제정되자 남부시장 안에 해장국집(콩나물국밥, 국수, 비빔밥, 수제비, 백반집 등 음식점)이 생겨났다가 전주부성 안으로 진출하면서 곳곳의 골목과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대포집과 대중음식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전주음식의 대표성은 콩나물국밥집과 막걸리 대포집이다. 전주콩나물국밥과 전주막걸리의 뿌리는 남문 밖의 장시주막이라 할 수 있다. 삼천동과 서신동에 막걸리집이 조성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전주 사불여 가운데 주불여효(酒不如肴)가 있다. 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주만 못하다는 뜻이다. 전주 막걸리집에서 술안주가 풍성하였던 것도 남문밖장에서 파생하는 과정에서 전주 인심이 실린 음주문화일 것이다. 전주에서 막걸리집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중앙동, 다가동 짹골목거리에 후문집, 정읍집, 세종집 등 막걸리집이 성업하였고,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였던 남부시장 주변에 막걸리집이 많았으며, 정읍, 고창 가는 시외버스 완산동 중간 정류장 근처에 정읍집, 김제집 등 막걸리집이 성업하였으며, 남원, 임실, 순창행 시외버스 전동 중간 정류장인 전동성당 건너편 골목에 막걸리집이 운집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집이 구루마집이다. 구루마집은 상관, 임실 지역에서 땀값을 구루마에 싣고 남부시장에 팔러 오는 장사꾼들이 찾아와 시레기국에 막걸리 한잔 마시고 풋고추로 된장 찍어 먹고 돌아가던 선술집이었다.

선술집은 사람들이 서서 막걸리 한잔 마시는 방식의 술집이라서 선술집이라고 불렸다. 선술집은 그만큼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다. 일본에서 선술집은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샐러리맨들이 직장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러서 간단하게 한잔하는 게 선술집(立ち飲み屋)이었다. 구루마집은 지금도 옛날 선술집 ㄱ자형 주로(酒壚)를 갖춘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로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등장하는 주막의 전형적인 酒壚으로 주모가 주로에 앉아서 술을 파는 좌대 역할도 하였다. 주로에는 술동이와 술안주, 술사발, 술국을 끓이는 불 화덕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로가 주막집의 해체로 선술집화하면서 ㄱ자형 주로가 변화하였으며, 주모가 일어서서 술차림을 하였다. 아직도 남부시장의 구루마집은 전통적인 酒壚를 갖춘 오리지널 선술집이다.

원래 주막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함께 팔았고, 국밥과 술만 마시면 잠은 공짜로 잘 수 있었다. 주막의 주로가 대포집(선술집)의 ㄱ자형 주로로 바뀐 것이다. 예전의 남부시장 현대옥의 주로는 해장국집이 주막에서 파생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막업이 해체된 이후에 국밥집에서는 국밥만 팔고 막걸리를 곁들이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선술집과 대포집에서는 시례기국, 콩나물국 등 국물을 술안주로 내놓았지만 국밥을 팔지는 않았다. 주막의 분업으로 분리된 주점업과 음식점업의 업종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상행위가 남부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었다. 주막에서는 탁주(濁酒)를 팔았지만, 대포집과 선술집은 일제의 강압으로 생겨난 술집이기에 막걸리와 소주를 팔았는데, 소주보다 막걸리를 파는 집이 많았다.

해방 직후 전주에는 밤마다 술꾼들과 술집 아가씨들이 흥청거리는 흥등가와 색주가가 생겨났다. 속칭 ‘짱골목’이다. 짱골목의 명칭은 전

주극장이 위치하는 골목이라서 극장의 ‘장(場)’을 딴 골목 명칭이다. 전주극장은 1925년 9월에 帝國館(鳥飼末吉 建立)으로 문을 연 전주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었다. 당시 영화는 신문화의 상징이었다. 제국관이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전주의 유일한 극장이었다. 선진 문화가 깃든 곳에 변화가의 형성은 도시 발달의 기본이다. 도시 발달은 처음에는 공무원의 파견으로 관공서가 들어서고, 각종 소비 물품을 거래하는 상점과 생활 관련 다양한 점포가 생겨나면서 유흥가도 동반 형성된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이고, 변화가가 된다. 일제강점기 전주의 짱골목이 유흥가, 변화가 인근에 형성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유곽(遊廓)이 해체되고, 料亭과 요리집들이 섞여지면서 색주가가 다가동에 형성되었다. 색주가의 거리는 약간 침체되었을 뿐 유흥가의 밤문화는 지속되었다. 유곽과 권번의 해체로 자유인이 된 아가씨들은 술집과 여관으로 파고들었다. 아가씨들은 짱골목에서 술집의 번창을 촉진시켰으며 색주가의 밤거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아가씨들이 여인숙과 여관에 월세로 기거하면서 밤에 술집에 나아가게 되어 다가동과 중앙동에 여관업이 동반 성업하게 만들었다. 그 중심이 전주의 짱골목이다. 짱골목의 명칭은 해방 이후에도 유흥가의 전통은 계속되었고, 짱골목 인근의 여관들도 성업하였다.

짱골목은 색주가의 밀집지대였다. 색주가는 술집 아가씨들이 작부(酌婦)로 나아가는 술집과 작부들이 거주하는 여관 거리를 말한다. 짱골목 일대는 술집들이 번창하였고, 술집 아가씨들은 술꾼들과 밤늦게까지 흥청거려 야간동행금지도 무색할 정도의 우범지대였다. 이러한 색주가(色酒家)들은 大正町과 本町에 밀집되어 있었고,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성해 놓은 색주가의 전통이 이어졌다. 1950년대 제작된 전주 상공 시가도의 짱골목 일대에는 유난히 여관이 많았다.

서울여관, 기린여관, 경성여관, 선각여관, 남성여관, 경기여관, 은행여관, 박일여관, 반도여관 등 크고 작은 여관들이 짙고목 일대에 밀집한 것은 매춘하는 아가씨와 색주가 아가씨들의 월세방 수요가 많았음을 말해 준다. 유민수 씨는 색주가의 여자들이 거처하는 여관들은 월세방 놓는 여관들이 많았고, 여관에서 월세방으로 거처하는 아가씨들은 화류계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⁶

(4) 희석식 소주의 등장

한국의 전통주는 발효주인 탁주, 청주가 있었고, 전통 소주인 증류식 소주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술은 숙성 기간이 길어서 상업적 효과가 적었다. 세금 수입에 혈안이 된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일본 주류 제조업자들이 연속증류기를 들여와 희석식 소주를 대량생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소주 제조 기술로 소주가 만들어졌으니, 현재 희석식 소주는 ‘일본식 소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희석식 소주가 전국의 모든 양조장에서 생산되면서 국민주로 자리 잡았지만, 일본에서 들여온 연속증류기로 뽑아낸 주정에 물을 섞어서 만드는 게 희석식 소주다. 희석식 소주는 알콜 농도 95% 주정(酒精)으로 만든다. 에틸알코올에 물을 섞는 방식으로 희석식 소주를 제조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희석식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보다 훨씬 더 좋은 술이다.

실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보다 훨씬 더 비싸다.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만

6 유민수(65세, 전주 완산구 감영로 죽림집 운영, 조사자: 송화섭, 조사일시: 2016.6.29.)

7 주영하, 『차폰, 잔폰, 짬뽕』, 사계절, 2009, 151쪽.

있을뿐 희석식 소주는 없다. 세계인들이 외면하는, 한국인만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일제강점기 식민소주(植民燒酒)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증류식 소주는 유통의 불합리로 뒷전으로 밀려나 설움을 겪고, 식민지소주인 희석식 소주가 대중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술꾼들은 술집에서 선택권도 없이 희석식 소주를 마셔야 한다. 한국에서는 왜 증류식소주를 마시기가 어려운 것일까. 왜 한국에서 ‘쏘맥’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그릇된 술문화를 바로잡으려면 각 지역 전통의 증류주들이 대중주로 예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쏘맥은 부끄러운 대상이지 버젓이 내놓고 권장할 자랑거리기는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국세청에서 주조법을 개정하여 모든 주조업자들에게 증류주를 생산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한다. 증류주가 희석식 소주 생산 이전부터 대중주였으니, 민족 고유의 증류주를 복원해야 한다. 전통의 증류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민속주로 분류하여 생산과 유통에 족쇄를 채우지 말고, 일제강점기 이전의 전통술(증류주, 발효주) 문화를 복원하자는 뜻이다. 술꾼들은 전통 주조법으로 만든 발효주와 증류주, 즉 민족술이 식민술판에서 독립하고 극복하는 데



전주 다가동 팥골목 입구

앞장서야 한다. 진정한 주권(主權) 회복은 주권(酒權)을 되찾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희석식 소주를 즐겨 마시

고, 해장국을 즐겨 먹는 나라는 한국의 진풍경 가운데 하나다. 모든 백성들이 발효주와 증류주를 즐겨 마시는 중국과 일본에는 해장국이

없는 반면, 희석식 소주를 즐겨 마시는 한국에만 해장국이 있다. 똑같이 발효주와 증류주, 맥주를 즐겨 마시는 나라인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해장국을 선호하는 것일까. 요즘 해장국은 속풀이 해장국이니 과음이 문제이지만, 왜 과음하는 중국에서는 해장국이 없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전날 저녁의 과음으로 이미 간(肝)에 치명상을 입힌 후에 콩나물국밥을 먹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간을 위협하는 그릇된 술문화를 바로잡는다면 해장국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해장국문화는 근대 한국인이 만든 기형적인 음주문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는 해장국만 있는 게 아니라 숙취를 위한 음료들도 다양하게 팔리고 있다.

1916년 조선총독부의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큰 틀에서 주세법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⁸. 한국인은 희석식 소주 외에 증류주, 발효주를 선택할 권리도 없는 현실이다. 값싼 희석식 소주와 폭탄주가 해장국밥집의 확산을 가져왔고, 다양한 숙취 음료를 만들어냈다. 속 쓰리는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해장국집을 찾고 숙취 음료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4. 해장국의 발달과 한국인의 음주문화

1) 해장국의 발달

해장국은 이제 한국인의 음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8 주영하, 『음식전쟁과 음식문화』, 사계절, 2000, 134쪽.

해장국을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술을 많이 소비하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장국이라는 게 없다. 전날 저녁의 과음으로 이튿날 아침에 취기를 달래는 속풀이 해장국을 먹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전통음식에서도 국밥은 있지만 해장국이라는 음식은 없었다. 1970년대 이전 장사에서 장꾼들이 먹던 해장국이 1970년대 초에 술꾼들의 속풀이 해장국이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5, 60년대에 독배기집(해장국밥집)은 전주 남문밖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문밖장의 장터에서 청과물, 수산물, 농산물 경매가 매일 새벽에 섰다. 매일같이 남문밖 장터의 도매시장에서 새벽에 지게와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는 장꾼들이 해장에 요기하던 국밥이 ‘해장’국밥이었다.

장사의 대포집들이 술집의 상업화 바람을 타면서 대중화된 술집들이 많이 늘어났고,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문화와 대포문화가 결합하면서 소주와 막걸리를 대포잔으로 과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65년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⁹ 한국의 주류는 막걸리에서 소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고구마로 만든 주정을 원료로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전국의 주류업계를 장악한 것이다. 지금도 대중음식점에서는 막걸리와 소주를 판매하지만, 소주가 막걸리보다 대세다.



인천공항소맥광고홍보물

9 주영하, 『음식전쟁 음식문화』, 사계절, 2000, 144쪽.

직장의 회식문화는 회사 구성원과 동료들의 결속을 다지고 조직적인 단합된 행동을 보여 주는 방식이 변질되면서 2차, 3차에 걸쳐 술집을 전전하면서 과음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어찌 보면 대포집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대학생의 신입생 환영회까지 확산되면서 냉면 그릇에 소주 마시는 관행까지 생겨나 인명을 앗아가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와 왕대포문화가 낳은 잘못된 음주 행위가 대학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대문화의 잔영이 되살아나 맥주에 소주를 섞어서 만든 희석식 소주를 ‘폭탄주’라고 마시는 그릇된 술문화가 만연된 상황이다. 이러한 그릇된 음주문화는 간(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인 가운데 간암, 간경화, 간질환 환자가 많은 것도 잘못된 음주문화의 탓이 클 것이다.

술폭탄을 맞은 간이 해장국으로 해독되는 것은 아니다. 해장국은 국밥일 뿐 약효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밥으로 속을 풀어 준다는 위안을 삼을 뿐이다. 그렇지만 해장국의 전국시대가 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이름난 해장국의 브랜드가 전국 각지에 확장되었다. 청진동해장국, 양평해장국, 전주콩나물해장국 등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성업중이다. 브랜드 해장국 이외에도 소뽕을 고아서 만든 소뽕곰탕을 해장국으로 파는 국밥집이 우후죽순이다. 해장국밥집의 증가는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반증이다. 서민들의 애환을 술로 달래다 보니 해장국집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전날 과음으로 다음 날 아침에 속 쓰림을 해장국으로 달래 보려는 것이다.

술꾼들의 해장국 욕구는 국밥이 간을 해독시킬 수 있다고 믿는 기대심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를 과음하고 속 쓰리는 현상을 해장국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해장국집에 의존하거나 해장국

대체 숙취 음료를 찾는다. 현재 한국의 저급한 술문화가 해장국 확산 시대를 가져왔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폭탄주¹⁰ 습관이 보편화되었다. 그러한 폭탄주문화를 상업적으로 부추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 지금은 해장국이 아침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점심, 저녁의 식사 대용의 국밥이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장국은 아침에 먹는 국밥을 말하는 것이며, 점심과 저녁에는 국밥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국밥을 아침에는 속풀이 해장국으로 먹는다고 보면 옳을 듯하다.

2) 한국인의 음주문화와 해장국집의 확장

한국인들이 과음한 다음 날 아침에 해장국집을 찾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해장국은 한국인의 과음, 폭음 습관 때문에 생겨난 음식의 한 유형이다. 과음 원인은 보부상들의 대포잔돌리기 전통과 상명하복의 군대 술(폭탄주)문화가 조합되면서 강요된 술문화에서 비롯하였다. 대중적 음주의 대상은 막걸리와 희석식 소주가 자리 잡으면서 폭음문화까지 동반하였다. 건전한 술문화는 아니다. 모든 직장의 회식은 단합대회, 결속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강요받는 술좌석이 2차, 3차까지 이어진다. 술판에서는 건강보다 직장의 조직관리가 더 우선이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보부상의 술 마시는 관행이다. 술좌석에서 술을 못 마시면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조직의 위계질서가 술좌석에 그대로 반영되어

10 폭탄주는 대체로 희석식 소주를 맥주에 섞는 방식이다. 림싸롱에서 양주를 맥주에 섞어서 마시는 관행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소주를 맥주에 섞어서 마시는 음주 습관이 보편화되었다. 폭탄주는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에서 비롯되었다. 폭탄주 제조는 직장 상사가 맡는다. 심한 경우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술을 섞어서 마시는 풍조 또한 없지 않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술을 섞어서 마시는 풍토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인의 음주 습관이다. 이러한 폭탄주 관행은 술맛이 없어서 섞어서 마시거나 소영웅 심리의 객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폭탄주는 肝에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에서 사라져야 할 병폐다.

술의 맛과 향에 관계없이 조직을 위하여 목숨 걸고 마신다. 이와 같이 매우 후진적인 술문화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이처럼 강요하는 술문화, 즉 대포잔돌리기식과 상명하복식 술 마시기 문화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오로지 조직을 위하여 강요된 ‘폭탄주’ 문화는 가장 부끄러운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관행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잘못된 음주 습관이다. 막걸리와 소주 모두 원액에 물을 넣어 희석시켜 만든다. 특히 희석식 소주는 주정 원액이 5%라면 95%가 물이라 할 수 있다. 막걸리도 물을 섞지만, 맥주도 물을 섞는다. 우리는 술다운 술을 마시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술집과 음식점에 가더라도 술의 선택권이 없다. 한마디로 술을 선택할 권리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술다운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5. 맺음말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향촌사회에서 미풍양속인 향음주례가 있었고, 칠월 백중날에는 술땀이잔치판이 벌어지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그릇된 술문화가 태동하였다. 장터에서 보부상들이 모여서 조직관리를 위하여 대포잔돌리기 관행이 있었고, 1960년대 독재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명하복형 조직관리를 위한 희식문화가 발생하였다. 대포잔돌리기가 술잔돌리기라는 문화를 가져왔고, 상명하복형 군대 술문화가 폭탄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짱골목의 색주가문화와 1970년대 나이트클럽이 등장하면서 우범지대에 해장국 집을 출현시켰다. 남부시장 약관에서 새벽일 마치고 장꾼들이 해장에

간이음식으로 먹던 해장국이 나이트클럽 주변 술집 짬골목 주변에 속풀이 해장국으로 성업하였다. 어찌 보면 한국의 음주문화는 품격 있는 술문화는 버리고 저급해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희석식 소주를 마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속풀이용 해장국도 한국밖에 없다. 술꾼들은 지친 간과 몸을 위로받고자 해장국집을 찾지만 심리적 위로다. 소주보다 도수 높은 빠이주[白酒]를 마시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해장국은 없다. 그렇다면 희석식 소주를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한국도 희석식 소주시대를 청산하고 증류식 소주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술꾼들이 진정한 민족독립은 주권회복운동(酒權回復運動)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민족문화 계승 차원에서 발효주와 증류주를 부활시키고 정체성도 없는 희석식 소주와 폭탄주 습관을 버리면 해장국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폭탄주문화는 한국인의 그릇된 음주 습관이 낳았다. 대포잔문화와 폭탄주문화를 바로잡고 품격 있는 음주문화가 복원되기를 소망해 본다.

시대별, 장소별 다방의 역할과 전주다방 65년 추억 이야기

김 남 규 | 전주시의회

1. 들어가며
2. 전주의 다방
3. 전주 다방의 역할
4. 마치며

1. 들어가며

추억의 다방, 다방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소통의 공간이 부족했던 시절 다방은 다양한 역할을 했다. 시대별, 장소별, 세대별 그리고 살롱에서 사랑채, 예술공간, 전시와 갤러리, 드라마와 스포츠 시청, 비즈니스, 오피스텔 등 근대화의 공간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전주의 65년 다방사(史)는 시대별로 전주의 정체성을 담는 공간의 역할을 해 왔다.

전주는 예향이라고 한다. 작품의 전시에서 매매, 감상까지 문화·예술의 향유층이 두터운 전주에서 다방은 그 존재감과 색깔이 뚜렷하다. 예술 향유와 작품 소비 계층의 전통이 조선 후기에서 근대 시기까지 맥을 잇는 역할을 해 왔다. 전북 전주를 한국화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시·서·화·악 등의 예인들이 많았던 전북에서 예향으로서 다방에서의 역할은 예술인들의 왕래 장소, 예술 애호가들의 사교 장소로 예술이 꽃을 피우는 곳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이후 예술의 향유 소유층이 양반, 사대부, 반상 계급이었다면 근대에 와서 향유 소유 계층이 대중적으로 넓어지는 데는 다방의 공간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시대적 변화이다. 예술의 대중성으로 살롱과 사랑채의 이음, 소통공간인 것이다.

특히 1950년 6.25전쟁이 터진 후 서울의 많은 영화인, 극단, 미술인, 문인들이 전주로 피난(1952년경)을 오게 되면서 전주의 가장 변화가였던 중앙동, 고사동은 문화예술인들의 살롱문화로 활발했다고 전해 온다. 그래서 50~60년대 전주는 다른 지역보다 문화예술이 다양하게 더 발전하는 전기를 맞이했다.

전주 근현대사에서 다방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예술이 집처럼 드나들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전시하던 곳이다.(중략)

시화전, 그림 전시회, 시 낭송회, 각종 회의를 하던 곳이다. 따라서 전주의 다방 분포와 활동 영역을 이해하는 일은 전주 문인사의 활동사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¹

6.25 전에는 다방이 없었고 6.25 이후에 첫 번째 생긴 다방이 고향다방이고 이어서 두 번째 문을 연 다방은 (구)아담다방²이다. 아담다방은 1980년 없어졌다가 1999년 옆 건물 2층에서 재개업하여 현재도 전라감영4길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다방은 전주 경원동에 있는 1952년 문을 연 삼양다방이다. 삼양다방은 65년간 전주의 문화사랑방으로 소임을 해 왔으며 2013년 경영난의 위기에서 젊은 문화, 예술 청년 일꾼들의 의지와 건물주의 도움으로 다시 문을 열어 사라져 가는 전주 다방사의 옛 정취와 추억을 보여주는 기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향다방, 아담다방, 삼양다방, 왕궁다방, 우인다방, 심원다방 순으로 문을 열고 그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많아졌다. 전쟁의 피난 시절 암울한 그 시기 영화, 예술인, 문인, 지식인들이 마땅히 갈 곳 없어 다방이 사랑채와 살롱문화를 활성화시키며 다방의 단골손님들이었다.³

영화를 위해, 전쟁을 피해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들었던 곳은 다름 아닌 전주와 군산이었다. 당시 전주극장 주변의 우인다방은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영화배우들의 모임터였다.

1 전북대 이태영 교수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전주 문인들의 활동무대’

2 창업자는 고귀순 씨(1924년생) 1950년대 중반 창업한 고급 다방으로 판검사, 고관들이 많이 다녔다. 연예인, 기자, 신문기자들이 주로 왕래하였다.

3 장명수 전북대 전 총장 인터뷰.

전주극장 주변에 고향다방, 왕궁다방, 우인다방이 있었다.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우인다방이었다. 당시 무대에 오르거나 다방에 죽치고 앉아 있던 연예인들의 면면을 보면 변기종, 김승호, 이예춘, 허장강, 김진규, 주선태, 황해, 박노식, 전택이, 노경희, 도금봉, 김희갑, 현인, 김정구 등이었다.⁴

박노식은 전주에서 배우가 되고, 김진규는 전주에서 살았고, 엄앵란, 황해 등은 늘 전주에 와 있었어요. 악극단에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그런 활동을 했지. 허장강도 그거 하다가 배우가 됐으니까.⁵

전쟁을 피해 서울에서 내려온 문화예술인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나 경찰의 선무공작대에 종사했다. ‘낙랑극장’, ‘청춘부대’ 등의 유랑악극단을 만들어 반공을 연극하고 노래하던 시절이었다. 전주에 주둔했던 11사단 정훈대와 경찰에서도 빨치산 소탕전으로 불안한 지역에 연극반, 만담반, 국악반 등으로 구성된 선무공작대를 순회시켰다.

덕분에 당시의 영화계를 이끌었던 인기스타들이 전주로 몰려들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들이 전주를 찾아오고, 또 이곳에서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예술인들과 교류했던 당시는 전주영화의 황금기였다.

전주는 50~60년대 한국 영화 제작의 중심 기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값싸면서도 맛 좋은 전주 음식은 많은 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며, 여기에 인심 좋고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주민들의 정서 또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예술인들의 호감을 샀다.

4 전주문화재단,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 제2권 「전주의 8·15 해방과 6·25전쟁」

5 탁광 선생님 이야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통을 늘 예술적 자긍심으로 안고 있었던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이었다.

2. 전주의 다방

1) 삼양다방

국내 최고령 다방인 전주 삼양다방이 2014년 7월 4일 오후 1시 다시 문을 열었다. 다방이 있던 원래 자리에 새로 지어진 지인빌딩 1층에는 삼양다방이, 지하에는 전주영화 소품 창고가 각각 등지를 틀게 된 것이다.

1952년 개업한 삼양다방은 진주 흑백다방(1954년 개업), 서울 학림다방(1956년 개업)과 함께 국내 다방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동문에 자리한 삼양다방은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건물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말 영업을 중단하게 될 처지가 됐다.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추억의 문화 사랑방인 삼양다방은 새 건물주의 후원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옛 모습을 살려 복원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삼양다방을 살리기 위해 계절회, 근현대 전문가, 동문예술거리협의회, 도시재창조포럼 등의 관계자가 모여 한 차례 집담회를 개최하고, 삼양다방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위원 권대환 정진옥 · 홍석찬 · 김준우 · 곽승호)가 결성, 본격적인 복원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삼양다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추억을 되살리는 데 복원의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다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의 생활적 가치를 살리고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 주도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창조적 거점으로 삼양다방의 복원에 대한 가치를 삼았고, 민간 자본과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주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 재생의 모델을 지향하는 데 한뜻을 모았다.

얼마 전까지 아침 8시 30분이면 매일같이 문을 열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뜨거운 물에 찻잔을 데웠다. 그리고 구독하는 신문 4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전 9시쯤이면 첫 손님이 왔다. 사진작가 김학수 등 매일 오는 손님들이었다. 주로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옛날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6시가 넘으면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았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 주고 서화가들이 모여서 미술전이나 서예전을 자주 열었던 문화공간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새롭게 개업한 삼양다방은 근대와 현대의 만남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에 근대식 다방의 모습을 갖추어 일명 ‘다방커피’를 중심으로 쌍화탕, 오미자 화채, 미숫가루 등을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 삼양다방을 운영해 왔던 이춘자 사장의 도움을 받아 구 삼양다방의 집기류, 전시품 등을 활용,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다. 삼양다방과 함께 들어서는 ‘전주영화 소품 창고’는 영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잘 보여 주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무료 영화 상영과 「역린」, 「그림자 살인」, 「7번 방의 선물」, 「조선미녀 삼총사」 등 전라북도에서 촬영, 제작된 영화 소품을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삼양다방은 6.25사변 이후에는 피난민으로 내려온 연예인들

과 전주 시내 언론인들의 사교 공간으로 성업했었고, 50년대 후반 ‘싸롱 세라노’ 등의 음악 애호가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1960~1970년대에는 모던한 서양식 문화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었다. 그 후 급변하는 세월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 오면서, 2005년 원로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계절회’의 전시회로 전국적으로 더욱 알려지게 됐다.

이수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세월 전주의 영화 및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근현대 추억을 안고 있던 삼양다방이 이제 일상 속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며 “다방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모두를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공익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언젠가 쌍화차를 주문하니 잣이며 호두, 대추를 듬뿍 넣은 차가 나왔다. 마시기 전, 사진을 찍자 주인이 “옛날에는 거기에 달걀노른자를 넣어 마셨다”며 달걀을 깨 넣어 주었다. 이전에 나의 집 전화번호와 한 자리만 바뀌어 수시로 전화가 왔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눈이 펄펄 오는 날, 다시 한번 삼양다방을 찾아가기로 마음먹는다.⁶

2) 예다방

1982년 전북예술회관 당시부터 문을 열었던 1층의 ‘예(藝)다방’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만 33년 만의 리모델링 공사가 머지않아 시작될 예정으로, 공식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예다방’이 없어진 셈이다.

지난달 30일자로 중앙다방(‘예다방’의 전신)이 전북예술회관 바로 옆 30미터 지점 우리은행 후문 옆 백년옥 2층으로 이전했다. 바로 이곳

6 이수영, 삼양다방 운영위원장.

에서 조병희, 권영도, 탁광, 하반영, 진학중, 이기반, 최명희 씨 등 작고한 문화예술인들과 김남곤, 송영상, 서재균, 김득남, 안도 씨 등 문화예술인들을 만난 기억이 아직도 새롭기만 하다.

특히 다방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전주의 미원탑처럼 ‘예다방’ 하면 많은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전라예술제를 앞두고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전북미술대전의 출품을 앞둔 예비 작가들이 쌍화차 한 잔을 마시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곳이기도 하다.

서양화가 이성재 씨는 “전북미술대전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반드시 거쳐 가는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 사라지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는 이곳에 휴게실 또는 커피숍 등 편의시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관으로 되어 있다가, 운영 주체가 전라북도로 바뀌었다.⁷

3) 전주극장(도립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들

고향다방, 우인다방, 무영다방, 심원다방

우인다방은 6.25 직후 연예인이 가장 많이 모인 다방이다. 출입한 연예인으로는 변기종, 김승호, 이예춘, 허장강, 김진규, 주선태, 황혜, 박노식, 도금봉, 김희갑, 현인, 김정구 등이 있다. 우인다방은 주로 극단 배우들이 많이 다니던 다방이었다.

(1) 전주극장

1965년 2월 15일 전주극장의 개관식이 열렸다. 이는 2층 건물로 800개의 좌석을 갖춘 현대식 극장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전주극장은

7 이종근, 새전북신문 부국장.

영화인, 문인, 극단 배우들의 행사가 있던 장소였다. 전주의 대표적인 뒷골목으로 많은 다방이 자리하게 되었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들었다.

전주의 대표적 뒷골목으로 많은 다방이 있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었던 그곳은 현재 극장가, 독립영화관, 영화호텔 등이 자리하여 매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가 되었다.

고사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전주의 중심지였던 ‘대장정거리(동문거리-웨딩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상가가 하나 둘씩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아주 싼 가격에 매입 가능한 넓은 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극장이 집중됐다.

전주의 중심이 된 고사동은 극장들이 자리를 잡고, 또 이곳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영화의 거리’로 명명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각 극장들이 최신 시설을 갖춘 21세기형 극장으로 거듭나면서 변모의 변모를 이어 나가고 있다.

‘영화의 거리’는 전주 고사동 오거리 광장에서부터 ‘ㄱ’자 형태로 길게 이어진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올 법한 오래된 극장만 해도 10여 곳이 밀집돼 있다. 심지어 ‘영화호텔’이라고 명명된 호텔도 있다. 영화호텔 2층에는 영화 전문 도서관이 개관된바, 필름과 DVD 등 영상자료 1만 5,000여 점과 영화 관련 서적 4,400여 권, 전문 잡지 2,000여 권 등이 놓여 있다.

전주영상위원회 출범 이후 전주가 영화 촬영지로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는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다. 이와 함께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와 영화 제작소가 따로 있어 스튜디오와 야외 세트장, 그리고 세트 제작실과 스태프실, 분장실을 고루 갖춘 곳으로 전주대학교 뒤편, 혁신도시 입구, 상림동과 구 전주보건소에 각각 위치

해 있다. 전주영화촬영소는 2008년 4월 16일 개관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950~1960년대 충무로와 함께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영화를 제작했던 곳으로 21세기의 한국 영화 터전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1999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후 매년 5월 무렵에 치러지고 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인만큼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촬영 협조 분위기도 한몫을 다한다.

3. 전주 다방의 역할

1950~60년대 전쟁과 피난의 사회적 상황이 이어지는 근대화 과정에서 다방은 문화적 공간, 사랑방 공간, 약속의 장소였다. 1970~80년대 다방은 청바지문화, 통키타, DJ음악다방까지 다양한 변화를 해 왔다.

당시 다방에서 주던 모닝커피에는 노란 계란, 반숙 계란, 홍차위스키 등이 있었다. 또한 다방은 입구에는 어른들이, 안쪽에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고 죽치기도 하였다.

다방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재떨이와 성냥갑이 있어 흡연가들의 애연 장소이기도 한 시대를 반영하기도 했던 곳이다. 더 허름한 시장통 다방들은 상인들이 모여서 화투까지 치던 장소였다.

한편 전주의 다방은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예술 문화공간이었다.

한국화나 서예 작품, 서양화까지 다양한 미술품이 걸려 있기도 하고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다. 전주가 문화예술의 예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방문화의 역할이 컸다. 전문 갤러리가 없던 시절 다방에서

서예, 골동품, 한국화 등의 전시관 역할을 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DJ들이 있어서 신청곡을 접수하여 경음악에서 재즈음악까지 다양한 선곡들을 듣기도 하던 음악다방이기도 하였다. 중앙동의 설다방, 돌체다방, 시집가는길 골목에 있는 뮤즈, 전주 최초 전문 커피숍 빈센트 반고흐, 아리랑 제과소와 홍지서림 근처 동문거리의 석다방, 전북대 근처 세모네모DJ다방 등이 있었다. DJ음악다방에서 클래식 음악 전문 다방까지 귀에 이어폰을 대고 음악을 듣는 취미는 다방에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이다. 좋아하는 음반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잡하지 않는 오전에 음악감상실 다방에 가는 마니아들이 많았다고 한다. 다방문화를 좋아했던 분들에 따르면 1980년 전주 중심의 관통로가 뚫리면서 다방들이 점차 사라지고, 1990년대 커피숍들의 등장으로 다방들이 급속히 사라졌다.

전주의 초기 다방은 영화와 관계가 깊었고 한국화를 비롯한 문화갤러리 역할을 하여 예술인들의 산실이었으며, 재즈에서 고전음악까지 음악다방의 역할까지 전주 지역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1) 전주 다방 종사자 40년 산증인 인터뷰

당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일부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생활을 위해 다방업에 종사했다. 다방을 찾는 손님들은 관료, 교수, 언론인 등 전주 토박이 어른들이 단골이었다.

눈만 뜨면 다 다방으로 몰려 계란노란자, 홍차, 칼픽스 등 다양한 종류의 모닝커피 마시려고 아침이 분주했다. 당시 다방의 집합점은 관공서 부근, 중앙동, 고사동에 가장 많았다. 설다방(2003년), 홈런다방(2000년), 올림픽다방(1999년경 폐쇄), 신세계다방이 있었다.

다방에서 일 하시는 분들 일하는 수습 코스는 학고비로 맨 밑바닥 일을 하는 험한 잡일, 주방 그릇 씻기, 잔심부름, 청소 등 약 1~2개월에서 길면 3개월을 거쳐야 아가씨로 인정 그리고 마담이 된다.

1970년대 다방의 인력 구조는 6~7명이다. 주방 1명, 홀 2~3명, 마담 1명, 밥하는 아주머니 등이다. 다방이 큰 곳은 10명에서 7~8명이 종사하기도 했다. 다방에서 일을 하려면 얼굴도 예쁘고, 애인이 없어야 하고 먹고 자야 한다. 다방의 임금은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는데, 선불제는 바깥출입이 힘들다. 마담의 역할도 다양하다. 주인마담, 가오(얼굴)마담, 아가씨, 카운터(계산)마담이 있었다. 주인마담은 큰 다방에서 종사자수가 많으므로 매상을 높이는 책임 마담으로 매상을 책임진다.

인터뷰자에 의하면 당시는 갤러리가 없어서 다방에서 그림을 전시, 판매, 유통하였다. 다방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시대별, 장소별, 세대별로 그 역할이 정체성을 드러낸다. 다방에 가면 정감이 있어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Y담 등이 곁들여져야 한다. ‘얼굴이 이쁘면 망아지 끌고 온다.’고 하듯이 손님과 마담이 합석 손님과 손님이 물려 성업을 이루었다. 다방의 역할은 전화가 귀하던 시절 MEMO, 심부름, 센타홀이 넓으면 카운터에서 마이크로 손님을 불러 주는 것이었다. TV가 귀하던 시절에는 TV스포츠 중계, 유명 드라마 시청도 하며 극장의 역할도 했다. 권투, 축구를 하는 날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선불제로 커피 값을 미리 내고 다방에 입장한다. 넓은 다방 홀에 의자를 짝 깔았다. 청바지문화 7080시대에는 미팅과 반팅들이 다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겨울날 다방은 따뜻한 화롯가 역할을 하였다.

배달다방의 경우, 커피를 배달하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되며 1990년대 당시 배달다방은 100~150군데로 성업중이었다. 한 다방에 4~5명의 아가씨가 종사하였다. 대개는 관공서나

시장 근처에서 손님들이 주문해서 마시는 문화가 있었다.⁸

2) 전주시 다방 분포와 장소 마케팅

전주시 도시계획 및 도시 확장 도로 개설과 관계가 깊은 관공서 대학교 시장 등 상권이 발달된 지역들이다.

(1) 중앙동, 고사동, 다가동 지역의 다방이 발달한 지역의 거리

중앙동은 일제강점기 때는 본전통이라고 불렸으며, 만석꾼·천석꾼들이 살아서 천석꾼거리라고 불렸다. 현재의 도로명은 전라감영4, 전라감영5길이다.

1980년 전국체전 즈음 관통로가 뚫리면서 전주극장, 객사 앞길이 충경로로 변했다. 객사 뒷길에는 먹자골목과 더불어 다방이 많이 있었다. 명동여관과 명동사우나, 고려여관, 신혼예식장 등 상업시설이 발달한 뒷골목에는 명보다방, 다리다방, 한성다방, 가와다방(관통로), 장미다방(지하), 가야다방(전주백화점), 동춘다방(관통로 지하), 돌다방(삼백집2층)이 있었다. 중앙동에는 현다방·태양다방·왕립다방, 다가동에는 그 다방(청석동 파출소)·호남다방이 있었다. 빈세트반고호(음악다방)는 1979년 3월 30일 전주에서 커피 전문점으로 개점하였다. 큰 건물이 있으면 지하든 2층이든 대개는 다방이 있었다.

(2) 남부시장과 남부배차장

남부시장이나 전동터미널 손님들이 자주 갔던 다방들은 동심다방, 토끼다방, 동원다방, 밀으로다방(동양예식장 부근)은 지금까지 다방을

⁸ 전주 다방종사 40년 산증인 인터뷰.

이어 오고 있으며, 복지다방, 은다방, 병아리다방, 대견다방, 곰다방(남부배차장)에서 지금은 어르신들의 휴식터로 장기 · 바둑, 고스톱을 치는 곳으로 손님들이 찾고 있다.

(3) 동문거리

동문거리는 구 홍지서림에서 미원탑 네거리까지이다. 당시 다방이 많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다방은 삼양다방, 임금님다방으로 90년대 초엽까지 미팅 · 반팅이 이루어진 시내 복판의 다방들이다.

(4) 중앙시장

진다방, 육교다방

(5) 모래내시장

오시내다방

(6) 대학로 주변

등대다방(동백예식장 부근)

4. 마치며

1970~90년대 다방은 그림 전시 등 갤러리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는 음악다방으로, 서울에서도 DJ다방이 유행처럼 번질 때 전주도 역시 음악다방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었다. 임금님다방을 비롯하여 대학로 부근 음악다방이 많았다.

1990년대부터는 다방 스타일이 변했다. 커피숍으로 리모델링되며 실내장식이 모던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뽀뽀다방과 1995~2000년도 사이에는 셀프다방이 있었다.

한때 반짝 유행을 했던 90년대 다방문화로 우후죽순처럼 반짝 성업하다가 사라졌다.

뽀뽀가 보급되고 유행하던 시절 뽀뽀에 발신인 번호가 뜨면 뽀뽀다방에 가서 발신용 전화기 앞에서 상대방에게 비즈니스 전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셀프다방은 마담도 종업원도 없이 손님 스스로 커피를 타 마시던 곳으로 커피 가격은 다른 다방에 비하여 500원 정도 저렴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금새 다 사그라들었다.

2017년 7월 현재 전주시 커피숍, 다방 현황(전주시 덕진·완산구청 위생과 통계)

- 커피숍: 689, 다방: 232(폐업 신고 안한 곳)
- 덕진구 커피숍: 281, 다방: 91

근현대 전주 길의 변천

하 태 규 | 전북대학교

1. 전주의 옛길
2. 일제강점기 전주 길의 변천
3. 해방 후 간선도로 개설과 길의 변천

1. 전주의 옛길

1) 조선 후기 전주부성의 관아 시설과 가로망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도 지방의 통치 거점으로서 감영과 부영이 위치한 성곽도시였다. 전주부성 안에는 4대문과 각종 관아 시설 및 민가를 연결하는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전주부성이 언제 처음 축성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명종 때 기두 죽동이 난을 일으켜 전주성을 점령하고 40일 동안 관군에 대항하였다고 하며, 1377년에 왜구 300여 기가 전주성을 점령하였다가 병마사 유실에게 쫓겨 귀신사로 물러났다는 기사 등이 있어 고려시대 전주목의 읍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영조 때 전주부성을 개축한 조현명의 「명건루기」에서는 고려 우왕 14년(1388)에 전라관찰사 최유경이 전주성을 처음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전기 전주부성에 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석축으로 둘레가 1,288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이 석축으로 5,356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주부성은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는 등 이후 크게 퇴락하게 되었는데, 영조 10년(1734)에 전라감사 조현명이 이를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4대문을 고쳐 지어, 남문에는 3층의 문루를 세우고 명건루라 하였고, 서문은 상서문, 동문은 판동문, 북문은 중거문이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영조 43년(1767) 정해년 대화재로 민가 1천호와 문루가 다 소실되어 버렸는데, 그해 9월 감사 홍락인이 남문과 서문에 문루를 중건하여 각각 풍남문, 패서문으로 이름하였고, 그 뒤 영조 51년 감사 서호수가 동문과 북문을 중건하고 완동문, 공북문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중수된 전주부성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에 의하여 철폐될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였다. 오늘날은 풍남문만이 그 자리에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 동문이나 서문, 북문은 물론 성곽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전주부성은 남쪽 성벽보다 북쪽 성벽이 약간 긴 사다리꼴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4개의 문이 있었다. 부성 중앙의 북쪽에 객사가 자리하고 있고, 객사의 남쪽의 우편(남문에서 볼 때 좌편)에 감영이, 그리고 우편에 전주부영 등 관아 시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성의 남동쪽 우각에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동 우각 내에 옥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4개의 문은 남문인 풍남문, 북문인 공북문, 서문인 패서문, 동문인 진동문으로 그중 남문인 풍남문만이 현존하고 있다. 서문인 패서문 자리는 다가동 파출소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문은 구 홍지서림이 자리하고 있던 동문사거리, 그리고 북문은 오거리 부근에 있었다. 오늘날 북문과 서문, 동문 자리에는 그곳이 성문지였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성벽의 길이는 총 3,215km 정도였으며, 남북(남문과 북문 사이) 길이 954m, 동서(동문과 서문 사이) 길이 815m 정도로 약 18만 평 정도가 되었다. 한편 성 밖에는 남동쪽과 남문 밖, 그리고 남문에서 서문 밖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전주부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주지도가 대단히 유용하다. 전주의 지도로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전주지도는 현존하는 것이 없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주지도」는 다수가 전해 온다. 조선 후기 전주에 관련된 지도는 「대동여지도」와 같은 전국 지도와 각종 군현지도류, 그리고 「완산지」, 「전주부사」 등의 읍지나 지리지류에 수록된 지도가 있다.

특히,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십곡병풍전주지도」는 조선 후기에 전주부성 내의 구조뿐만 아니라, 감영의 관아 건물의 배치 구조, 그리고 부성 내의 가로망 등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전라감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지도는 전주부성과 남과 북쪽 인근 지역을 좌우로 전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전주부성을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그려 놓고 있는데, 전주부성 내에 위치한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을 비롯한 관아 건물뿐만 아니라, 부성 밖의 중진영이나 향교 등의 관공서 배치 상태, 그리고 민가와 가로망을 설계도 수준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완산십곡도」의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부분

이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성 내의 ‘T’자형 가로망과 그 주변에 있는 관아 시설이다.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는 초입부 양편에 형성된 민가 몇 채를 지나면 동쪽으로는 전주부영, 서쪽으로는 전라감영을 인접하고 객사까지 연결된다. 이 길은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전주부성의 중심 도로였다고 보인다.

동문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곧게 난 길은 좌우에 형성된 민가 사이를

지난 다음 전주부영의 북편을 따라 객사 앞에 이르러서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와 만나고 감영의 북쪽을 지나 서문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 길은 서문에서 감영 부근까지는 직선을 이루다가 감영의 뒤편에서 북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선형을 이루고 있다. 결국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는 동문과 서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객사 앞에서 만나 T자형 가로를 형성하였다.

전주부성의 주요 관아 건물들은 이 ‘T’자형 가로와 인접하여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객사와 감영, 부영이 자리하고 있는 부성의 중심 관아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성의 중앙에 객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앞쪽의 서쪽에는 전라감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동쪽에 부영이 위치하고 부영의 남쪽에 민가와 더불어 영저리청이 있고, 동쪽 담장 안으로 경기전과 조경묘가 위치하고 있다.

객사는 주관 앞으로 내삼문과 담장이 둘러져 있고, 내삼문 앞에 중삼문, 외삼문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었다. 내삼문 좌우에 맹청과 무신사가 있고, 서쪽 담장에 책판고와 창고에 있으며 담 너머에 군기고와 화약고가 있었다. 객사의 세 개의 삼문 좌우의 공간에는 민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가는 이어지는 감영의 북쪽 담장으로부터 동서간선 도로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감영과 객사 사이에는 동서도로와 약간의 민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객사와 연결되는 가로를 보면, 외삼문 바로 밖에서 대로가 직선으로 남문으로 나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난다. 이렇게 보면 전주부성 내의 ‘T’형 가로망의 머리 부분에 ‘口’자형 객사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영은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의 서쪽에 있었는데, 감영의 주요 시설로는 관찰사의 집무청인 선화당과 내삼문, 중삼문, 외삼문,

포정루 등 각종 관사 건물 등이 있었다. 감영 구역은 ‘T’형 가로망 내 좌측에 ‘口’형 구획을 이루고 있었다.

전주부를 관장하는 전주부영은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감영의 동편에 위치하였다. 부영의 중심 건물은 전주부윤의 집무소인 동헌으로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남북로에서 동편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외삼문, 내삼문 동헌으로 일직선상으로 길이 나 있었다. 동헌의 서편으로 내아가 있었으며, 내아 앞으로 역시 여러 개의 관청 건물이 있었다. 동헌의 동쪽은 내공고 형청 등이 있었고, 다시 그 동쪽에는 작청과 향청 등이 있었다. 부영 구역은 ‘T’자형 가로망 내 우측에 역시 ‘口’자형 구획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객사 감영 부영 구역을 둘러싼 전체적인 구역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각 영역은 외곽을 둘러싼 도로와 중앙의 ‘T’자형 가로망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는 ‘品’자형의 관아 배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주부성에는 중심 구역을 이루는 관아 시설을 주변으로 다양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먼저 남북 가로망을 살펴보면, 중앙의 간선가로 외에, 감영 서편 담장을 지나는 남북가로는 있었고, 이 가로와 서쪽 성벽길 중간에 또 하나의 남북가로는 개설되어 있었다. 동쪽으로는 부영의 동측을 지나는 남북가로, 이 도로와 동쪽 성벽길 사이에 하나의 남북가로는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주부성의 남북가로망을 보면 감영과 부영 사이의 남북간선 가로, 그 양쪽으로 각각 두 개씩의 남북가로, 그리고 그 동서 양편에 성벽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총 7개 노선의 남북가로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동서가로를 보면,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동서간선가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객사 북쪽 담장을 지나는 동서가로, 북쪽 성벽길과

객사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서가로 등 3개의 동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남쪽으로는 감영과 부영 영역의 동쪽과 서쪽의 중간 부분에서 각각 동서 성벽으로 이어지는 동서가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경기전의 북서쪽 모퉁이에서 감영 구역의 남쪽 경계를 지나는 동서가로와 남쪽 성벽길 등 2개의 동서가로를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주부성 안에 선 7개 노선의 동서가로는 형성되어 있었음이 나타난다.

물론 전주부성에는 감영과 부영 외에 경기전과 조경묘의 등 국가의 주요 제사시설이 있었다. 경기전은 남문 동쪽의 남쪽 담장으로부터 동쪽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서의 동남우각에 위치하였고, 조경묘는 경기전 북쪽에서 동쪽 담장에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영저리청, 옥사, 진북정 등의 누정 등의 관아 시설도 성내에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각종의 관아 시설과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건물이나 기관을 연결하는 길과,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길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전주 지적도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

조선 후기 전주부성 내의 각종 가로망은 선형이 굴곡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구간까지만 통하기도 하여, 완전한 형태의 격자형 도시구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주부성의 가로망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직선화되거나 확장 또는 연장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원형이 크게 변화하였지만, 그 선형은 대체로 유지되어 있다.

2) 전주부성 주변의 옛길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도 감영과 부영이 위치한 지방 통치의 거점이 되는 도시였다. 전주부성 주변에는 전국적인 가로망(역로) 체제에 의

하여 한양으로부터 전주로 연결되는 역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주로부터 다시 인근 고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다. 조선 후기 전주 주변의 역로의 모습을 잘 알려 주는 자료는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부 지도이다.

전주로부터 한양으로 나가는 길은 삼례역을 거쳐 여산 황화정에서 충청도 은진으로 넘어가 통영대로를 따라 북상하게 된다. 황화정은 신구 전라감사가 임무 교대를 하던 곳이다. 이때 전주부성에서 삼례역에 이르는 옛길은 어떠했을까? 우선 부성의 정문인 남문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남문으로부터 남쪽 성벽을 따라 서쪽으로 우회하여 옛날 황외과 뒤편 약전거리 골목을 경과하여 현재의 서문교회 뒤편을 지나면서 서문에서 시작하는 길과 만나서 전주천을 따라 내려가 숲정이를 지나 떡전거리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주 부중 북문에서는 비석거리(태평동 파출소 옆)를 지나 숲정이를 지나서 떡전거리로 이어지게 된다.

떡전거리에서는 사평리를 지나 가련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가리를 지나서 추천 건너 신보리(팔복동), 감수리(북전주역 부근)를 지나 주엽쟁이(평리, 삼화동)를 지나서 한내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은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남원으로 내려갈 때 지나간 곳으로 유명하다. 평리마을 입구에는 ‘춘향전에 이도령이 한양 갈 때 밟고 간 다리’라는 글이 새겨진 입석이 세워져 있다. 한편으로는 떡전거리에서 하가리를 거치지 않고 가련산 동쪽을 통해 추천을 건너 감수리를 거쳐 한내에 이르기도 한다. 한내에는 전주천과 고산천이 만나는 조금 아랫부분에 합천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내를 건너 비비정을 왼쪽에 두고 북상하여 여수코빠기의 찰방다리를 건너 삼례역에 이르게 된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삼례역로의 전주 숲정이 부근에서 분기하여 덕진연못 앞 가련산을 넘어 회포면에서 고산천을 넘어 오백조면

을 거쳐 우동면에 이르는 소로가 있었다. 또한 추천을 지난 다음 감수리에서 고랑리를 거쳐 이북면 대초원 부근에서 한 갈래는 사천진에서 만경강을 건너 동일면 석탄리 석불리를 지나 오늘날의 익산 부근에서 오산리 쪽으로 길이 이어진다. 대초원 부근에서 갈라진 한 갈래는 이북면을 거쳐 만경강을 따라 신창진으로 이어지는 대로였다. 한편 삼례에서 김제 쪽으로 내려가는 제7로는 한내천을 건너 뒤 용정리를 지나 도로공사 수목원 부근을 지나 원동을 거쳐 앵곡역으로 이어진다.

전주에서 남쪽 방면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동문과 남문에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에서는 곧바로 전주천을 향해 남진하다가 전주천에서 전주천 우안을 따라 중진영 앞의 남천교에 이르게 되고, 동문에서는 장터를 왼쪽에 두고 동쪽 성벽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중진영 동쪽 담장을 돌아 역시 남천교에 이르게 된다.

남원 방면으로 가는 길은 남천교를 건너 반석역을 지나면서 남고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오른쪽에 두고 동쪽으로 가다가 좁은 목을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주천을 다시 건너 다음 객사동과 은석리를 거쳐 상관면의 신원을 거쳐 만마관 소치점을 지나 슬치를 넘어 임실 방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운암 순창 방면으로 가는 길은 반석역에서 읍양정(교대부속 초등학교 자리)을 오른쪽에 두고 올라가다가 공수내를 건너서 장승백이와 꽃밭정이를 지나 난전면의 삼천리와 추동리를 지나 구이동면의 염암리, 유점을 지나 임실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공수내에서 흑석골을 지나 보광치를 넘어서 평촌으로 연결되는 고갯길이 있어서 태실리를 지나 불재를 넘어 운암이나 임실 쪽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평촌에 예종대왕 태실과 경복사와 보광사 등 큰 절이 있어 왕래가 번번하였던 옛길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이동에서는 삼천을 따라 우림

곡면의 거마리까지 소로가 있어서 전주에서 태인과 금구로 가는 역로와 연결되었다.

전주에서 진안이나 고산으로 나가던 옛길은 대체로 안덕원을 경유하였다. 동문에서 시작한 길은 동문 밖 민가와 장터를 지나 관선암(군경묘지로 가는 길목)까지 나온 다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인봉리를 지나 서낭당이 고개를 넘어서 진안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동정리, 도마다리를 지나면 안덕원에 이르게 된다. 북문에서는 바로 동쪽으로 향하여 연무정을 왼쪽에 두고 가다가 진안 삼거리에서 동문에서 시작된 길과 합류하여 안덕원에 이르게 된다.

진안으로 나가는 길은 안덕원에서 상중리를 지나 단암사 앞에서 소양천을 건너 소양면 국촌리(화심)를 지나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몇 갈래 고갯길에 이르게 된다. 먼저 구진리에서 조약치길이 갈라지는데, 이 길은 오늘날 소태정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의 고갯길 부근이다. 이어서 신원리를 거쳐 삼중리에서 경래재(적천치 혹은 적래재)길이 갈라지고, 이어서 두목리에서 덕봉재길이 갈라지며, 마지막으로 웅치리(웅상)에 이르러 곰티재길이 나오게 된다. 경래재와 덕봉재, 곰티재길은 각각 고개 너머에서 오늘날의 모래재길과 만나 진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고갯길은 임진왜란 때 전주와 호남을 지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웅치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 길 외에 전주부성에서 서낭당리와 안덕원을 거치지 않고 진안 방면으로 나가는 소로도 있었다. 동문 밖 관선암을 오른편에 두고 전주 상고 자리인 인봉리 마당재를 지나면 가재미 한범리를 거쳐서 아중골에 이른다. 여기에서 아중천을 넘어 지금 아중역 부근의 행치마을을 왼편에 두고 행치를 넘으면, 이방간의 묘가 있는 용진면 금상리 가소리

를 지나 신주리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전주에서 진안으로 나가는 길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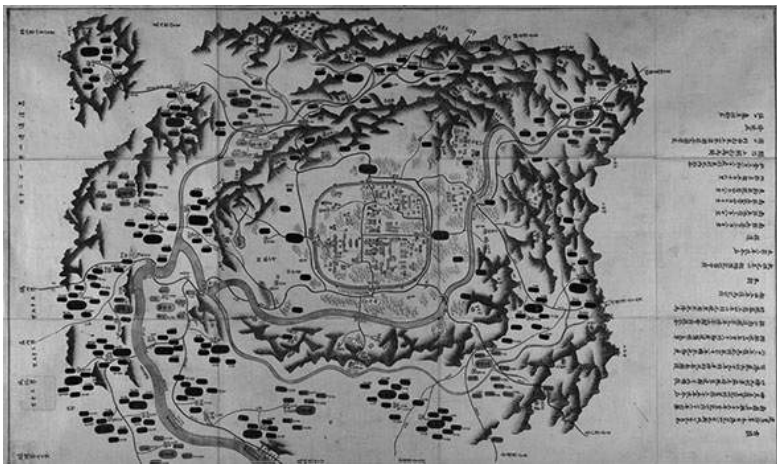
전주에서 고산으로 가는 길은 안덕원에서 장재리를 거쳐 초곡면 상일리와 이리를 지나 초포에서 용진면 쪽으로 고산천을 건너 봉상면의 봉강리(오늘날 봉동)의 장터를 지나서 북상하면 고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에서 소양면 국촌리(오늘날 화심) 부근에서 왼편으로 소로가 갈라져 송광사를 왼쪽에 두고 올라가게 되면 위봉산성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만리 음수동과 대아리를 거쳐 고산 삼기리로 연결된다.

전주에서 태인이나 금구로 나가는 옛길은 서천교를 경유하였다. 남문과 서문에서 나온 길은 각각 성벽을 따라 전주부성 남서쪽 모퉁이에서 합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주천을 향하여 가면 서천에 이른다. 여기에서 서천교를 건너 군자정(현재의 기령당)을 왼쪽에 두고 용머리고개를 넘어서 우림곡면의 거마리에 이르게 된다. 거마리를 조금 지나 삼천을 건너 정동리를 거쳐 황소리에 이르게 된다. 이어서 독배계곡을 지나 솔재고개를 넘으면 청도원에 이르고, 여기에서 귀신사를 오른쪽에 두고 계곡과 계류를 따라 내려가면 동곡에 이른다. 여기에서 금평저수지를 지나 곧장 내려가면 원평을 거쳐 태인에 다다르게 된다. 이 길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퇴한 동학군이 전주부성을 점령하기 위해 지나갔던 길이라고 한다.

전주에서 금구로 가는 길은 앞에서 설명한 태인으로 가는 길의 거마리에서 갈라져 쌍룡동, 태평리를 지나 석산리에 이르러 삼천을 건너고, 이어서 신덕리를 지나 숲고개(쑥고개)를 넘으면 금구에 이르게 된다. 김제로 나가는 길은 거마리에서 금구 방향으로 조금 가면 쌍룡동 길이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남면 개태리를 지나서 이서를 거쳐

김제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서문 밖에서 사마교를 지나 다가정과 희현당을 왼쪽에 두고 화산치를 넘으면 화산리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화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너머(선너머)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부근의 길을 선너머 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동면을 거쳐 이북면 전주에서 신창진으로 가는 대로와 만나며, 남쪽으로는 이서면을 거쳐 김제로 가는 대로와 만나게 된다.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부지도」

2. 일제강점기 전주 길의 변천

1) 시구개정에 따른 도심 가로망의 개수·개설

전주부성의 성곽과 도시공간 구조, 가로망이 파괴되는 것은 1907년 전군간의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일제가 호남 곡창의 쌀을 더 편리하게 퍼내 가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밀어붙여 우리나라 최초

의 신작로를 낸 것이다. 1907년 5월 대한제국 내부 치도국에서 전군도로의 개수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도로는 군산을 기점으로 하여 전주부성 서문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 해인 190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원래 전주 외곽까지는 치도국에서, 그리고 외곽에서 서문까지는 전주부에서 수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문까지 모두 치도국에서 수축하였다. 전주 서문에서 공북정 옆 비석거리 동쪽에서 서문에 이르는 구간은 주택과 도로 부지가 강제로 편입되어 개설되고 양쪽에 석축의 하수구가 설치되고, 도로 양편의 민가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덕진에서 금암광장을 거쳐 성곽 서문에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었다.

이어서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서쪽의 성벽을 허물고 시가지를 반원형으로 둘러싼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서문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전주천에 이르는 (본정, 다가정)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문의 남쪽(본정 1,2정목)에는 하수구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쪽의 가옥 10여 채는 그 배후 성벽지까지 물리도록 하였다. 개조가옥은 기와 또는 함석(아연)으로 지붕을 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문 부근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향하는 도로가 개수 정비되었으며, 서문의 전면의 남측에 파출소를 세웠다.

1908년 서쪽 성벽이 없어지고 가로가 개설되자 서문 부근의 가로 일대는 순식간에 일본인들의 상가로 변하였다. 특히, 서문에서 비석거리에 이르는 전군 신작로 구간과 이에 이어지는 남문에서 서문으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은 일본인들이 점유하여 상가를 형성하여 일대를 본정이라고 부르고, 이후 본정거리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본정통은 서문 부근의 남북으로 형성된 가로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며, 오늘날 다가동(청석동) 파출소 부근의 다가동 우

체국에서 관광호텔로 이어지는 차이나 거리에 해당하며, 이 길 주변에는 아직도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1908년 전라북도에서는 교통기관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부 내의 도로 개수에 착수했지만, 경비 관계로 시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죄수를 사역하여 팔달루에서 도청 앞을 지나 경찰서에 이르는 6간짜리 도로 수백 척이 개수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1년 조선총독부 훈령 제51호에 의해 도로 규칙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912년 10월 가로와 가로의 개설과 정비를 목적으로 한 “시구개정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가로 개설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제1기 시구개정사업이었다.

먼저, 1911년 9월부터 1912년 10월에 걸쳐 동문에서 서문에 이르는 가로와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직선 가로를 개설하여 동서남북 문을 +자형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였다. 동서문 구간은 기존의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기존 간선도로의 노폭을 7.9m 확장하여 직선화하였으며, 하수도를 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하였다.

동서거리가 개수되자 그동안 전군 신작로와 서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일본인의 거주지와 상가가 시가지 안으로 확장되어 대정정이라는 일본인 거주지역이 형성되었고, 대정정거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정통은 객사에서 서문에 이르는 가로가 확장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정통은 태평동 파출소로부터 우체국에 이르는 소위 웨딩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가 확장되면서 일본인들의 점포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중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박다옥 건물이다. 박다옥은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계열의 상업 건축물로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 음식점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우동집으로 운영되었던 건물이

다. 동서도로의 개수 과정에서 객사 앞의 동서가로 중 일부 굴곡진 구간은 새로 개수되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 우체국 사거리에서 이어지는 전주안과 골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문에서 북문으로 연결되는 가로는 기존의 남문에서 객사 앞까지 기존의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객사에서 북문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새로이 개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로가 없었던 객사 구역이 파괴되고 풍패지관의 동익헌이 헐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의 중심 가로축은 조선 후기 T자형에서 +자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교차점은 현 가족회관 앞 우체국 사거리였다.

같은 기간에 경무부 앞 거리(구도청 앞길), 재판소 앞 거리(순사교습소 앞), 도청 앞 거리(구법, 현 KT) 등의 주요 가로가 개수되거나 신설되었다. 이 새로운 길이 현재 금강제화 옆을 지나는 동서가로에 해당한다. 또한 1912년 8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에 걸쳐 서문에서 전주천,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도로가 개축되고, 주변이 개수되었다. 그리고 남문에서 동문을 거쳐 북문에 이르는 성벽의 석재들이 제거되어 헐리게 되었다.

1913년부터 1923년까지 시행된 제2기 시구개정사업기에는 제1기에 만들어진 간선 이외의 여러 지선을 개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서문에서 북문,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구간, 남문에서 경기전에 이르는 구간 등이 정비되었다.

먼저 전우편국(다가동우체국) 앞에서 전 동아연초회사(고사정 34) 앞을 지나 북문에 이르는 노선과 서문 밖에서 남문에 이르는 노선 중 아직 개수되지 않고 남은 곳에 대한 공사를 1913년 9월 4일 시작하여 1914년 1월 13일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에 서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519간의 도로 면에 자갈을 깔았다.

전주학교조합에서 후일 풍남소학교가 되는 교사를 신축하자, 통학로를 개수하고 일반의 교통의 편리를 꾀하기 위하여 남문에서 경기전 뒤편에 이르는 연장 90간, 폭 4간의 도로를 1914년 1월 21일에 기공하여 같은 해 3월 28일 준공하였다. 이와 함께 3월 13일부터 28일에 걸쳐 위 도로의 양쪽에 하수를 위한 폭 2척, 높이 1척, 길이 90간의 석축을 쌓았다. 1917년 3월 31일에 대정정과 전주정차장(경편역)까지 연락을 위한 고사정 거리의 개수를 착수하여 같은 해 8월 28일에 폭 4간, 총 연장 260간의 도로와 그 외의 암거 8개소를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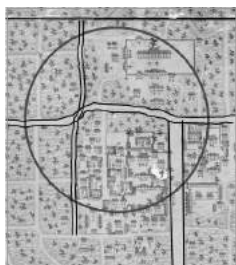
1924년 이후 시행된 제3기 시구개정기의 도로개수사업은 시가지정리사업과 관련한 기왕에 개설된 도로의 하수도 설치와 포장 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일부 도로개설사업도 이루어졌는데, 1935년에는 이전된 전주역 앞에서 대화정으로 이어지는 368m 구간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193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중앙간선도로의 개설은 1938년 역 앞에서 부청 옆을 지나 대화정 30번지(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일부 구간만이 신설되었으나 중일전쟁 등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 도로는 해방 후 십이간도로(팔달로)로 확장되게 된다.

이후에는 구 도청 서편을 지나 옛 부성이 남서쪽 우각을 지나 완산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남북가로(현 매곡로)가 개설되었다. 1937년 전주 지적도를 보면 이 구간의 도로계획선이 나타나 있는데, 정확한 개설 시기는 알 수 없다. 매곡교가 1938년 건설된 것으로 보면 이 도로의 상당 구간이 개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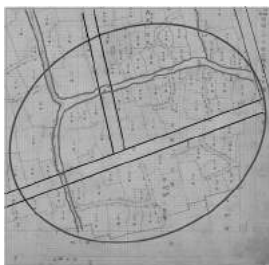
일제시대의 가로망 개설은 제1기, 제2기 시구개정사업과 관련하여 일단락되어진다. 제3기의 시구개정사업은 몇 구간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1~2기 사이에 개설된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대체로 조선 후기 부성 내의 협소하고 굴곡이 많았던 기존 도로를 개수하여 연장하고, 노폭을 확장하고 포장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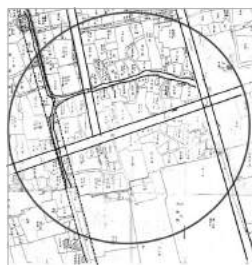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부성 내 길의 변천 모습은 중앙동 우체국으로부터 서문에 이르는 동서가로와 구 도청사 서편을 지나는 남북 가로망의 개설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지도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전주 지적도를 비교해 보면 이 도로가 건설되면서 변화된 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지도



1912년 지적원도



1937년 지적도

먼저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남문에서 객사 앞까지 이르는 남북 직선가와는 달리 동문에서 서문으로 연결되는 동서가로는 폭이 좁고 굴곡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객사의 서편으로부터 감영의 서편을 지나는 남북가로는 앞의 동서가로와 어긋나게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시구개정기 십자로 개설이 끝난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912년 지적원도에 남문에서 객사 앞까지의 남북간선가로는 객사 옆으로 서 북문까지 개설된 길이 보이며, 그 교차 지점(중앙동 우체국 사거리)을 지나는 동서가로가 직선으로 개설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래의 동서가로의 굴곡진 부분이 그대로 소로로 남게 되었다. 이 길이

바로 전주안과 골목길이다.

그런데 1937년 지적도를 보면 감영 서쪽을 지나는 도로계획선이 나타나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 구 도청 민원실 옆을 지나 매곡교로 이어지는 매곡로가 된다. 그런데 매곡로의 계획선 안에 동서가로를 어긋지게 교차하는 남북 양측의 남북가로는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조선 후기의 전주부성의 가로 폭이 대단히 좁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전라선 철도 건설과 길의 변천

일제강점기에 전주의 길이 변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전라선 철도의 개통이었다. 근대 혁신적 교통수단의 하나인 철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됨으로 비롯되었다. 그 뒤 한국 철도는 험난했던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큰 몫을 하여 왔다. 특히, 일제의 지배 하에서 부설된 경부선을 비롯한 호남선 등 각종 철도는 전시에는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 평시에는 쌀과 면화 등을 수탈하여 반출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주에 철도역이 설치된 것은 1914년 전북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이리(익산)~전주 구간 경편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이다. 원래 호남선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부터 부설을 추진하여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이 공학박사인 시라이시 나오야에게 촉탁하여 실지 답사를 촉탁하여 그 해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1908년 5월에 완료하고, 경부선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하여 공주에서 금강을 건너 논산으로 나온 뒤 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나, 금강 가교 문제, 공사비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합방 이후 본격적으

로 추진하여 1911년 3월에 목포에 건설사무소를 두고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착공 이후 3년 4개월 뒤인 1911년 전선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호남선은 호남 지방을 종단하는 철도이지만, 지방 정치 교통의 중심지인 전주와 광주를 모두 피해서 부설되었다. 특히 전주는 철도 부설을 위한 측량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호남선의 노선에서 제외되었다. 호남철도 부설이 본격화되면서 호남선의 통과 지역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가 계속되었다. 목포에서 출발 전주를 통과시키려는 기성회가 발족되어 유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주 유림들과 유지는 반대하였다. 풍수상 전주의 지맥을 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1912년 봄에 처음으로 사립 호남철도기성회장 서오순이 서울에서 내려와 노선의 전주 통과 달성을 위하여 지방 유지들이 힘써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전라북도장관이었던 이두황은 시내 유력자들을 모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권유하고, 주식 조직에도 가입을 종용했지만, 박기순을 비롯한 수많은 유력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두황이 분연히 탁자를 두드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주는 결국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호남선은 전주를 제외한 노선으로 결정되어 1914년에 완전히 개통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선 부설 과정에서 통과 노선을 두고 재벌 농장 간의 경쟁과 암투가 전개되었다. 동산농장의 이와자키 재벌은 삼례 통과를, 군산의 오쿠라 재벌은 지경의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양자가 주장하는 지역의 중간인 이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호남선 철도 부설 이후 전주에서도 철도 유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전주 경편철도 기성회가 만들어져 회장에 박기순, 부회장 유두환, 면장

김성규를 총무로 하여 전주면에 설치되었다. 마침내 1912년 전주 이리 간을 운행하는 경철이 계획되어 1913년 1월 9일 전주철도주식회사가 창립되고, 1914년 5월에 이리 전주 간 협궤철도 부설공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상생정 22번지의 1에 역사를 신축하고 같은 해 11월 17에 임시 영업을 시작하고, 1915년 10월 16일에 전 선을 준공하여 본 영업을 개시하였다,

전주 익산 간 철도 부설 과정에서도 재벌들의 농장을 연결하는 식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인 미쓰비시 재벌 총수인 이와자키의 호를 탄 동산 농장이 있었던 동산촌, 금융 재벌이자 친일파인 박기순의 농장과 대주 주인 백인기 농장이 있던 삼례, 호소가와 농장이 있던 대장촌 등에 역이 설치되었다.

전주 익산 간 경편철도의 전주역은 상생정 22-1번(구 전매청, 현재평동 SK뷰 아파트)에 설치되었다. 역이 설치됨에 따라 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고사로 등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 뒤,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매수하여 경전북부선이라고 개칭하고,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930년 1월까지 광궤 개축공사를 하였다. 1929년 9월부터 광궤선 25.3km 구간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경전선은 영호남 곡창지대와 부산 및 여수를 연결하여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반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경전선건설사업은 몇 단계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1929년 4월 18일 전주-남원 간의 건설 공사가 시작되어 1931년 10월 1일 완료되어 경전북부선 전주 남원 간 영업 개시가 이루어졌다. 그 뒤, 1933년 남원-곡성 간이 개통되었고, 1936년 곡성-순천 간의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당시의 광주선 구간과 연결되고, 전 구간이 개통되어 명칭도 전라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역은 1929년 지금의 시청 자리로 이전하였고, 역 이전 이후에도 역전 지역이 활성화하지 못하자 1935

년에 역전 지역을 도심과 연결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역에서 북문(역전오거리)에 이르는 폭 22m, 연장 368m의 역전로를 개설하였다.

3) 신작로의 개설에 따른 전주 주변 옛길의 변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는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 정부를 밀어붙여 전국에 신작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내부 치도국에서 1907년 5월부터 전군도로의 개수공사를 시작하여 1908년 전국의 신작로 중 가장 먼저 완공되었다. 전군 신작로는 금암삼거리에서 용산다리를 지나 동산촌으로 이어졌는데, 1960년대 후반 팔복동에 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확장되었고, 1978년 전군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번영로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적으로 도로 정비 계획을 세워 신작로 개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각 도에서도 관내의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도로와 교량을 개수하고 정비하였다. 그 결과 전주를 지나는 여러 노선의 신작로가 만들어지면서 전주 주변의 옛길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먼저, 목포에서 정읍을 거쳐 전주를 통과하여 여산을 지나 서울로 올라가는 경성 목포가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옛날의 노선에서 벗어나 동산촌에서 전주-군산 간 신작로에서 갈라져 한해를 건너 삼례에서 여산을 지나 북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쑥고개를 거쳐 금구 태인을 지나 정읍으로 이어지는 신작로RK 만들어졌으며, 금구에서 정주를 거쳐 고부를 지나 줄포로 이어지는 전주-줄포 간 도로도 개설되었다.

또한 남원을 거쳐 여수로 내려가는 신작로도 만들어졌다. 전주 남문

에서 전주천을 넘어 교대 앞을 지나 좁은목을 돌아서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슬티재를 넘어가는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 남원 신작로는 좁은목에서 신리까지는 전주천 서편으로 선형이 바뀌어졌다.

동쪽으로 진안을 나간 다음 안천을 거쳐 영동으로 이르는 길과 역시 장계를 거쳐 육십령을 넘어 진주로 가는 신작로도 개설되었다. 이 길은 전주부에서 진안삼거리와 성남당을 거쳐 안덕원에 이른 다음 소리 개재를 넘어서 소양으로 나가 곰티재를 넘어 진안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구이 갈담 순창으로 이어지는 전주-순창선, 고산을 거쳐 대둔산을 넘어 진산 대전으로 연결되는 전주-대전선, 고산에서 갈라져 운주를 거쳐 연산으로 이어지는 전주-연산선, 전주에서 이서를 거쳐 김제 부안으로 나가는 전주-부안선, 전주로부터 경목선을 따라 삼례로 나간 다음 여산에서 강경으로 나가는 전주-강경선의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도로의 등급은 처음에는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군산선과 전주에 경성 목포로 이어지는 도로가 1등 도로였고, 여수, 줄포, 영동, 진주로 나가는 신작로가 2등 도로였다. 그리고 순창, 대전, 부안, 연산, 강선으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3등 도로였다. 이러한 구분은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국도, 지방도, 부도 등으로 변경되었다.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옛날의 길들은 신작로에의 부지에 편입되기도 하였고, 골목길이나 고삿길로 남아서 여전히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구간은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남겨진 옛길은 다시 해방 후 농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 신도시 개발 등으로 사라져 갔다. 현재 전주 지역에는 도심의 일부 골목길과 외곽의 고갯길 등에서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곳이 있다.

3. 해방 후 간선도로 개설과 길의 변천

1) 전주 도심 간선도로의 확충

일제강점기에 정비된 전주의 도로는 해방 후 상당 기간 그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1963년과 1980년에 개최된 두 차례의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도시 발전에 따라 상당히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특히 1980년 이후 도심 구간에서는 시가지 정비,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수차에 걸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공장 부지 조성 등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많은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전주부성의 가로망을 근간로 형성된 일제강점기 전주의 도로 체계는 해방 후 상당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하여 전주의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주 도심을 남북으로 지나는 중심가로인 팔달로가 개설되었다.

팔달로는 금암광장에서 기린대로와 갈라져 완산구 서학광장에서 장승배기로와 합류하는 구간까지의 도로이지만, 일제시대 후반에 일부 구간이 개설되었다. 원래 도로 개설 계획은 1930년대 수립된 것이지만, 일제 말기에 일부 구간만이 개설되고 완공이 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역전에서 옛 중앙국민학교 앞까지의 구간을 노폭 약 25m 너비로 개통한 중앙 간선도로가 팔달로의 개설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는 일본식 척관법에 의한 단위 체계에 의하여 십이칸도로라고 불렸다.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설이 추진되어 그해 9월 금암삼거리에서 북문오거리까지, 그리고

중앙국교 앞에서 전주천변까지의 구간을 추가 개통하였으며, 1967년 10월 19일 공모를 통해 팔달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은 조선시대 전라감영 문루의 이름이었던 팔달루에서 따왔다고 한다.

1963년 팔달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전주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로는 단 1개도 없었으며, 이 도로가 열리고 나서부터야 비로소 전주 시내가 현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팔달로는 금암광장부터 시작하여 진북동, 중앙시장, 구 전주역 및 구 시청과 구 도청 앞을 거쳐 전주교까지 이르는 길로, 개통 이후 기린로가 개설되는 1980년대까지 덕진동, 금암동 일대의 덕진구 부도심과 전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하였다. 현재에도 객사길, 영화의 거리 등의 주요 시내 상권, 각종 은행 지점과 예술회관 등의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남부시장이 팔달로 변에 자리해 있으며, 전주 한옥마을 또한 팔달로에 연결되고 있다.

19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주시에서는 또 대대적으로 가로를 개설하고 확충하였는데, 이때 무려 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로, 진북로, 백제로 등 3개 노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남천로, 남북로 등 2개 도로를 개설하였다.

동서관통도로는 다가교에서 병무청 간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283로 전주의 동서간선가로에 해당한다. 이 노선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5월 9일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1966년 2월 10일 폭 25m로 수정 고시된 계획도로였다. 기존의 도심부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집단 반발 우려 등으로 오랜 기간 개설되지 못하여 백지화가 예상되었으나, 도심 교통의 체증 현상 해소, 동서 균형 발전, 건축 밀집지역에 대한 재난 방지를 명분으로 전국체전을 계기로 개설을 단행하여 그해 9월 20일 개통하였

다. 이 도로는 충경로로 명명되었으며, 도로변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전주의 동서 중심 간선가로로 전주시의 동맥 구실을 하고 있다.

진북로는 구 서중 로타리(현 한국은행)에서 천변까지 이르는 폭 25m, 연장 348m에 이르는 짧은 도로이지만, 고산선과 태평로 및 남천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팔달로 일변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동서관통로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이다. 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고산에서 구 MBC까지의 구간을 우선 포장하였다. 도로 편입 부지가 대부분 전라북도 교육청, 서중, 중앙여중, 전주공고 등 공공기관의 부지여서 큰 어려움이 없이 개설에 추진되었다. 그 뒤 서전주 개발에 따라 진북터널을 거쳐 서부 신시가지로 연결되었다.

남천로는 법원 앞에서 진덕교까지 연장 1,337m, 폭 25m의 전주천을 안고 있는 도로로 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개설되었다. 전국체전 기간 외부 차량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전주 도심으로 들어오는 서울 방면의 차량을 구 덕진역 앞에서 법원 앞을 경유하여 남천로로 운행하게 하여 팔달로의 교통량 폭주를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이 도로는 팔달로와 함께 남북 축의 2대 간선도로로서 그리고 도심 우회도로로서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북로는 서노송동사무소에서 실내체육관까지 2,250m 폭 15m로 198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팔달로와 남천로만으로 체전 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개설을 추진하였다. 당초에는 서노에서 구 KBS 방송국까지만 개설하고 포장사업은 체전 이후로 미를 계획이었으나, 도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설 구간은 포장까지 실시하였다.

2) 전라선 철도 이설과 백제로·기린로의 개설

전주 도심을 지나던 전라선 철도의 이설과 전주역 이전은 전주 도시 발전과 길의 변동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해방 후 전주시의 영역 확장에 의해서 전라선 철도가 시의 도심지를 관통하는 결과가 되어 전라선 철도의 이설과 전주역 이전은 전주 시민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 마침내 1978년 전라선 이설 공사가 착공되어 1981년 5월 동산역에서 전주시 북편으로부터 동쪽 외곽으로 우회하여 상관 신리역에 이르는 총연장 17.4km의 우회 철도가 준공되었다.

백제로는 전라선 이설에 따라 이전된 신전주역에서 팔달로에 이르는 폭 50m의 광로로 금암동으로부터 6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7지구 택지조성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다. 그 뒤 팔달로에서 서신동을 거쳐 화산동 일대를 지나 꽃발정이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전주의 대동맥이 되었다. 그동안 전주의 발전 양상이 남북을 축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도로 개설로 동전주 및 서전주 지역으로 원형 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라선이 이설된 도심의 폐선 부지 중에 전주역사 자리에는 전주시청이 이전하고, 금암광장에서 구 전주역인 시청사 뒤편을 거쳐 한백루까지 이르는 폭 40m 광로가 개설되었다. 이 도로는 금암광장에서 팔복동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형성하여 기린로가 되었다.

철도의 이설과 더불어 동부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어 동산촌에서 송천역 앞, 전주역 광장 앞, 아중역 앞을 지나 색장리로 넘어가 전주-남원 간 도로와 합류하는 동부우회도로가 건설되었다.

3) 전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길의 변천

도심부의 외곽 지역은 기존 도로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 확장에 따라

토지 구획이 변화되고 새로운 길이 개설됨으로써 사업 지구 안에 있던 옛길의 형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도시공간과 가로망이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택지 정리 및 조성 사업도 전주의 도시공간과 길의 변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 전주시에서 실시된 주요 도시개발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	면적(km)
제1지구	1962.01 ~1964.12	진북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31
제2지구	1965.11 ~1966.07	진북, 태평동 일부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251
제3지구	1968.07 ~1971.12	진북동 일원 구비행장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157
제4지구	1968.07 ~1971.11	금암, 덕진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57
제6지구	1977.08 ~1983.11	금암, 인후, 우아동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	1,205
안골지구	1986.08 ~1990.01	인후동1가, 우아3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80
화산 1지구	1990.04 ~1996.11	중화산동1가, 효자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31
화산 2지구	1993.05 ~1996.06	중화산동2가, 서신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36
안행지구	1993.08 ~1997.07	서완산동, 효자동, 삼천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5
평화지구	1994.12 ~1998.01	평화동 1, 2가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13
아중지구	1993.10 ~1999.06	인후동, 우아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43
송천지구	2001.07 ~2005.12	송천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2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	면적(km)
서부 신시가지	1999~2008	효자동 일원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2,536
혁신도시 (전주)	2007~2012	장동, 만성동, 중동, 상림동 일원 혁신도시조성 사업	3,746
에코시티	2006.03~	호성, 송천, 전미동 35사단 이전 도시개발사업	1,990
만성지구	2008.12~	만성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1,434
효천지구	2005.12~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 도시개발사업	672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택지 정리 및 조성 사업에 따라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토지 구획이 재설정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간구조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결과 각 사업 지구 안에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옛 마을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마을과 마을을 지나 주변으로 연결되었던 옛날의 길들도 없어지게 되었다.

4) 전주 도심 옛길의 잔형

이와 같이 현재 전주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해방 이후 1980년대 까지 전주의 시가지의 도로의 개수 개설이 추진되어 팔달로, 동서관통로, 기린로 등이 개설되면서 완성되었다. 동서관통로와 기린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만들어진 가로망을 확장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전주 구도심 대부분의 격자형 간선도로는 조선 후기의 부성 내의 가로와 일정 구간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확장과 더불어 건물의 개축과 신축 등 계속되는 시가지 정비사업에 의하여 전주부성 내의 옛길은 그 원형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하지만 현재에도 도로로 정비되

지 않은 민가 지역에 존재했던 소로나 사잇길이 남아 있는 곳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전주 도심에서 옛길의 형태가 남아 있는 곳을 지도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부성 옛길의 잔형

예컨대 지도에서 보는 감영의 남쪽 민가 지역에 있었던 조선 후기의 곡선형 갈림길의 자리는 오늘날 남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감영 서쪽 길이 민가 지역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제 때 남쪽 성벽 자리까지 연결되고 매곡교를 거쳐 완산칠봉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전주초등학교로부터 구전매서 서쪽, 그리고 구 남부배차장 자리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선도로가 곡선을 그리며 남문 서쪽의 성벽으로 향하면서 중간에 전라감영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 갈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남문시장길의 중간에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완산경찰서 뒤편 고사동 파출소 옆의 골목으로 나오고,

또 한쪽 길은 반야돌솔밥집 남쪽 명산약국 옆으로 나와 남북도로와 만나는데, 여기에서 다시 골목길로 들어가 구 남부배차장 자리로 이어진다.

옛길의 흔적은 중앙동 우체국 부근에서도 찾아진다. 우체국 앞에서 성미당 앞을 지나는 골목길이나, 구 전신전화국 뒷골목도 조선시대 도로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객사 뒤 한일관 골목이나 한성 여관 부근의 복잡한 골목길도 조선 후기 전주 부성의 옛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참고문헌

- 『해동지도(전주)』(규장각 소장)
『비변사인방안지도(전주)』(규장각 소장)
『여지도(전주)』(규장각 소장)
『지승(전주)』(규장각 소장)
『광여도(전주)』(규장각 소장)
『전주지도』(규장각소장)
『전주지적원도(1912)』, 국가기록원
『전주지적도(1937)』, 전주시
『전주지도』(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주지도』(규장각 소장 1872년지도)
『전주지도』(국립전주박물관 소장 10곡병풍도)
『완산지』
『전주부사』, 전주부, 1943.
『전주·완주지역 문화재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1979.
『전주시사』, 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86.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2007.
『전주주의 땅과 인간』, 전주역사박물관, 2009.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조법종, 「전주를 그린 고지도의 종류와 특성」,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2004.
하태규, 「전주의 옛길」, 『전주주의 땅과 인간』, 전주역사박물관, 2009.

전주 영화 이야기

신 귀 백 | 영화평론가

1. 프롤로그, 한국 영화사 훑어보기
 2. 극장 전주
3. 전주충무로, 감독과 배우
 4. 전주의 영화산업
 5. 촬영 공간 전주
6. 에필로그, 전주에서 산다는 것

1. 프롤로그, 한국 영화사 훑어보기

1) 변사시대

개화 초기 극장은 구미 각국의 멋진 풍경들을 갖추고서 행인들에게 2전씩 돈을 주며 영화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나 인기가 치솟자 담배 회사의 빈 담뱃갑 하나씩을 입장료로 받았으며, 이후에는 열 갑 스무 갑씩을 받게 되었다. 결국 조선의 영화 전래는 서구 열강 제국의 침투 과정의 일환이었다.

동대문 내 전기회사 기계장에서 시술하는 활동사진은 일요 및 음우를 제하는 외는 매일 하오 여덟시부터 열시까지...(1903.6.23일자 황성신문 광고문)

문예지 『창조』가 활동할 즈음 만들어진 작품으로 「의리적 구토」(1919)도 있지만 「월하의 맹서(윤백남, 1923)」가 있다. 퇴폐적이고 유치한 통속소설을 윤색한 “대동강변 산보하는 남녀...”로 시작하는 「장한몽(1926)」 같은 영화가 주로 흥행했다. 나운규의 사실주의 영화 「아리랑(1926)」은 기존의 영화가 모방과 신파물을 벗어나지 못할 때, 농촌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사실주의 영화 형식의 창조와 일제에 억눌린 민족의 심리를 대변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를 통한 조선인의 인식 변혁, 거기다 몽타주나 사실주의 영상 감각의 미학적 수준은 연극 무대로부터 영화 예술을 탈피시켰다. 홍개명의 「혈마(1928)」는 상영 금지된 최초의 작품이다.

변사의 능력이 영화의 흥행을 좌우했다. 신파조의 목 선 목소리로 소설체의 대사를 읊었던 변사는 영화 해설을 넘어 효과음까지 부여하

며 영상의 기능을 좌지우지하였다.

2) 토키시대

1935년 「춘향전」은 배우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대문을 여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 등도 들려 주는 ‘영화’가 되었다. 이 영화의 입장료가 당시까지의 입장료의 두 배인 1원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발성 영화 자체가 당시 관객들에게 얼마나 매혹적인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3) 공백기와 말살기

일본은 1937년 「만주영화법」을 제정하고 1939년에는 일본 문부성에 영화과를 신설한 후, ‘일본영화령’을 제정하고, 1940년에는 ‘조선영화령’을 공포하기 1년 전부터 내선일체와 식민지 침략전쟁에 비협조인 영화인들을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군국어용영화 「군용열차(1938)」 등이 시기의 작품 경향은 일제하의 조선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에 협력할 것을 선동, 교화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최인규의 「가미가제의 아들들(1945)」, 안석영의 「지원병(1940)」, 신경균의 「우리들의 전쟁(1945)」, 「감격의 일기(1945)」 등 제목만 들어도 친일 냄새가 풍기는 작품들이다. 반면에 전창근의 「복리만리(1941)」, 윤봉춘의 「신개지(1942)」는 일제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족의 계몽영화를 고집하였다.

4) 한국 영화 부활기

6.25 전쟁은 전시 기록영화들을 양산했다. 당시 영화 기자재 자체가 공보의 차원에서 관리되었기에,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라는 적의 창

출을 통해 분단정권이라는 부담을 안은 정권의 행렬은 반공영화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했다. 이후 1963년까지의 한국 영화는 중흥기를 맞는다. 이규환의 「춘향전(1955)」과 한형모의 「자유부인(1956)」의 흥행 성공은 상반된 지점에 있었다.

2. 극장 전주

1) 제국관 그리고 전주극장 시절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첫 영화를 상영한 후, 30년 만인 1925년 전주에 극장이 들어선다. 제국관! 싸가지 없는 이름답게 일본 사람에 의해 건립된 극장은 다다미방으로 돼 있어서 관객들은 겨울에는 화로 나 방석을 둔 주고 빌렸다. 돈 없는 사람은 떨어졌을 것이다. 제국관은 영화 말고도 여러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해방 후 모든 부동산이 국유화되면서 제국관은 전라북도가 위탁 경영하게 되면서 ‘전주극장’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연세 드신 분들은 ‘후생극장’ 혹은 ‘도립극장’이라고도 불렀다. 주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지만 ‘이수일과 심순애’, ‘임춘행과 그 일행’ 등 서울에서 오는 악극단의 공연이 진행된 말 그대로 종합극장이었다.

옛날 전주 제국관이 들어선 공간에 전주극장이 대를 이었고, 지금도 메가박스과 CGV, 전주시네마타운과 디지털독립영화관이 자리한 이곳에 옛날에는 다방이 있었다. 왕궁다방과 우인다방에서 김진규와 허장강, 도금봉은 다음 영화 캐스팅을 기다렸다. 이강천 감독은 「피아골」의 각본을 김진규에서 설명한다. 미군 딘 소장의 이야기를 다룬 「아리랑」과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도 이곳 전주에서 나왔기에 전주는

50년대 충무로였다.

1950년대 전주가 한국 영화산업을 이끌던 시절이 있었다. 경찰의 선전영화 제작 방향과 백도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의 열정 그리고 전주에 머물던 서울의 영화배우들이 비빔밥처럼 뭉쳐진 기저에는 미문화원의 영화 상영 기능이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북 영화와 전북 영화인은 한국 영화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그 활동무대가 서울로 이동되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 미 문화원과 공보관

전주에 미 문화원(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이 있었다. 1947년 6월 미군정 산하에 생긴 이 기관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미국문화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 전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문을 열었다.

지금의 가족회관 자리에 등지를 튼 미 문화원은 조악한 형태의 미군의 콘센트(반원)형 조립 막사였다. 그래도 도서관, 영화관, 전시실 등을 마련하고 전주 시민들에게 반가운 세상 소식을 전했다. 사실 미군정의 효율적 홍보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공보원의 계몽 선전영화 상영은 새소식에 대한 욕구나 적당한 오락의 수단이 되었다.

미 문화원은 자국에서 직수입된 영화를 무료 상영했기에 우체국 앞은 주말이면 성시를 이루었다. 문화영화는 한글 자막이나 한국말 더빙이 안 된 원판이라서 그림만 감상하는 무성영화에 가까웠지만 시민들로 넘쳐났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인에게 이른바 ‘미국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알리는 미군정의 의도가 달성되었다고 믿어서 그랬을까? 1954년

7월 14일 전주 미 문화원의 폐쇄는 전주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미 문화원이 폐쇄된 이후 전라북도는 전시실과 영화관, 그리고 호텔 기능을 갖춘 도공보관을 건립해 문화공간의 역할을 대신했다. 시민들은 이 4층짜리 건물을 공보관 건물이라 했고 다목적 공연장이 있었다. 당시 공보관 1, 2층은 전주의 유일한 풍남백화점이 자리했고 3, 4층은 영화관 혹은 전시실이 있었다. 영화는 주로 외화를 상영했는데, ‘대한니우스’마저도 인기였다. 미원탑 앞에 있는 백도극장에 비해싼 관람료에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비 내리는 필름은 자주 끊겼다. 관객들이 휘파람을 불면 사과방송 뒤 다시 영화가 이어졌다.

3) 백도극장에서 오스카극장으로

1951년 늦가을 도청 마당에서 야외영화 「애정산맥」을 보던 중 무기고의 로케트탄이 터지면서 도청 건물이 송두리째 날아간다. 전봉준 장군이 집강소를 열었던 선화당도 그때 무너졌다.

김영창은 제국관에서 잔뼈가 굵었고 해방 이후 전주극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서른 살 나이에 백도극장을 설립한다. 1954년 김영창은 모험을 시작한다.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당시 신인이던 허장강 주연에 백도극장의 선전부장으로 일하던 이강천 감독과 함께 도원결의한 영화 「아리랑」은 전주영화 성공의 신호탄이었다.

1957년 1,000석 규모 중앙극장이 지금의 성원오피스텔 자리에 개관하고 전설의 백도극장은 1959년에 폐업하여 오스카극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오스카 극장에서는 박초월을 필두로 국악인들이 많은 공연을 했다.

해방 이후, 전북영화를 한국 영화의 중심으로 이끈 영화는 이강천

감독의 「아리랑」과 「피아골」일 것이다. 물론 작품의 예술성을 따지기 전에 한국전쟁 직후 영화 제작하기 힘든 국내 상황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 그 희소성이라는 원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아골」은 반공영화 논란 속에서 많은 예술가와 영화인의 창작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영화전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극장이 영화만 보는 곳이겠는가. 단체 관람의 기억부터 연인의 손을 잡고 키스를 나누던 은밀한 추억과 함께 울고 웃기도 하던 곳이었다. 또한 그때 극장가는 건달들의 무대였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는 ‘학주’의 감시망과 변장을 한 학생들의 첩보전이었다. 영화 상영 전 애국가 연주와 ‘리버티 뉴스’나 ‘대한 뉴스’도 지금 생각하면 귀여운 장면이었다. 개봉관은 비쌌다. 실업자나 말썽장이 고삐리들은 한 편 요금 값에 싸구려 영화 두 편을 볼 수 있는 극장에 가서 하루를 때웠다. 영사 기사는 개봉관에서 사용됐던 필름 옆 구멍에 난 흠집을 손보고 필름을 자르고 붙이며 간신히 때우던 시절이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최신 시설을 갖춘 삼남극장과 코리아극장이 오픈해서 영화팬을 싹쓸이한다. 나중에 생겼던 태평극장을 포함해서 시민극장과 제일극장은 재개봉관이었다. ‘빈대극장에 ‘썸코’ 뚫어 ‘뚜룩’ 영화를 보았다.’는 당시 꼴통 학생들이 자주 쓰는 은어였다. ‘빈대극장’이라고 불렸던 제일극장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한 편 값으로 외팔이 검객 왕우와 노란 츠리닝의 이소룡 등 홍콩 영화를 두 편이나 보여 주기에 극장 안은 항상 만원이었다.

4) 멀티플렉스 시대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전주 극장들의 이합집산과 M & A시대가 열린다. 2000년 첫 영화제의 개막작은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이라는 흑백영화로 지금은 저 하늘의 별이 된 군산 출신 이은주가 주연을 맡았다. 지금은 사라진 명화극장에서는 프레데릭 백의 「위대한 강」 등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5월 1일 씨네21 극장 2관에서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남국재견」이 상영되었다.

소소한 꽃밭의 극장들은 국제영화제를 전후로 통폐합되는 비운을 맞는데, 국도극장은 ‘씨네21’을 거쳐 ‘프리머스 시네마’로 바뀌었지만 전주 극장 대접 혈투에서 끝내 문을 닫는다. ‘아카데미 아트홀’은 김아중이 주연한 「미녀는 괴로워」를 끝으로 간판을 내린다. 80·90년대를 호사하던 ‘피카디리’는 ‘CGV전주’로 살아남고, 뉴코리아극장은 명화극장을 인수한 후, 7개관의 ‘전주시네마타운’으로 정비된다. 여기 대한극장을 인수한 메가박스가 3관을 형성한 전주의 극장가는 ‘필름 느와르’ 전쟁 중이다.

3. 전주충무로, 감독과 배우

1) 50년대 이강천과 김영창 그리고 탁광!

전주 영화관의 기초를 세운 이강천(李康天)은 동경미술학교 출신이다. 감독, 미술, 배우, 편집, 시나리오작가 등 전천후 영화인으로 그는 이만홍 감독의 「끊어진 항로」(1948)의 미술 담당이자 배우로 출연하면서 영화관에 뛰어든다. 1954년에 제작된 「아리랑」으로 이강천은 흥행 감독으로 성공하는데, 공산 치하에 미군을 숨겨 준 영진 일가의 고난을 그린 이 영화는 허장강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당시 영화를 제작하는데 전주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오픈 세트였는데 전주 시내를 중심으로 오목대며 경기전, 덕진공원, 사찰을 비롯한 모든 풍광들이 사극이나 현대물을 막론하고 좋은 배경이 되었거든요.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제작비였고 그 대부분이 제작진들의 숙식비가 차지했어요. 전주는 음식 전통이 깊은 곳 아닙니까? 값도 싸니 보통 다른 곳에서 제작하는 예산보다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탁광 증언)

1955년에 제작된 「피아골」은 이강천의 대표작 아니 전북영화사(史)의 가장 대표되는 브랜드일 것이다. 김진규, 노경희, 이예춘, 허장강 등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스타들이 총출동한 이 영화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휴머니즘 스타일로 그린 작품이다. 겨울 혹한의 지리산에서 목숨을 건 전투처럼 치러진 「피아골」 촬영 일지에는 필름이 부족해서 울면서 찍은 일화가 전설로 남아 있다.

중간중간 끊겨져 있는 한국 영화사를 이을 고리가 전주에 숨겨져 있습니다. 「피아골」과 「아리랑」을 만든 이강천 감독 등이 이미 이곳에서 우주·청룡영화사를 중심으로 제2의 충무로를 형성했었죠.(시나리오작가 송길한)

감독과 배우가 영화의 명예를 가져간다면, 제작자는 그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50년대 전주 영화판을 키운 영화 제작자 김영창이란 이름을 어찌 잊을 것인가? 최성관 감독의 「선화공주」는 1957년 한국 영화에서 최초로 시도된 총천연색 16mm 영화로 서울에서 청룡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던 김영창이 제작한 영화다. 전문 영화배우들 보다는 영화에 경험이 없는 연극인들이나 국악인들이 출연한 것으로도 주목을 모았는데, 당시 쇼무대에서 코미디를 했던 김근자·김희자 자매, 국악인 박귀희와 김희갑이 출연했다.

2005년 1월, 파리 사이오궁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개최된 ‘한국 영화 50년 회고전’에서는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이 상영되었다. 한편, 전북 독립영화협회를 이끈 전병원은 2009년 「피아골에 다시 서다」라는 장편 다큐멘터리에서 이강천 감독의 영화 장면을 따라나서는 오마주를 완성하였다.

탁광(卓光, 본명 탁형연)은 극장 지배인을 거쳐 영화 제작에까지 손을 댔던 전주 지역 영화사의 산증인이다. 5, 60년대 한국 영화의 위상 속 전주 영화관의 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자료인 『전북영화 이면사(1995)』를 썼다. 이 책에서는 「아리랑」을 비롯한 「애정산맥」, 「선화공주」의 제작기와 흥행 이야기 그리고 영화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소개했다.

2) 시나리오의 교과서, 송길한

「우상의 눈물」 「안개마을」 「깜둥」 「불의 나라」 「아낌없이 주련다」 같이 발효가 잘된 80년대 문제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2년 「명자 아끼고 쏘냐」 각본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과 소련으로 떠도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살폈는데, 흥행에서는 실패했지만 한국 영화사에 남을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임권택 감독의 명작 뒤에는 항상 송길한이 있었다. 각색상을 휩쓴 「짜코」를 쓴 송 작가가 만 4일 동안 잠자지 않고 여관에서 집중적으로 쓴 시나리오 「만다라」를 비롯하여 「티켓」 「씨받이」 「길소뜸」 같은 걸작은 바로 송길한의 펜 끝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2005년에는 『송길한 시나리오 선집』 9권이 발간되었고, 2010년에는 고희의 나이에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올리기」를 각색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3) 전주 출신 감독

(1) 풍자의 칼날, 「넘버3」의 송능한(宋能漢)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의 시나리오를 썼으며, 감독 데뷔작인 블랙코미디 장르의 「넘버3」는 깡패역의 서태주(한석규)와 그의 아내(이미연), 조폭 못지않게 욕 잘하는 검사 마동팔(최민식) 등 호화 멤버가 출연했으나 정작 이름을 알린 이는 엄병하기 이를 데 없는 불사파 두목 송강호였다. 깡패 같은 검사와 삼류 인생의 대비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류라는 것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조소를 날린 「넘버3」는 한국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2) 유하

1993년, 무명인 엄정화 주연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감독으로 데뷔한다. 2001년 엄정화 감우성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재기에 성공한다. 폭압적 시대 속 트라우마를 보여준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는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로 정읍시 칠보면에 자리한 칠보중학교에서 교실과 복도, 옥상, 운동장 신이 촬영되었다.

유하는 2006년 「비열한 거리」의 조직폭력배 세계 한복판으로 들어가 자본주의적 세계의 비뚤어진 욕망을 통째로 끄집어냈다. 유하는 이 시대에 조폭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하고 소비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거리의 비열함에 카메라를 댔다. 유하의 스토리텔링은 조폭을 경멸하는 척하며 뒤로는 조폭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한국 사회 상층부의 먹이사슬에 대한 경멸을 담는 것이다.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자리한 전주CGV에서는 영화 속 영화 「남부건설항쟁사」 시사회의 극장 앞 장면을, 전주시네마타운에서는 영화 속 개봉 장면이 촬영되었다.

고려 말, 왕(주진모)과 왕의 남자 홍립(조인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파격과 걱정의 노래인 「쌍화점」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오픈 첫 작품으로, 400만 관객을 동원했다.

(3) 허진호, 서정성과 사랑의 풍경

모든 이별은 아픈가? 더러는 헤어짐도 부드러울 수 있다. 손쓸 수 없이 다가오는 이별에 부드러움과 투명함을 부여하고, 바깥세상의 폭풍우로부터 떨어져 있는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허진호의 서정성이다. 정지된 화면들이 한 폭의 회화가 되는 서정성과 풍경을 전달하는 허진호는 1998년 데뷔작인 쓸쓸하면서도 차분한 사랑 이야기 「8월의 크리스마스」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봄날은 간다」는 지방 방송국 PD 은수(이영애)와 상우(유지태)는 라면 냄비와 젓가락처럼 부딪히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배용준과 손예진이 주연한 「외출」은 배우자의 사고와 불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남녀에게 찾아온 사랑을 그린다. 위험한 사련(邪戀)으로 인한 극단적 감정의 부딪힘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해와 화해를 보여 주는데, 전작보다 인물에 밀착해 담아낸 허진호의 렌즈는 흔들린다. 황정민 임수정이 열연한 「행복」에서는 이기적인 남자와 순애보를 바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정우성 주연의 「호우시절」은 사랑의 타이밍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작품이다.

(4) 흥행의 타짜, 전주 남자 최동훈

최동훈은 서른한 살의 나이에 2004년 「범죄의 재구성」으로 데뷔한다. 다섯 명의 전문 사기꾼들이 한국은행을 터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최동훈 감독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선보이며

사기극, 범죄스릴러라는 장르를 한국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과 함께 200만 관객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평단의 호응은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각본상에 이어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감독상, 각본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신인감독상 등으로 이어졌다.

이때쯤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몰아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응?(「타짜」에서 백윤식이 조승우에게)

100일이 넘는 도내 촬영 중 전주 동문네거리 콩나물국밥집 2층에서는 “나 E대 나온 여자야”라는 어록을 던진 정 마담의 사무실 신을, 또 옛 북부경찰서에서는 유치장 신을 찍었다.

(5) 「동감」의 김정권,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주제가로도 유명한 영화 「동감」은 김정권의 데뷔작이다. 유지태와 김하늘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에 살고 있는 여자와 2000년에 살고 있는 남자가 우연히 무선통신(HAM)을 통해 연락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의 공백을 낭만적 멜로드라마의 감수성으로 담아냈다. 비평과 흥행에 모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며 김정권은 2000년 춘사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는데, 2008년 강풀 만화 원작으로 차태현이 주연한 김정권 감독의 「바보」는 전주제일고등학교 주변 노송동 골목에서 찍은 영화다.

영화배우 문소리와 결혼으로도 유명한 장준환은 2003년 백윤식 신하균 황정민 주연의 미스터리 SF코미디 「지구를 지켜라!」 연출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다. 병구(신하균)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외계인의 앞잡이이자 유일하게 외계인과 텔레파시 교신을 하는 강만식(백윤식)

사장을 납치 감금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 방식이 가관이다. 탈세를 일삼는 사장님을 이태리타올로 살갓을 벗기고 물파스를 바르는 설정인데,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 블랙코미디이자 사회 비판물인 이 웰메이드 영화는 모스크바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6) 전주 출신 배우들

‘배우란 시대의 축소(縮圖)이고 간결한 연대기(年代記)’라고 말한 셰익스피어의 지적은 정확한 말이다. 소리꾼 혹은 고뇌하는 지식인 역을 한 김명곤의 얼굴에서는 광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인의 풍모가 있다. 목화같이 따뜻한, 간장게장같이 짭조름한, 게으르고 수수한 별 같은 송새벽과 김수미가 군산 사람이란 것이 신기한 일 아닌가. 뿐이라? 선산을 지키는 굵은 나무 혹은 물가에 심어진 근심 없는 나무 같은 임현식과 이문식은 순창이 고향이다. 말안장을 윤이 나게 닦는 푸근한 이미지를 가진 이들에게서 된장과 고추장 맛이 나는 것을 보면, 여기에 필연이 있다고 해야 할까?

하느님이 지으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 두 송이가 저버렸다. 바로 이은주와 장진영. 정원 속 별초당의 등롱 같은, 봄날 도리원의 복숭아 꽃과 배꽃 같은, 희미해진 들판 위에 떠 있던 청신한 별 둘이 스러졌다.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을 담은 이 아름다운 배우 둘은 도시의 아이들같이 하얀 얼굴이지만 따뜻함과 순정이 있는 얼굴이었다.

① 날아가 버린 푸른 제비, 장진영

1974년 6월 장미의 계절에 전주에서 태어난 장진영은 전주중앙여고 당시 화려한 이목구비 덕에 ‘중앙여고 흑장미’로 통했다. 김지운 감독

의 「반칙왕」에서 당차고 선머슴 같은 레슬링 관장의 딸을 중성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소화했다는 평을 받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장진영은 2001년 윤종찬 감독의 「소름」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다. 「싱글즈」를 통해서는 현대 여성 나란 역을 맡아 매력의 단발머리를 유행시킨 장진영은 흥행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예감이었을까? 「국화꽃 향기」에서 장진영은 위암 말기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아 폭넓은 연기 변신을 보여 주었는데, 몇 년 후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2005년 원톱으로 주연한 「청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 역에 도전하였지만, 친일 논란에 휩싸여 흥행에 참패한다.

시원시원하게 큰 눈, 도톰한 입술, 복스러운 귀, 잘 자란 나무같이 반듯한 코, 하얀 이 서내 개를 드러내며 웃는 입, 얼굴선이 둥글둥글해 장진영처럼 복스러움과 도시적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얼굴은 드물 것이다. 비행용 고글을 쓰면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드레스를 입으면 여신이 되고, 바지를 입으면 털털한 아가씨가 되는 장진영. 큰 키가 귀여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 큰 눈과 묘한 균형을 이루는, 왼손을 턱에 대고 은은한 웃음을 보여 주는 그의 이마에 작은 머리카락 한 줄이 흘러내린 마지막 영정사진은 그는 갔지만 우리는 그를 보낼 수 없는 어떤 강한 끌림이 있다.

② 맑고 투명했던, 이은주

대사보다는 눈빛과 표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배우가 이은주다. 우윳빛 피부, 반듯한 이마, 목선을 드러내면 더 예쁜, 손 하나를 올리면 바스트샷이 고요한 떨림을 자아내는 이은주는 2000년 제1회 전주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에서 문성근과 정보석 사이에 낀 여주인공으로 차분한 목소리에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 영화로 제53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어 은막의 여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대중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한다.

다음 해, 「번지점프를 하다」에 이병헌과 함께 연인으로 출연,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배우라는 찬사와 함께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성공을 거둬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

모던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되바라지지 않고 조심스러운 얼굴의 순정적인 여인 이은주는 2005년 2월 22일 스물다섯 한창 나이에 많은 팬들의 가슴에 신비스럽고 서늘한 이미지를 남긴 채 떠났다. 그리운 천상애인 이은주!

③ 아름다운 카리스마, 미단공주 진희경

강제규 감독의 「은행나무 침대」에서 미단 역은 진희경의 출세작이다. 이루지 못한 천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은행나무로 환생한 미단공주 진희경은 고전극에서 신녀의 역할을 할 만한 눈매와 비밀을 감춘 입, 천년의 세월을 순간으로 만드는 시선의 힘 등 압도적 카리스마를 보이는 예쁜 척하지 않는 여배우다. 그 안에 공주가 있고 세련된 도시 여성도 있다.

4. 전주의 영화산업

영화는 관점에 따라 어떤 이는 예술(Firm)이라 하고 한편으로는 물성 깃든 산업(Movie)이라고 말한다. 맞다. 예술에 방점을 둔 전주국제영화제는 분명 그 정체성에 성공하여,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산업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전주영상위원회의 왕성한 활동, 특히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개관과 함께 전국에서 전주를 찾는 영화제작팀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영화 제작이 미미했던 1970~90년대를 거치면서, 전주는 ‘영화전주’에 대한 정통성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이다.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이후 생겨난 새로운 인식은 영화 제작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다시 복원하며, 전북 지역 영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가 된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주류 영화가 아닌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영화를 통해 자리를 잡아 나감으로써, 주류 영화 및 영화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금 전주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1) JIFF

전주국제영화제는 ‘디지털 · 대안 · 독립’이라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콘셉트를 내세우며, 기존의 부산과 부천영화제와 확실한 차별성을 추구하는 모험을 시도했다. 당시 ‘디지털’이란 용어는 필름으로 만드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제작 방식이었다. 특히 창작의 자유와 관련, 기존의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 영화와 대별되는 ‘독립’영화를 지지함으로써, 전주국제영화제는 기존 국내 영화제와 색다른 방향을 추구한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우수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한국 영화

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영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새로운 영화제, 더 나아가 한국 영화에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영화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표방해 온 ‘대안영화’, ‘독립영화’에 대한 지지는 이제 전북영화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은주의 이름을 알린 홍상수 감독의 개막작 「오! 수정」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성공을 기원했다. ‘자유, 독립, 소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비주류 영화제라는 측면으로 출발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작가주의 감독인 허우 샤오시엔, 상탈 애커만,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리트워 가탁, 하룬 파로키, 아르타바즈드 펠레시안 등 전 세계 거장 감독들의 회고전을 마련해 왔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영화를 소개한 마그렙전, 터키와 소비에트 영화와 일본 독립영화 등 서울에서 못 보는 영화를 전주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영화계의 확고한 정체성을 성공시킨 명실공히 국제 영화제로서의 정체성 획득에 성공한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디지털 삼인삼색」 플랜은 이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지원 방식은 매년 세 명의 해외 감독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30분가량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한다. 감독 페드로 코스타, 하룬 파로키, 아피차퐁, 츠카모토, 유진그린, 김지운, 장진, 유승완 등의 감독들이 참여했다.

2) 영화도시의 조연들

(1) 전주영상위

뒷감당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숨어 일하는 곳이다. 주요 업무는 영상물 제작 지원인데, 특히 촬영·제작이 용이하도록 촬영 장소 추천, 허가, 섭외 등 로케이션의 기본적인 사항이 주 업무이다. 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알선, 엑스트라 조달, 카메라를 비롯한 여러 기자재 조달, 경찰청·소방서의 협력 등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전북 지역에서 촬영되는 작품에게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전북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국내 주요한 영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온다. 1,000만 관객을 넘어 신화가 되었던 영화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를 비롯하여, 「웰컴 투 동막골」, 「타짜」, 「국가대표」 등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들이 전북에서 촬영되었다. 이외에도 「광복절특사」, 「말죽거리 잔혹사」, 「너는 내 운명」, 「한반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마더」, 「전우치」, 「부당거래」, 「글러브」 등이 배경으로 촬영·제작되었다.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위 ‘종촬’이라 불리는 이곳은 가변세트의 작동이 용이한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트제작실, 스태프실, 분장실, 미술소품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실내스튜디오는 비 오는 날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수압조절장치와 17m가량의 높은 천장 등의 시설을 갖추으로써 특수효과 촬영에 용이하도록 구축되어 있고 야외촬영장은 배수시설과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영화 제작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개관 첫 작품으로 2008년 유하 감독의 「쌍화점」이 제작되었으며, 이후 「전우치」, 「하모니」, 「부당거래」, 「평양성」 등 국내 대표 작품들이 제작된다. 이에 촬영소는 현재 연 300일이라는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다.

(3)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2008년 영상편집실 및 디지털 색보정실 등 후반 작업에 필요한 시설인 ‘전주영화제작소’를 개관한다. 2년 후에는 사운드 믹싱 및 음향 편집 분야에 집중화된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를 오픈한다. 전주영상위원회의 제작서비스를 통해 촬영을 마친 영화가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를 통해 영화 후반 작업까지 마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주는 명실상부한 영화 제작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에 위치한 전주영화제작소는 편집, 디지털 색보정(DI), 3D입체편집 작업 등 디지털 후반 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저예산 영화를 중심으로 연간 7편 이상 가동되고 있다.

(4) JIFF THEQUE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영화제작소 4층에 위치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지역의 영화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일 국내외 우수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자체 기획프로그램 및 세미나, 포럼, 강연 등의 교육 사업을 통해 영화영상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의 DVD가 구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제를 매년 개최한다. 전국에서 알아준다. 협회는 영화 제작, 상영, 배급 전문을 위한 영상사업단(JIFA CINEMA)을 설립한다. 영화제작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인 ‘웅기종기 마실극장’을 통해 오지 학교, 마을회관, 노인회관, 동네 사랑방, 이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영화 보는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 또한 ‘시네필 전주’를 운영한다. 이들은 「뉴저먼시네마 상영전」, 「더 블루스 상영전」, 「레스페스트 상영회」, 「고전 영화 다시 보기: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장르영화의 거장 전」 등의 기획 상영전을 비롯, 스페인 멕시코 일본 프랑스 영화전을 기획하고 있다.

5. 촬영 공간 전주

1) ‘뚝너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선미촌’이란 귀여운 말이나 ‘뚝너머’라는 거시기한 고유명사는 당연히 암울한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의 전주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 가는 군대나 또는 거기 따른 한두 번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나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전주 이곳 선미촌에서 직접 찍은 송경식 감독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2002)」가 있다.

이 거창한 제목의 영화는 세트 아닌 실제 선미촌에서 찍었다. 프로듀서와 전주영상위원회가 상가 번영회(?)를 설득, 거짓말처럼 통 큰 타협을 이끌어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초로 흥등가의 실제 촬영이 허가된 것이다. 영화 한 편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촬영 공간 주변에 20여 대가

넘는 자동차 주차 그리고 스탭들이 머물 현장사무실, 대기실이 필요하고 연기 공간은 조그만 구석방 하나가 아니라 제법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소 7개를 통째로 빌려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촬영 자체가 사건인 셈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투자 자체가 할리우드 메이저인 컬럼비아 트라이스타와 시네마서비스의 공동투자인 데다 배우들 역시 인지도가 빵빵했다. 홍상수의 『생활의 발견』으로 청룡영화상 여우 주연 후보로 오른 예지원과 잘나가는 아나운서에서 배우로의 전업을 선언한 임성민이 밤의 꽃으로 주연을 맡았고 전주 출신 조연 전문 이문식과 남진이 육쟁이 신부인 베드로 역으로 출연했다.

2) 한옥마을 「클래식」

경기전 대나무 숲 그들은 성심여고생들의 여름날 미술시간 수채화를 그리는 아틀리에였고, 눈 오시는 날이면 수업을 빼먹고 역시 경기전으로 튀어나가 결국 선생님도 함께 눈싸움을 하던 놀이터이기도 했다.

한옥마을 태조로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전도연, 박신양이 주연한 「약속」의 전동성당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드라마 「궁」을 촬영한 경기전이 있다. 아쉬운 것은 「클래식」에서 교문으로 이어지던 담이 헐리고 없다는 것이다. 오래된 붉은 벽돌담이 인상적이었던 이 길은 영화에서 학생 시위대와 진압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손예진과 이기우가 숨는 골목길로 나오지만 이제 영화 속 풍경으로만 남았다. 짧은 날의 엄마 역을 맡은 손예진이 가을 음악회에서 조승우를 떠올리며 간절히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강당도 아쉽게도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던 손예진의 배경이 되던 풍경들, 그리고 정지한 시간들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불어라 봄바람」의 영화 꼬트머리, 어느 날 다방 종업원 김정은이 서점에 들러 같이 작업했던 소설가 김승우의 신간을 보게 되는 바로 이 서점이 성심여고 앞 노란 간판의 ‘장학서점’이다. 그러나 이젠 없다.

드라마 「용의 눈물」을 필두로 많은 사극 영화도 촬영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이병헌, 한효주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거지 왕 하선이 중전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대나무 숲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3) 「사랑해 말순씨」의 노송동

감독들에게 노송동은 자신의 소년 시절을 보낸 추억하는 공간으로 ‘말을 걸어주는 동네’겠지만 정작 이 동네를 지나노라면 가느다란 탄식이 나올 것이다. 어깨를 맞댄 골목길 안쪽에는 빨간색 고무다라이가 놓여 있는 수도간과 빨래가 널리는 마당 그리고 하얀 타일이 붙은 부엌 등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노송동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찾는 소년처럼 힘든 제트자 길을 뚫 정도는 아니다. 미장센을 담아내는 소품으로서의 이 공간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공간이긴 하지만 노송동 사람들은 가난과 ‘싸우’지는 않는다.

‘1979년의 서울, 완벽한 재현! 살아 있는 거대한 박물관’이란 기사를 내보내는 촬영 후일담의 속내는 이 동네 사람들을 섭섭하게 한다. ‘추억의 파노라마’라며 영화를 팔려는 마음에 이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은 생각지 못하는 것일까?

6. 에필로그, 전주에서 산다는 것

1) 쉬리가 노는 전주천

재미 혹은 의미를 선사하는 그 어떤 영화도 영화겠지만, 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함께 휴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영화제는 주로 바다를 낀 도시에서 영화제가 발전한다. 10분 안에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칸과 베니스 그리고 백사장이 긴 부산이 그렇다.

그러나 음식의 바다 말고는 전주에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없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는 너무 짧지 않은가 말이다. 집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휴양지는 아니라도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적어도 국제영화제를 하는 거리라면 적어도 동진주차장 자리가 메인 광장이 되어야 하고 바다가 없는 만큼 전주천까지는 영화의 거리로 품어야 한다. 그러면 전주천의 질푸른 바람과 맑은 하늘까지 영화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주천변에 야외극장을 만들면 어떨까? 한벽루를 스쳐 온 물길, 풀잎들이 속삭이는 소리, 쉬리가 헤엄치는 곳에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가.

2) 에필로그, 전주에서 만든...

대상과 그림 사이에는 공기가 있다. 그런데 세트에는 그런 햇빛과 공기가 없다. 밥을 짓고 빨래를 너는 노송동의 골목과 서민들과 친근한 전주천에는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기억과 시간의 반추를 다루는 부드러운 공기가 스며 있다.

전주에는 전주라는 고정된 어떤 이미지가 있다. 『용의 눈물』이나 「궁」이 촬영된 경기전 혹은 「약속」의 전동성당 같은 클래식한 공간

혹은 「단팥빵」이나 「사랑해 말순씨」처럼 엄마의 추억이 있는 ‘오래된 정원’의 이미지 말이다. 그것이 좋은 싫든….

오드리 햅번이 로마를 빛냈고 로버트 드니로의 「택시 드라이버」는 뉴욕을 제대로 보여 주었지만 오롯이 전주를 담아서 전주를 빛낸 영화는 ‘아직은’ 드물다. 그저 착한 도시의 착한 영화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등감을 자극한다고 자학할 필요는 없다. 브래드 피트나 주윤발이 나타날 도시가 아니고 더더구나 「섹스 앤 더 시티」는 아니지 않는가.

디지털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전주에서 산다는 것이 영광은 못 돼 도 썩 괜찮은 일이지 싶다. 선택의 자유는 어차피 영화를 찍는 그분들 몫이다. 전주라는 상품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것도 그렇다. 영리한 저들은 한옥마을을 더 이상 스크린에 담지 않는다. 공사중이거나 인원 통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세트장화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 번덕쟁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달라지는 한옥마을의 공기는 옛 맛을 잃고 눈썹을 밀고 입술을 칠하는 말순씨 같은 느낌이다. ‘지금’ 새로 단장한 ‘이곳’에서 영화를 찍을 바보는 없다. 디지털일수록 돈가스보다는 청국장이고 샤워부스보다는 말순씨네 수도간의 고무다라이가 그리운 것은 그분들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다.

공간이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면 과연 전주라는 공간은 어떤 캐릭터에 적합할까? 그저 드라마 「단팥빵」 아니면 「사랑해 말순씨」 정도면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영화에서든 공간은 사회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봄날은 간다」에서의 허진호의 마루가 있고, 오스 야스지로의 일본 마루가 있다면 전주에는 단단하고 오래된 ‘말캉’들이 있는데 말이다.

전주한옥마을

-근현대 선비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터-

함 한 희 | 전북대학교

1. 전주의 한옥마을과 선비골
2. 근현대 시기 전주 선비들
3. 근현대 선비들의 행적
4. 선비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터

1. 전주의 한옥마을과 선비골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토박이들을 만나 마을의 역사를 물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최 학자 · 이 학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까운 옛날을 회상한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최 학자, 이 학자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증언하는 최 학자는 금재 최병심 선생이고, 이 학자는 고재 이병은 선생을 일컫는다. 혹자는 그들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씨 성을 가진 다른 선비를 가리킬 때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구술로 전하는 역사는 의외로 손쉽게 확인된다. 선비들이 오목대 밑과 발산 아래 자만동 · 옥류동에서 모여 살면서 강학을 하고, 서당을 열어 교육을 했다는 기록도 이곳 저곳에 많이 남아 있다. 선비들 가운데는 1920 · 30년 무렵 전주 교동으로 이주한 이들이 여럿이다. 이들은 구이, 정읍, 고창, 김제 등에서 세거하던 선비들로서 전주향교 주변, 발산 아래 자만동, 옥류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자취가 전주한옥마을 안 곳곳에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옥류동 일대와 향교 주변이 바로 선비마을로 불리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비마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일찍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세상을 뜨고 나면 기억 속에 있던 역사는 전주라는 공간으로부터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옥류동, 자만동, 교동에 서려 있는 선비의 자취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1960 · 70 년대에 출간된 전주, 전북 관련 향토사에는 교동 선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¹

최근 부쩍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선비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기록해 두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역사로 남을 수 없다. 그래서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 또는 승자의 역사라고도 한다.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사실을 꺾어 맞추면, 그것이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 패자들이 말없이 사라진 자리에 승자는 자신들의 언어와 시선으로 역사를 기록해 둔다. 전주의 선비들도 신학문과 신교육에 밀리면서 조용히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회적 역할, 책무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더 이상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은 채 세류에 묻혀 버리게 된 것이다.²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전주의 선비굴이 사라진 것은 또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을 둘러싼 각종 보존 내지는 개발정책이 이 마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현대 시기 전주 교동은 다른 지역의 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비들이 운집해 있던 곳이었음에도 패자의 역사는 정책에서조차 홀대를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6년도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조차 교동을 중심으로 한 선비굴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곳에는 중요한 유적과 무형의 자산들이 그대로 묻히게 된 것이다. 추사 김정희도 감탄하고 돌아섰다는 명필 이삼만이 바위에 새긴 글씨, 금재 최병심의 서당터, 그의 묘역과 사우, 성당 박인규의 구강재, 고재 이병은의 남안재³

1 이봉섭 편저, 『전북백년』, 1976에는 최병심의 서당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1990년에 나온 전주문화원, 『전주의 향토지』, 전북인물열전 편에도 최 학자, 이 학자에 관한 글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2 이 가운데 남안재만이 전통문화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등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선비 관련 유형, 무형의 자취들은 지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다시 한번 새겨 두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호남의 근현대 유학사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새로 정리·정립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옥동사



금재선생 묘역



연당



강학터

3 남안재는 2013~4년간에 수리 보수를 하였다.

2. 근현대 시기 전주 선비들⁴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유교의 백 년을 회고한 금장태는 그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백 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갑오경장에서 일제강점기까지로 보고 이 시기를 격변·붕괴기라고 하였다. 후반기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로 분류·수습기라고 하였다. 전반기인 격변·붕괴기에 유교 지식인들의 중요한 활동들을 수구-저항운동, 개혁-종교운동, 그리고 閉門-潛伏 양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보기도 했다.(금장태, 2000) 일제가 본격적인 탄압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전주의 선비들도 세 번째 유형인 폐문-잠복형으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변천 양상의 배경을 금장태의 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19세기 말 개화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의 갈등·대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유림들은 ‘수구’의 입장에 서서 서양 문물의 침투에 항거하였다. 특히 단발령과 신교육제도에 크게 반발하였다. 한말의 유학자들은 일제의 침략과도 맞서서 의병항쟁을 선도하기도 했다.⁵ 결국 유림들의 의병활동도 강력한 일본의 침략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유림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탄압을 받은 것은 이들의 항거가 지속적으로 식민 정부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금장태, 2000)

4 전주의 선비들과 관련된 자료는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금재는 김명엽의 『최 학자 금재 최병십』과 유재는 김명엽이 정리한 『강암 송성용선생의 아석재』, 고재는 김동영·이경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향교옆 고재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남안재』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5 1895년 을미의병을 발단으로 의병항쟁은 계속되었다. 정부의 개화정책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섰던 것이다.

그 이후 일제 식민 정부는 유림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탄압을 하였다. 단발령 거부, 서당교육의 지속, 창씨개명 등에 맞서서 유림들은 식민 정부와 타협하기를 거부하였다. 유림들이 외부와의 고리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유교 관습과 가치관을 고수하고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등 스스로 고립·잠복의 길을 선택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교육기관인 향교, 서원 및 서당을 공식 학교제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한문 경전 교육은 사실상 사회적인 기능을 잃게 되었다.(금장태, 2000, 310~314쪽) 더구나 조선의 몰락을 유교의 탓으로 돌리는 지식인들이 늘어나면서 반유교적인 분위기가 시대사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시기 유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전주 선비들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신문물운동에 대한 항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향교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전주 선비들의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봄으로써 마지막 선비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비들 가운데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남강(南強) 이기원(李驥遠),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금재, 고재, 남강을 비롯해서 전주의 유학자들은 자만동·옥류동으로 불리던 지금의 교동 일대에 터를 잡았다. 이들이 살았던 오목대, 이목대 부근은 전주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손들 가운데는 조상의 터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 후손들과 제자들 그리고 남아 있는 각종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활동과 학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금재선생은 1874년 10월 5일에 전주 교동에서 아버지 碧溪 崔宇洪, 어머니 利川 徐氏의 5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금재의 가계는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아(阿)⁶를 시조로 하여 중랑장

공(中郎將公) → 직장공(直長公) → 월당공(月塘公) → 소윤공(少尹公)으로 이어진다. 월당공 최담(崔霨, 1346~1434)은 고려 말인 1377년 대과에 급제하여 조선 초기에 벼슬을 지냈다. 55세 때인 1398년에 낙향하여 지금의 최씨 종대자리에서 서당을 열고 네 아들을 비롯하여 학동들을 가르쳤다고 한다.⁷ 월당공은 한벽당을 지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 금재는 그의 17대손이다.⁸ 금재는 자라면서 부친 벽계공 밑에서 글을 배웠고, 16세가 되던 1889년에 구이로 가서 청하(靑下) 이병우(李炳宇)에게 사사하였다. 청하 밑에서 7년간 글공부를 한 뒤 1896년 봄에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을 찾았다. 연재가 그의 학문에 탄복하고 격려하면서 『근사속록(近思續錄)』을 내려 주었다고 한다. 24세가 되던 정유년(1897) 겨울에는 태안으로 가서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를 스승으로 모셨다.⁹ 그 후부터 금재는 간재의 학문을 이었으며, 그의 수제자로 꼽히게 되었다. 간재는 “전주의 금재는 나에 못지않은 학자이며, 그의 학문을 조선에서도 따를 사람이 몇이 되지 않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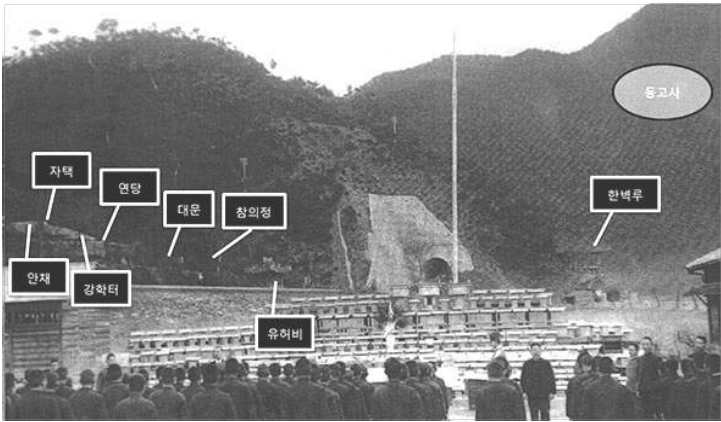
6 완산군(完山君)이라는 존호(尊號)도 받았다.

7 최씨 종대는 현재 전주 풍남동(한옥마을)에 위치해 있고, 월당공이 심어서 600여 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그 일대를 ‘은행나무’길이라고도 부른다.

8 한벽당의 원래 이름은 월당루(月塘樓)였다. 한벽청연(寒碧淸烟)이라 하여 전주 팔경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승암산(僧岩山) 기슭인 발산(鉢山)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이다. 이 주변은 조선 왕실이 발생한 터로 명성이 높고, 호남의 명승으로 알려져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들어 제영(題詠)한 시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9 그 무렵 간재(艮齋)의 나이는 57세였으며, 그는 당시 충청도 태안에서 강학을 하고 있었다. 간재도 1841년 전주 교동에서 출생하였다.(1922년 타계함) 14세에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갔으며 21세에 아산의 임헌희와 사제의 의를 맺었다. 간재는 나라가 망하자 제자들과 함께 굴욕의 땅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서해안 일대의 섬을 다니면서 강학을 계속했다. 72세인 1912년 9월에 이르러 부안의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다.

10 전북매일신문사, 『명문의 고향』, 「전주 최병심」, 1970, 183쪽.



옛 BBS터(현재 전통문화관)에서 바라본 금재선생 유적지
(일제 말기 사진으로 추정)

고재 이병은 선생은 1877년 1월 11일 완주군 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이봉덕이었고 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자승이요 학호가 고재인 이병은은 16세가 되던 임신년(1892년)에 향시인 초시에 장원을 했다. 그러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한때 방황하기도 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준엄하게 야단을 쳤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차린 고재는 그 후 두문불출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경자년인 1900년 겨울에 간재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계화도를 찾아갔다. 그의 학문 됄을 유심히 살피던 간재는 즉석에서 옷깃을 여미고 “선생의 高名은 心과 力이 남보다 絶等하다”고 격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학호를 고재라고 지어 주었다.(전주향토지, 1991, 251쪽) 고재는 구이에서 서당으로 쓰던 남안재를 전주 교동으로 이축하고 자리를 잡았다.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된 사연은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다. 항일정신이 투철했던 고재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기에 이를 피하고자 전주행을 결정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문묘 제반사가 흐트러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였

다고 한다. 고재는 전주향교의 뒷산인 산비탈에 남안재를 짓고, 문묘를 살피기 시작했다.

남강 이기원은 목산(木山) 이기경(李基敬, 1871~1958)의 후손이다. 목산은 영조 때 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이후 타계할 때까지 48년 동안 관직에 있었다. 후손들은 오목대 아래서 기호지방 노론계의 대표 문장가인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위백규(魏百珪)의 묘지명에서 “호남 이학(理學)은 하서(河西)에서 시작하여 목산으로 끝났다.”라고 평가한 바 있는 호남의 대표적 유학자로서 영조시대 호남인을 대표하는 중진 관료로 살았다. 그의 후손인 목산 이기경은 조선 말에 출생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 해방 그리고 육이오를 거치는 동안 성인군자와 같은 삶을 산 선비라는 평가를 받았다.¹¹ 성인처럼 덕이 높았고, 학식도 뛰어났다고 한다.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의 문집인 『고재집』에서도 남강의 면모를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다. 고재가 아들 면와(侁窩) 이도형(李道衡)에게 주는 편지글인데, 고재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남강 웅은 우리 집안의 유덕자이다. 너는 모름지기 그 덕에 가서 찾아 뵙고 절하고 문안을 여쭙어라. 또 나와는 동년자인데¹² 성안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많지만 유식하고 무식하고를 막론하고 (그분을)만나면 모두 절을 한다. 절을 하는 것이 그 아들이나 조카들처럼 갖추어서 인사를 한다. 저자거리의 보통 사람을 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교제하기를 청하지 않아도 모두 가서 절을 한다.

11 신호, 『아빠의 일기장』, 1973은 당시 전주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남강 이기원 편도 있는데 필자는 그를 「聖人君子」라고 평하였다. 이기원의 자가 덕가(德可)여서 그를 이덕가라고도 부른다.

12 실제로는 고재가 남강보다 6살이 더 적었다.

이처럼 남강의 유덕함을 들어서 아들에게 자주 찾아뵙고 인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당대의 동료 선비들에게조차 남강을 일러서 유덕자라고 일컬었던 것을 보면, 그의 인품과 학식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질풍지경초(疾風之勁草)요, 쉼 바람 속에도 뻗뻗한 풀처럼 굽히지를 않고, 작퇴파지지주(作頹波之砥柱)라, 참으로 강한 자는 늠름하기를 거친 파도 속의 지주와 같이 끄덕을 안 했다. 선비의 지조를 지키는 일을 말한 것이다.

“어학랑도도(於虐浪滔滔)에 상설매매지시(霜雪買賣之時)가 있단 말 이야. 도도는 거친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야. 상설매매지시는 서리와 눈발이 쌀쌀한 때라는 말이니까 거친 파도가 도도히 흐르고 서리와 눈발이 쌀쌀한 때, 그러니까 선비가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는 그런 험한 때란 말이야. 그게 일제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가지기온유지용(知其慍柔之容) 강의지집(剛毅之執)이라고 했단 말 이야. 가히 그 온유한 용모와 집념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이지?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상경지미(尙綱之美)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지.” 이 말은 그의 손자인 이하영 선생의 증언이다.

남강은 자신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싫어했고, 나라를 잃고 사는 유학 지식인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진다. 남강은 한일합방 이후 스스로 노비를 해방시켰고, 나이가 들어 갈 데가 없는 노인 하인들을 위해서 오목대 아래 산비탈에 집을 짓고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 남강은 오목대 밑에서 살면서 이곳을 지킨 유명한 일화도 있다. 어느 날 재력가들이 오목대를 측량하고 그곳을 사들이려는 것을 알고 완강하게 막아냈다. 측량하던 이들이 ‘오목대가 선생님네 땅이요?’ 하고 묻자, 남강은 ‘그건 우리 황제 것이다.’ 고 답하면서 한치도 물려서지 않으셨다고 한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황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이씨 왕가의 정신적·물질적 단절을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변방의 이름 없는 한 선비는 소리 없이 황실의 몰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남강은 동시대 선비인 금재, 고재, 그리고 이성렬(李聖烈) 전라감사, 가람 이병기와도 친분을 두텁게 쌓으며 지냈다.

3. 근현대 선비들의 행적

교동 선비골의 선비들의 존재는 전주의 자랑거리였던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 해방, 그리고 육이오동란과 같은 정치적 격동기와 신학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동을 오롯이 겪어낸 이들이다. 전통 학문인 유학에 뜻을 꺾지 않고 근현대 시기를 산 전주 선비들의 삶을 조망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조선 말 나라가 어지러울 때 태어나서 일찍이 벼슬길을 접어야 했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충효를 실천해야 했다. 신학문이 몰려올 때도 이에 굴하지 않고 학문과 덕을 쌓으며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다. 근대문화 속에서 충효와 의리, 절개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사라져 가는 선비정신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금재의 경우, 31세에 1904년 1월에 명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집안이 대대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전통을 지키고자 했을지도 모르고, 당시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을 때여서 국가의 관리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간재의 뒤를 이어서 금재도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옥류동에 서당을 열고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금재가 교육자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남아 있다. 그는 “의리를 밝혀서 자신을 단속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는 도학적인 교육 지표를 세웠다. 여기서 의리를 밝힌다는 것은 인륜을 일상생활화 하는 것으로 어느 때에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실천을 위해서 그의 성당인 염수당에서는 「염수당강규(念修堂講規)」와 「학규도(學規圖)」, 「일용존성도(日用存省圖)」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¹³ 먼저 「염수당강규」의 내용을 보면 입학 조건 · 학생대표의 일 · 기상 시의 예절 · 독서의 자세 · 필기구의 정리정돈 · 연장자와 손님에 대한 예절 · 식사 시의 예절 · 식후의 태도 · 걸음걸이 · 언어 · 의관 · 친구와의 사귄 · 밤 시간의 독서 · 하루 일과의 반성 · 귀가 시의 예절 · 시험에 관한 내규가 적혀 있다.

1966년까지도 염수당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재의 손자인 최규만이 서당의 훈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전주시 교동 염수재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칠 새 없이 3백 년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최 학자님 집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글방에서는 지금 훈장 최규만 씨가 어린이 15명에게 천자문에서 맹자에 이르는 한문과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다. (중략) 한 달에 2백 원의 학습비를 내는 어린이들은 『천자문』(3개월)에서 시작 『사자소학』(1개월) · 『동몽선습』(1개월) · 『명심보감』(3개월) · 『소학』(5개월) · 『대학』(1개월) · 『중용』(1개월) · 『논어』(1년)를 거쳐 『맹자』(1년)까지를 배운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1966. 1.7. 기사)

13 염수당은 그의 서당의 당호였다.

교육의 산실인 금재의 옥류정사(玉流精舍)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나라를 빼앗긴 탓으로 몸은 비록 왜정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만 하였으되 정신만은 조선인으로서의 근본을 지키려는 많은 유생과 기성 선비들의 집합소가 되었다”고 한다.(송준호, 연대미상, 4) 금재가 길러낸 제자의 수는 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금재선생 문집』에 첨부된 제자들의 명단인 「옥산연원록(玉山淵源錄)」에 기재된 제자는 277명이다. 그중에는 조기주 · 이남안 · 박인규 · 박종익(종택) · 윤제술 · 엄명섭 · 박종호 · 송준호 · 나진선 · 송열 · 엄명섭 · 김상기 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당은 1957년 금재선생이 작고한 후에도 손자 최규만 · 제자 박인규 · 엄명섭 등이 강학을 이어 갔다.

고재의 학문은 일찍이 간재선생이 격찬한 바 있고, 고향인 두방마을에 돌아와서 南安齋를 짓고 칩거했다. 남안재에는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들어 강학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일제치하에서 유학자들에 대한 탄압이 세어지자 이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신학문의 길을 택하기도 하고, 더 이상 유림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고재는 의연하게 고향의 서실과 서당을 지키면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키워 갔다. 전주로 옮긴 것은 고재의 나이 60세인 1936년이였다. 일제에 의한 유학과 유림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자 고재는 결단을 내렸다. 문묘 제반사가 소홀이 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전주의 향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주로 나온 것이다. 원래 선비들은 향교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소홀해지는 성현들의 위패를 홀로 정성껏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제 말기부터 본격적인 향교 수난기에 고재는 온몸을 다해서 이곳을 지켜냈다. 향교에 모셔진 성현들의 위패는 물론이고 장서본의 완전한 보존이 고재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일만여 목판본과 위패, 제기 등이 그대

로 간직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의 아들로 이어진 부자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이다.(전주향토지, 1991, 251~252쪽)

금재는 간재의 운둔-강학의 정신을 이어서 옥류동에 칩거하면서 교육에만 힘썼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의병을 일으키는 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당대에는 일부의 유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창의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병활동을 좌시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금재선생의 행적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에 대해 의리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기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맺어지자 금재는 단식으로 항거하고 「을사오적 선참격문」을 작성 배포하다 압수당했다. 1910년 국치(國恥)의 소식을 들은 그는 발산(鉢山)에 올라 하루 종일 통곡한 후 상시(傷時)를 읊은 뒤 7일 동안 단식하였다고 한다.¹⁴

이 시대를 아파하며

요즈음 세상일은 어느 것 하나 맘 상하지 않는 게 없으니

年來世事正悲傷

어둠은 언제쯤 가고 다시 빛을 볼 거나

陰極何時見復陽

수풀 사이 까마귀 우는 소리 시끄럽고

林間啞啞烏聲亂

세상은 온통 말 같지 않은 말만 하는 무리들로 가득하니

海上啾啾鬼語長

14 『성당문집』 중 「금재선생행장」

구름 한 점 없이 온 세상에 갠 날이 오면	萬里無雲天始定
봉우리마다 달이 떠올라 밤도 오히려 밝으리.	千峯月得夜猶光
가슴에 찬 회포 억제하기 어려워	懷緒忽忽難自抑
등잔불 켜고 하천장을 읽네.	挑燈朗讀下泉章

이후 금재를 따르는 문하생들, 독립투사들이 옥류동에 운집하였다. 그러다 보니 금재의 염수당(念修堂)은 강학을 하는 곳만이 아닌 조국의 독립을 논하는 유생과 선비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학자촌이 형성되자 일제는 염수당을 없앨 궁리를 하게 되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1년 옥류동 향교고을 일대에 자리 잡은 학자촌의 학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강제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¹⁵ 그 이듬해인 1912년 호남창의 대장(湖南倡義大將) 이석용(李錫庸)이 전남북(全南北) 양도에 걸쳐 일군(日軍)과 항전을 계속하며 독립밀맹단(獨立密盟團)을 조직하고 각 지역을 분담하여 활동할 때 금재는 전주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전주(全州) 지방을 맡아 이석용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석용이 쓴 『湖南倡義日記』 말미에는 「弗忘錄」이 있어 금재가 이석용을 지원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를 보면 무신년 9월에서 계축년 7월까지 약 5년간의 모금은 전(錢) 3,070냥과 포목 3필, 목화 90근, 모시 1필, 모시두루마기 1벌, 中溺缸(중늑강) 1개였다. 그중 금재가 낸 금액은 기유년 10월 전5냥, 경술년 3월 전5냥, 신해년 2월 전20냥, 신해년 12월 전3냥, 임자년 4월 전2냥, 경술 춘 모시두루마기 1벌이다. 여기에서 금재는 전주 동촌 최참봉댁으로 기록된다. 이를 보면 금재는 임자동밀맹단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군자금을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당시 선비들의

15 전북매일신문사, 『명문의 고향』, 「전주 최병심」, 1970, 184쪽.

16 이석용, 『정재이석용문집 · 호남창의일기』, 「의병해산, 임자동밀맹단과 그의 최후」, 임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금재선생의 군자금 지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재의 항일정신은 韓田 사실로 알려진 토지회복운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제는 양잠업 장려의 일환으로 원잠종제조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물색하였다. 식민 정부가 선정한 곳이 바로 한벽당과 전주향교 사이에 있는 밭이었다. 바로 이 구역에는 금재 소유의 땅과 집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⁷ 식민 정부에서는 최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옥류동의 대지를 매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재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내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총독부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였다. 끝까지 항거하던 금재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가옥을 소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어이 땅을 빼앗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한전사건(韓田事件)이다. 금재의 제자 성당 박인규가 기록한 「한전사실추록(韓田事實追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7년 당시 총독부는 소위 은사금이란 것을 내려 잠업을 장려했다.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토지를 사들여 뽕나무밭을 만들기에 바빴다. 전주향교 소유의 땅들도 토지수용령에 맥을 못 추고 별 저항 없이 국유지가 되어 갔다. 고집스런 전통 유학자의 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 금재의 집 대지가 뽕나무밭 조성지로 지목되었다. 도지사 이진호(李軫鎬)가 사람을 보내 고가로 매입하겠다고 설득했지만 금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땅 대신 양전(良田)을 주겠다고 해도, 세(稅)를 낼 테니 빌려 달라고 간청해도 금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금재에게 그 대지는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오백 년 가깝게 조상 대대로 물려 온

실문화원, 열림, 2002, 45~47쪽 참조: 김명엽, 「보고서」에서 재인용.
17 금재선생의 원래 집은 현재 전통문화센터가 있는 자리이다.

가문의 땅이자 내 나라 조국의 땅이었던 것이다. 금재는 “속임수를 써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무리들이 이제 금전으로 내 집터를 사들이려 하니 죽어도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하였다.

금재가 거절로 일관하자 8월 20일 도지사는 이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하여 ‘토지수용령’을 발동시키고 순경 30여 명과 소방서원 90명 등 1백 20여 명을 금재의 집으로 보내 집을 강제로 철거하도록 했다.¹⁸ 항거하던 가족들은 유혈이 낭자하도록 맞았고, 금재의 부인 통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채 모두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다. 통천 김씨는 이때 당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1919년에 세상을 뜨고 만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 왜경들이 집에 불을 질러 바깥채가 타고 있는 중이었다. 금재는 짚고 다니던 죽장으로 왜경들을 쫓아냈다. 그러고는 죽기를 결심하고 가묘에 하직인사를 올린 뒤 노모에게도 자신의 뜻을 알린 후 불타 버린 집터에 누워 단식을 시작했다. 금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나 스스로 다짐하였는데 결국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구차스럽게 살기를 원하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조선 민족은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다. 나라의 명운이 종말에 이르렀으니 이를 누가 구할 것이며, 누가 살릴 것인가. 법망이 온통 사방을 에워쌌으니 숨통이 끊어질 지경이요, 손발이 뭉뚱 묶여 있는 형편이다. 오직 죽음만이 눈앞에 있으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라고 탄식하였다. 금재가 단식투쟁으로 맞서자 일제는 타협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지수용령을 철회하겠다는 언약을 주었다. 금재는 단식을 중지하고 식민 정부의 약속

18 당시에는 금재의 집이 잡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토지 안에 있었다. 즉 현재의 남원행 도로의 남쪽에 있었으며, 후에 도로의 북쪽에 있는 언덕 기슭으로 옮겼다.

이행을 기다렸다. 아무런 조치가 없자, 금재는 일본 식민지 정부와 법
정투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1941년 되돌려받았다.

이처럼 선비들이 글과 행동을 통해서 일제에 항거했으며,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힘을 합하여 충효, 의리, 절개를 지키려
했다. 『염재야록(念齋野錄)』의 「서(序)」 사건을 또 다른 예로 들어 보고
자 한다. 염재야록은 임실의 선비 조희제가 1895년의 을미사변의 전말
과 절의를 세운 의열사, 의병들의 실적과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한 기록
이다. 염재야록은 초고는 8권이었으나 원고의 일부와 잡저들을 일본
경찰에 압수당해서 6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¹⁹ 금재와 고재의 제자들
은 다음과 같이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

이남안 : 한말 유학자인 조희제(趙熙濟) 선생이 유고집이자 일제에 끝
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염재야록』을 만들어 전국의 유림
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책의 서문(序文)을 금재선생이 쓰셨고, 제 조부
인 고재선생이 발문(跋文)을 쓰셨어요. 그 때문에 임실경찰서에 두 분
이 오랫동안 구치되었던 사건도 있었지요. 금재와 고재 두 분은 유재
(裕齋) 송기면(宋基冕)과 함께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의 제자로서
더불어 금재와 고재는 감방 동기이기도 한 거지요.

조기주 : 조희제는 한말에 금재선생하고 친구인데, 호가 염재(念齋)거
든요. 그분은 송사(松沙 奇宇萬) 문인(門人)이에요. 송사의 할아버지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고, 그분이 쓴 『염재야록』이란 것이 있어
요. 금재와 고재(顧齋 李炳殷) 이렇게 두 분과 무척 다정해서 한 해
겨울에는 선달 그믐날이 되었는데, 임실을 안 오시고 거기서 세 분이

19 성당(誠堂) 박인규(朴仁圭)의 문집인 『성당사고(誠堂私稿)』 권4, 잡저(雜著)의 통고문에
기록되어 있다. 성당 박인규도 금재의 제자이고, 그의 서실 겸 가옥인 구강재가 옥류동
에 남아 있다.

같이 술을 드신 거야. 전주 최금재 댁에서. 그러면서 세 분이 선달 그릇에 술을 한잔 먹으면서 시를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토록 다정한 처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염재야록』서문을 그때 쓰셨어요. 발문은 고재가 쓰시고요. 우리 큰아버지나 아버지가 염재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들이예요. 두 분이 『염재야록』을 서역(書役)을 해서 땅에다 비장을 해 놓았었습니다. 또 일부는 날마다 집필을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일제에] 탄로가 나서 전부 압수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우마차로 와서 그 많은 서책을 실어 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참봉이셨는데 큰아버지 [문집] 칠~팔 권과 염재문집도 칠~팔 권 되었고요. 압수당할 때 전부 끌어 가 버려서 일생 동안 한[글을 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비장(秘藏)해 놓았던 독립투사들의 기록만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장 필적은 없어졌다 이거지요.

금재는 『염재야록』의 「서」에서 “불행하게도 지난날 도적 같은 신하들이 임금을 속이고 적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나라를 들어 원수에게 주니 우리의 오백 년 종묘사직은 무너졌고, 이천만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부림을 받게 되었으며, 신성한 조국 삼천리 정결한 땅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비린내 나는 마당으로 변하였다.”²⁰ 또 “저들에 대항하여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기개와 절의가 더욱 모질고 매서워 그야말로 우주와 높이를 겨루고 일월과 빛을 다투었던”²¹ 지사들을 칭송하였고, “친우 조희제 군이 을미 이래로 국가의 변란과 그 전후한 시기의 여러 사람의 충의로운 일 및 행적을 수집하여 『야록』이라고 이름하였다. 선왕의 유민으로서 이 책을 읽고 감개·격분할 줄 모른다면 어찌 천성

20 不幸往者賊臣 欺君引敵入室 舉國與讎 既覆我五百年宗社 又奴我二千萬生靈 遂使四十年 神聖之國三千里 乾淨之土 一朝變爲侏離腥臊之場矣.

21 蓋當時禍變之愈酷 而諸公氣節之益烈! 直與宇宙抗高日月爭光.

과 인심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²²

금재와 고재 모두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염재는 올 분으로 병이 나서 병보석으로 나왔다. 그 후 또 체발(剃髮)을 강요당한 염재는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구차히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의를 지켜 죽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일본에 항거하는 방식이 선비들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항일정신만큼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 기백이 충천하였다.

4. 선비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터

국내에서는 근현대 시기 전주의 한옥마을만큼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강학과 교육을 했던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1920·30년대까지 최학자의 서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한학교육을 받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륜 도덕을 중시하며 전인 교육에 힘을 썼다.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으며 유학이 스러져 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던 역사적인 현장이다. 전주 교동은 한국 전통 교육과 학문의 마지막 불씨를 담고 있던 곳으로서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직도 조선의 선비정신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다. 되살려낼 불씨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곧 언제 그 불씨가 꺼질지 몰라 초조하기만 하다.

22 趙友熙濟諸君慨然乎。是蒐輯乙未以來國變及前後 諸公忠義事行名之曰 野錄。先王遺民者 讀此書而 不知感慨 激奮則 豈可謂有天性人心者哉。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선비들의 학문과 실천을 통해서 보면 유학이 결코 고리타분한 학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도 하고, 사회정의를 이루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면도 있다. 특히 선비들은 말이나 생각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태도를 더 중시하였다.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고, 근검절약하며, 청렴하게 살고, 의리와 기개를 지키는 일을 실천했던 이들을 선비라고 불렀다. 이는 선비문화의 진면목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근현대 시기 호남 유학의 실재를 밝히고 나면 한국 유학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 시기 호남 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한국 유학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문집류 및 기타 사료집

崔秉心, 『欽齋先生文集』

이병은, 『顧齋集』, 여강출판사, 1988.

朴仁圭, 『誠堂先生文集』

裨聖洙, 「欽齋先生 墓誌銘竝書」

이기경, 『목산고』, 전북대학교, 1990.

趙熙濟, 『念齋野錄』

李錫庸, 『靜齋李錫庸文集 · 湖南倡義日記』, 임실문화원, 열림, 2002.

전주최씨 중랑장공파 종중회, 『全州崔氏 中郎將公派 族譜』

논문 및 저서

강신표 외, 『한옥마을 선비와 선비문화』,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8.

금장태, 「한국 유교사 연구의 현황과 방향」, 『宗教學研究』 12, 1993, 1~13쪽.

———, 「韓國 儒敎文化 特徵」, 『韓國學論集』 27, 1995, 139~160쪽.

금장태 · 고광식 공저, 「欽齋 崔秉心」, 『續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김기현, 「欽齋 崔秉心の 華夷意識과 守道の 精神」, 艮齋學會研究會 발표문.

김명엽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목산 이기경의 삶』,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2.

宋俊浩, 「欽齋 崔秉心 先生の 생애」, 출판사 미상, 연대미상.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조기대, 「금재문집」,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12쪽.

전라문화연구소, 『목산 이기경 연구』, 전라문화연구소, 1991.

전북매일신문사, 『名門의 故郷』 「全州 崔秉心」, 1970.

전북향토문화연구회, 『全北의 樓亭』, 신아출판사, 2000.

함한희 외, 『한옥마을 사람들의 집과 삶』,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8.

함한희 외,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 전주시 한옥마을스토리개발사업결과보고서, 2008.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공간 변화

최진성 | 전주고등학교

1. 고지도의 전주읍치 경관
2. 조선시대 전주읍성의 도로망과 주요 경관
3. 1918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4. 1931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5. 1931년 전주역사도심의 기능체 분석
6. 제안 및 한계점

도시의 기원은 정치·행정적인 것이고 근대 이후 경제의 논리가 도시의 면모를 더욱 압도하였다. 전주 또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중심지로서의 중앙 행정적인 측면과 경제 중심지로서의 측면이 결합된 양태를 띤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의 중심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 체제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데, 특정 시대와 공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 운영되는 곳이 바로 도시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대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범위를 정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심은 무엇이고, 역사도심은 더군다나 무엇일까? 그리고 전주의 도심은 어디까지 인가?

도심(都心)이라는 용어는 ‘도시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역사도심’이라는 용어는 서울에 이어 전주에서 도심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전주역사도심’이라는 결합 용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역사도심이라는 개념을 ‘도심이되 역사적으로 도심의 지위가 계승되어 온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도심의 공간으로는 ‘전통 도시의 읍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는 용어와의 구분도 필요하다. 도심을 중심업무지구라는 개념의 연장선에서 보면 상업과 행정 기능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전주의 경우, 옛 도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정도에 해당되며, 전주읍성으로 둘러싸인 공간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광복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주의 도심이 읍성의 테두리를 넘어 점차 확장되었기에 이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최근까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읍성의 사대문 안을 핵으로 발전하였고, 일제강점기에도 전주의 도심부가 사대문 안이 중심이었던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전주역사도심의 공간 변화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전주읍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주역사도심이라는 것도 조선시대 전주읍치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도심의 공간 변화는 가로망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기 때문에 1870년대의 고지도, 1918년도 지도, 그리고 1931년도 지도들에 그려진 가로망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주역사도심을 구성하는 경관들마다의 점적인 접근이 아닌 면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성 있는 역사도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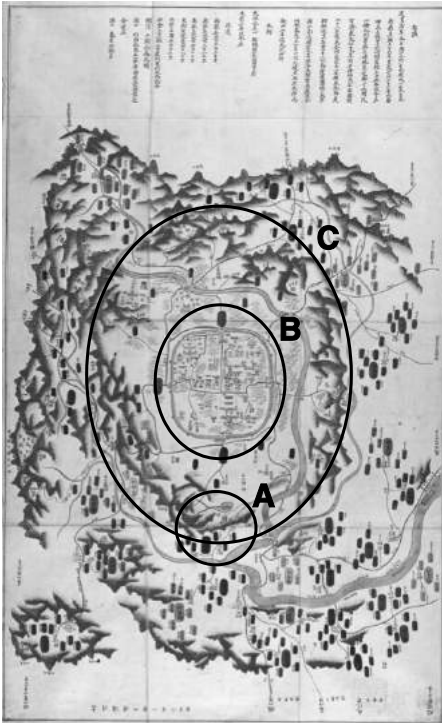
1. 고지도의 전주읍치 경관

고지도는 그것이 담고 있는 지역 단위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현지도의 경우 지도화된 공간 단위는 그 고장에서 일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생활 세계인 현재의 시, 군, 면 단위 위주이다. 이것은 실제 지도를 통한 지역의 이해에서 일반인들이 지도상에 표현된 여러 현상들의 상황이나 관계는 물론, 입지와 장소 등의 특성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건이 된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경험되기에 지나치기 쉬웠던 역사적, 문화적 의미체들을 고지도를 매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보기’ 또는 ‘낮설게 보기’를 통한 흥미 유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존 현황 참여, 그리고 주변 생활 세계의 이해 등과 관련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이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화·역사·지리적 개념이나 개념 간의 관계 이해, 그리고 최종적인 지역 현황 이해의 과정에서 고지도를 통해 추출해 낼 수 있는 요소 및 개념들은 유용한 자료나 요소들이 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지도를 통해 다르게 보기의 내용을 지리적 관점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고지도의 경관 입지

입지는 지도에 그려진 여러 현상들의 위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이해와 관련된 지표상의 여러 현상들의 일차적인 지리적



<그림 1> 「1872년 지방지도」(전주부, 규장각)

특성으로서의 위치 개념은 각 현상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특히 향토 차원의 지역 범위를 이해하는 지역지리에서는 지역을 구성하는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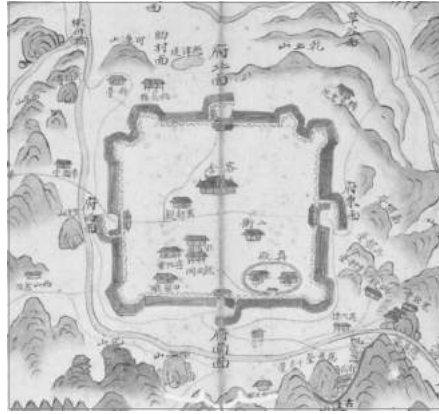
이러한 입지 개념과 관련해 <그림 1>에 제시된 고지도는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를 포함하는 과거 전주부(全州府) 지역의 1872년 채색 지도이다. 1872년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지도에서는 보통 북쪽으로 인식되는 지도상 위쪽

에 전주의 상징적 중심(鎭山, 풍수상 主山)인 건지산(A)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쪽에 위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도 보기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지도를 180° 돌려야 북쪽이 지도상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건지산에서 뻗은 산줄기(C)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전주읍성(B)의 주위를 마치 큰 원처럼 에워싸고 있다. 또 전주천 상류인 상관의 만마관(萬馬關,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군사전략적 중요 지점으로 성벽을 쌓아 감시하던 관문)에서 흘러내리는 전주천은 전주읍성 주위를 또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만경강과 합류한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도 산자락과 물줄기가 그리는 원의 한가운데에 전주읍성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상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형태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여기에서 과장된 산자락은 전통적인 마을 입지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배산임수’의 배산, 즉 풍수상 주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흐름과 관련하여 흐르는 물줄기는 명당수이며,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행정 중심인 읍치경관(동헌, 객사, 경기전, 향교, 사직단 등)이 놓여 있다. 결국 인문현상으로서의 읍치경관의 입지는 자연 요소인 산과 물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 실제적 중심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공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고지도 경관들의 공간관계

지도는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던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지도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공간 인식체계(풍수)라는 점 이외에도,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사회적 질서, 권위 등)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일종의 시각적 텍스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서 고지도는 문자화된

텍스트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이는 듣거나 읽는 텍스트가 아닌 ‘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고지도에는 유교적 세계관(또는 이데올로기)이 투영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도 읽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자연화’에 주목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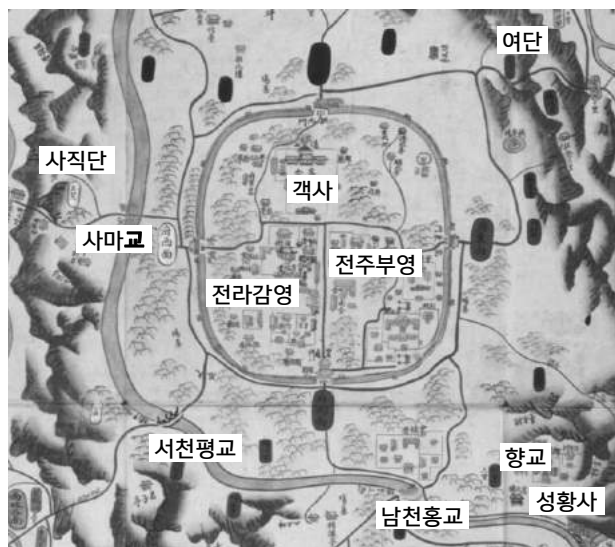


〈그림 2〉 「해동지도」(전주부, 규장각)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경관(자연적, 인문적) 요소들 사이의 공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1700년대 초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째, 전주부의 읍치가 있는 전주읍성 부분을 다른 지역의 축척보다 훨씬 크게 그렸다. 북쪽에 위치한 건지산이 북문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지도에서는 바로 북문 앞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둘째, 읍성을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 그 안과 밖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읍성 안에는 객사, 전라감영[玄都觀, 宣化堂, 中軍廳], 전주부영[貳衛] 등 행정경관들이 주로 그려져 있다. 眞殿(경기전)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주는 태조의 어진을 모신 예외적인 지역(경주와 평양)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 행정경관들 사이에도 공간적 위계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객사가 북쪽에 위치하며 다른 경관들보다 크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감영과 부영은 그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크기가 작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들 경관 요소들이 중앙과 지방, 왕과 신하라는 사회적 관계가 이원적 대비구조로 재현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종교경관 간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지방의 각 도시들은 예의 실천의 장으로서 각종 신령께 제사 지내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여기에도 예법이 중시되어 주자의 「周禮考工記」에 따라 도성의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左宗廟右社稷’의 원칙 아래 종교경관들이 배치되었다.



〈그림 3〉 「1872년 지방지도」(전주부, 규장각)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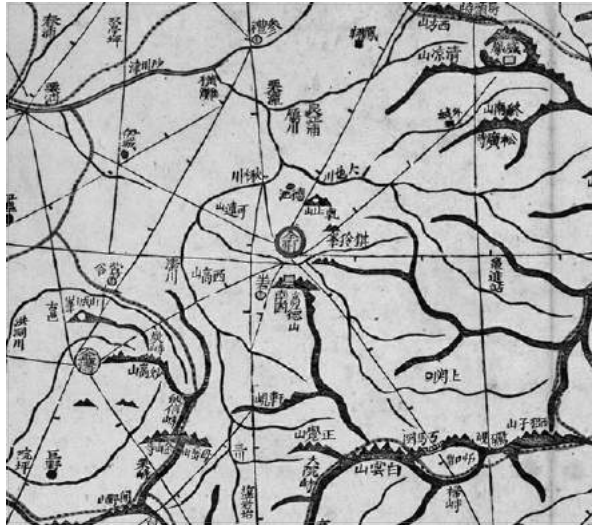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그림 3〉의 전주부 지도에서 볼 때, 읍성 밖에 향교(左), 사직단(右), 여단(左), 성황사(左)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객사나 감영 같은 중심 요소들을 포함하는 국면과 분리되어 읍성 밖 언저리에 종교경관들이 유교적 위계질서에 따라 자리 잡음으로써 내부의 중심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외의 다른 전라도 군현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거의 동일하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유교적 입장에서는 인간신이든 자연신이든 부정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신의 존재와 관련

된 경관 요소를 하위에 놓음으로써 인간 중심의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 불교와 관련된 사찰들의 경우는 거의 지도에 재현되지 않거나 혹 답아지더라도 종교경관 밖에 따로 그려져 있어 또 하나의 하위 개념처럼 그려져 있다.

3) 장소와 통로

산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경관은 물론, 인문경관의 공통점은 흐름과 소통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도로, 성문, 고개 등이 바로 그 흐름과 소통의 주역들이며, 이들 역시 고지도에서 중요하게 재현되고 있다. 자연은 자연이되 인간은 그 자연 속에 어김없이 경관을 만들어 장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장소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녹아 있는 다양한 경관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간단위(영역)를 의미하며, 각각의 배치에 따라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읍치경관에서 행정경관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종교경관들로 인해 읍치라는 장소가 의미 있게 된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장소 사이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영역이 있으며, 이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경관 요소들이 바로 도로, 성문, 다리, 고개 등과 같은 ‘통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통로란 한 장소와 다른 장소, 또는 한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곳을 말한다. 행정경관의 중심지를 따라 엮어진 도로망, 행정경관의 중심지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성문(읍성을 가진 행정 중심지의 경우), 그리고 읍치경관 주변의 산들을 넘어가는 고개 등은 통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림 4〉 「대동여지도」(규장각)의 전주 일대
(직선 위에 방점을 표시한 것들이 도로임)

〈그림 3〉과 〈그림 4〉에서 먼저 도로망을 살펴보면, 많은 군현지도들에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도로망의 최종 종착점은 행정경관의 객사 또는 관아이다. 전주 역시 다른 군현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객사 또는 관아로부터 행정경관의 중심지로부터 주 출입구(남쪽인 경우가 가장 많음)를 향해 1차 간선도로가 뻗어 나가고 있다. 이곳을 빠져나간 간선도로는 다른 장소 또는 외부 세계(남원과 김제 또는 정읍)로부터 오는 또 다른 간선도로(동쪽과 서쪽)와 합류하면서 삼거리를 이루며 교차하고 있다. 전주부의 도로망은 이 지점을 최고 결절점(結節點)으로 삼아 전주부의 주요 장소와 인접 군현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리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결절점에 해당한다. 〈그림 3〉에서 전주천은 전주읍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면서 간선도로들과 만나 남쪽에서부터 남천홍교(남천교), 서천평교(서천교), 사마교(다가교), 합천교(추천교) 등이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최명

희의 작품인 『혼불』에서 전주천의 다리들이 표현되어 있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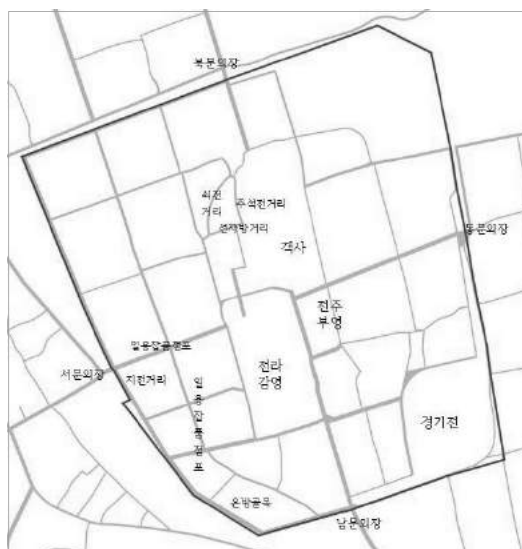
전주부성 동쪽머리 만마관 골짜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전주천 물살은 좁은 목을 지나 강모가 내내 하숙하고 있던 청수정의 한벽당에 부딪치며, 각시바우에서 한바탕 물굽이를 이루다가 남천교, 미전교, 서천교, 염전교를 차례차례 더터서 흘러내리며 사마교를 지난다. 그렇게 모래밭을 누비고 흘러오던 물결이 긴 띠를 풀어 이곳 다가봉의 암벽 아래 오면 급기야 천만으로 몸을 부수며 물안개를 자욱하게 일으킨다.(『혼불』 2권, 164쪽 인용)

성문과 고개는 전주부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전주부의 행정경관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성문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안, 김제, 남원, 익산 등지와 연결되는 축이 된다. 가장 중요한 성문은 남문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다른 성문들에는 지선도로가 통과함으로써 성문 간의 위계를 드러내 준다. 이것은 고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주부의 권력자들에게 중요성이 크게 인식된 고개나 경계 지점에는 성황단이나 사직단, 여단 등 종교경관들이 조성되어 다른 장소에 비해 장소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사신사(四神砂)에 이 종교경관들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어 읍치의 영역성을 재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조선시대 전주읍성의 도로망과 주요 경관

조선시대의 도로망은 1870년대에 그려져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된

「병풍도」에 나타난 자료로 삼아 2016년의 지형도를 토대로 오차가 최소화하도록 그려 보았다. 1870년대의 도로망은 서문과 동문 및 북문과 남문을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는 없지만, 조선시대의 일반적 도로 형태인 ‘T’ 字形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 도 사대문과 외곽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읍성 안의 도로들끼리도 격자형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1870년대 가로망과 주요 경관
(국립전주박물관이 제공한 「병풍도」 자료를 기본도로 작성하였으며,
장명수 1994, 135쪽 〈그림 1-33〉의 지도 내용을 수록함)

1870년대에는 행정경관들의 영역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객사와 전라감영 및 전주부영 등은 주요 도로망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종교경관인 경기전 또한 다른 경관들과 도로망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기전으로 연결되던 도로는 지금과 달리 남문 방향에서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한편, 읍성의 북서쪽 모서리는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당시에는 저습지였을 뿐만 아니라, 감영과 부영의 옥이 있던 곳이라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던 의도가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문과 동문 밖에는 성벽을 따라 도로망이 있는데, 특히 북문 밖의 도로가 두드러진다. 이 도로들은 일제에 의해 성벽이 없어진 다음, 그 흔적을 따라 새로운 도로망 체계에 편입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는 1870년대 도로망에 조선시대 후기의 상설 점포들을 위치시킨 것이다. 객사 주변에 쇠전거리, 선자방거리, 주석전거리 등이 있었고, 서문 주변에 지전거리와 남문에서 서문 사이에 은방골목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외에 서문에서부터 현재의 전라감영3길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일용잡품을 파는 상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읍성의 남북 방향(avenue)으로 7개의 도로망이, 동서 방향(street)으로 7개의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읍성의 남북 거리가 동서 거리보다 약간 더 길어서 각 격자망들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객사 주변과 남문시장 인근에 대각선 방향의 가로망이 있어 나뉠대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3. 1918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1918년도의 도로망은 조선시대에 비해 사대문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십자형으로 구축되어 있음은 물론, 격자형 도로망의 틀이 화원정(花園町)을 제외하고는 거의 갖추어졌다는 점이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것은 일제가 1907년부터 ‘성벽철거위원회’를 조직하여 근대화에 방

해가 된다는 구실로 읍성의 성벽을 없애 버리고 신작로를 건설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후 1911년부터 일제는 시구개정(市區改正)을 실시하여 제1기 시구개정(1911~1912), 제2기 시구개정(1913~1914)을 실시하여 간선도로망을 거의 완성하고 지선과 노면 개수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1918년도 도로망은 조선시대의 감영과 부영 및 경기전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근대화 경관들이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곳곳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격자형의 도로망 사이에 나무의 가지치기처럼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의 수요를 늘리면서 골목 입구가 많아진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1918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조선시대의 주요 경관들이 관공서 중심이라면, 일제강점기에는 관공서뿐 아니라 금융, 법원, 병원, 우편국, 전매청, 경찰서 등 새로운

기능체들을 도심의 주요 도로에 위치시켰다는 점이 비교된다. 도청은 화원정(지금의 경원동)에 세워져 나중에 전주지방법원으로 전용되며, 군청은 전주부영 자리를 계승하였다. 전주전매지국은 고사정(지금의 전주객사2길과 전주객사3길 사이)에, 전주지방법원과 물산진열소는 현재 전주객사5길의 한성관광호텔 주변에 각각 위치하였다.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농공은행이 본정통(지금의 다가동1가 전라감영2길)에, 금융조합이 대화정(지금의 전동 풍남문3길)에 위치하였다. 1931년도 「전주 안내도」와 비교한 결과, 농공은행은 본정우편소(지금의 다가동 우체국)로, 금융조합은 완산금융조합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상가 및 점포들은 대정1정목에서 대정5정목까지 동서 방향으로 지금의 중앙동과 경원동을 연결하는 웨딩거리와 동문길 도로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읍성의 성벽이 해체된 후 도로로 개설된 지금의 풍남문2길과 전라감영2길의 도로변 좌우에도 본정 1정목에서 본정 4정목까지 남북 방향으로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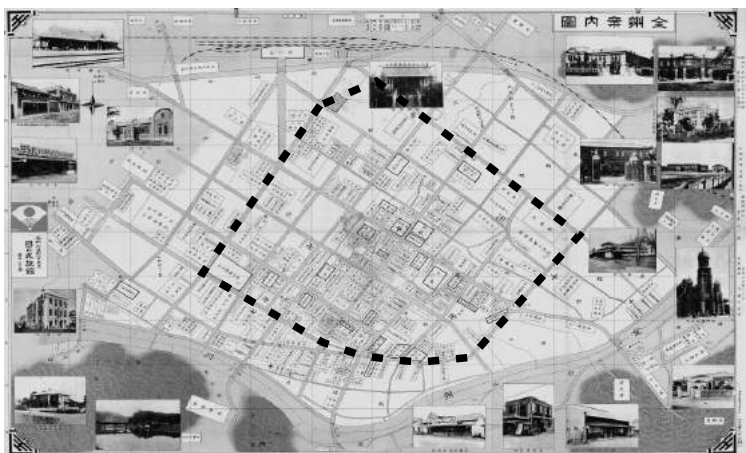
4. 1931년도 전주역사도심의 가로망과 주요 경관

「전주 안내도」는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여행할 때 주요 도시들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다. 이 지도는 1931년(소화 6)에 朝鮮開通社 平田又二郎이 주도하여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한 지도로, 지도 위에 나오는 사진들은 당시 전주 대정정목에 위치한 사진관[高橋寫眞館]에서 촬영했다. 당시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들마다 이러한 안내도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의 뒷면에는 간단한 전주 안내기와 함께

앞면에 나오는 업종별 소유주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주 안내도」를 서쪽, 동쪽, 북쪽의 세 부분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지형도 및 위성지도와 비교해 중요한 장소의 위치 비정을 하였다. 주로 행정 및 종교경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지도는 전주를 방문하는 일본인들의 관광 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지도로 보이며 당시 상호와 몇 가지 범례를 이용하여 지도를 만듦으로써 한자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지도 읽기에 무리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 안내도」는 현재 흔히 ‘ 시내’라고 불리던 고사동(당시는 고사정)과 중앙동(당시는 대정) 및 다가동(당시는 다가정)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점유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일제강점기의 건물과 같은 자리에 위치한 현재 건물의 용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장소 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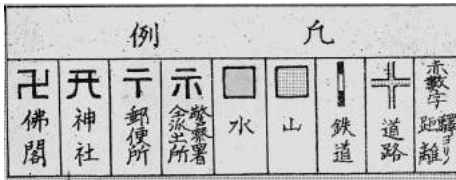


〈그림 7〉 「전주 안내도」(1931, 소화 6)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한 지도로, 사진들은 당시 전주 대정정에 위치한 사진관에서 촬영했고, 지도에 표시된 점선은 전주읍성을 나타냄(전주문화재단 제공)

1) 「전주 안내도」의 범례

이 지도는 안내도라서 축척은 표시되지 않았고, 범례는 9가지만 제시되어 간략한 편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리 정보는 한자와 일본



〈그림 8〉 「전주 안내도」의 범례

어로 적어서 제공하고 있다.

자연경관의 범례는 채색 지도를 사용하여 구분 색과 함께 글자로 ‘山’과 ‘水’를 표시하였다. 인문경관은 교통경

관(도로, 철도)과 종교경관(신사, 불각)을 표시하였고, 행정경관은 경찰서(示)와 우편소(〒)만 표시하고 있다. 또한 붉은색 숫자[赤數字]는 전주역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범례에는 나오지 않지만 크리스스트교(†)도 십자가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주신사를 비롯하여 전주역, 행정기관(도청, 법원, 의료원), 전동성당, 학교(농학교, 기전여학교, 제일보통학교, 고등여학교), 기타 주요 여관과 식당 및 상점 등이다. 이와 함께 전주에 소재하던 여관을 비롯한 식당과 유곽(遊廓) 등은 붉은색 글씨로 가게 이름을 모두 적어 놓아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주 안내도」의 서쪽 부분

〈그림 9〉는 일제강점기 전주부의 읍성 서쪽부로 풍남문에서 현재의 남부시장을 지나 본정우편소를 거쳐 전주전매지국까지에 해당되는 도로 일대이다. 서문외예배당과 연결되는 대정1정목 끝에 파출소(示, 구 다가동 파출소)가 보인다. 그리고 본정우편소에서 전주전매지국 사이의 도로에 일본 불교인 서원사(誓願寺, 진언종, 흥법대사가 창시, 1922

년 전래), 대념사(大念寺, 정토종, 법연상인이 창시자, 1907년 전주사라고 했다가 1917년 대념사로 개칭)와 쌍전사(雙全寺, 진종본원사파, 서본원사를 본산으로 함, 1911년 전래)가 보인다. 이외에도 완산사(完山寺, 선종조동파, 1912년 전래), 백응사(伯應寺, 진종대곡파, 1908년 전래) 등을 찾을 수 있으나 제호교회(醍醐敎會, 1926년 전래), 일련종 전주 포교소(日蓮宗, 1931년 전래) 등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교파신도계인 금광교(金光敎, 1916년 전래), 천리교전주포교소(天理敎, 1917년 전래) 등은 글자로나마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신도팔관회의(神道팔관회의, 1927년 전래)는 찾을 수 없다.



〈그림 9〉 「전주 안내도」의 서쪽 부분으로 전주읍성의 서쪽부에 해당된다.

일본계 종교들의 위치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천리교는 현재의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일대, 백응사는 구 반야돌솔밥집, 쌍전사는 객사2길 38-5번지, 완산사는 전주중부교회, 서원사는 풍남관광호텔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계 종교들이 점유한 장소들이 현재 종파가 다른 종교 시설로 이용되는 지리적 현상을 종교적 차원에서의 ‘장소 관성’이라고 한다면, 전주의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 기독교회가 1923년부터 고사정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여우와 늑대’라는 상가 건물 일대로 추정된다.

전주전매지국은 1921년에 설립되었다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1937년에 제2연초제조창을 태평동(현재 SK뷰아파트)에 만들면서 제1연초제조창으로 유지되었다. 이곳은 전북철도주식회사가 1914년에 완공한 전주-익산 간 사설 철도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설립한 곳이다. 이 회사가 경영한 전주-이리 간 경편철도 열차의 운행은 1914년 11월부터 1927년에 철도국에 매각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전주역의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 터는 빈 공간으로 남아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3) 「전주 안내도」의 동쪽 부분

〈그림 10〉의 「전주 안내도」는 풍남문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던 읍성의 성벽이 경기전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연결되는 동문 쪽 성벽에 해당된다.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의미로 세워진 궁궐로 이태조의 어용을 모시는 성지이다. 그런데 1907년에 고종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벽철거위원회가 만들어져 전주도 읍성의 서반부가 허물어졌으나 읍성의 동반부는 1911년에서야 철거되었다. 이에 따라 성벽이 경기전의 신성성을 보호하던 역할도 끝나 버렸다. 더군다나 후에 경기전의 좌측에는 팔달로라는 신작로가 놓이고 심상고등소학교와 여자보통학교를 세웠다. 전동성당은 1914년에 완공되었지만 이미 경기전의 남쪽에서 북향으로 위치하여 경기전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형국이었다. 결정적으로 경기전의 위상은 그 우측에 종석산양원이라는 목장이 세워지면서 추락하였다. 이처럼 경관을 통해 그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을 ‘경관의 정치’라고 한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앞에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세워 버림으로써 경복궁의 상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례에서 이미 경관의 정치는 시작된 것이었다.



〈그림 10〉 「전주 안내도」의 동쪽 부분으로 전주읍성의 동쪽부에 해당된다.

전주읍성의 핵심은 객사를 비롯한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등의 행정 경관이었다. 객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라감영은 도청과 경찰서로 계승되었고, 전주부영은 전주부 판관의 청사였던 풍락헌의 옛 터에 전주군청사가 위치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전주객사의 뒤에는 3층 높이의 체신청 건물이 있어 객사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형편이었으며, 더군다나 객사의 관리도 부실하여 그 위엄을 찾을 수 없다는 여론 덕분에 주변이 정리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풍락헌은 1934년 봄에 구이면 덕천리(구 태실리)의 전주 유씨 제각으로 사용되기 위해 팔렸다가 현재는 전주향교 옆으로 이전되었다. 전주부영은 이외에도 조선식산은행을 제외하면 공업학교, 무덕전, 공업학교 사택 등 공공기관으로 계승되었다. 현재 도청은 효자동으로 이전되고 감영 복원을 위한 구 도청사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서는 완산경찰서로, 전주군청사는 기업은행이,

조선식산은행은 산업은행이, 공업학교는 동부화재 건물 등으로 용도가 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우편국은 전주 경원동우체국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도청 일대 역시 관공서로 이용되는 경향이 우세하여 장소 관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전주 안내도」가 제작될 당시에 풍납문과 도청 사이는 관공서를 제외하면 금융가와 상가가 지배적이었다. 당시에 금융가와 상가(도소매점과 숙박업 및 음식점)는 도심지의 특성상 지대(임대료) 및 지가가 비싸고 접근성이 높아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만 입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주부의 도심에 높은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관공서를 포함하여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융업과 상업 및 숙박업이 위치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4) 「전주 안내도」 북쪽 부분

〈그림 11〉은 전주부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읍성 성벽의 동쪽부와 북쪽부가 만나는 모서리에 해당된다. 성벽의 동쪽부는 경기전을 거쳐 도립전주의원에 이르러 약간 구부러지면서 호를 그리다가 북쪽부에서 온 성벽과 만난다. 이 북서쪽 모서리에서 성벽이 만나는 곳 일대는 조선시대에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의 옥(獄)터였다.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던 조선 후기에는 이 옥에 많은 신자들이 잡혀 와 있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도립전주의원이 세워졌으며, 광복 후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으로, 다시 완산구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곳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라북도 정보문화센터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등으로 새롭게 구획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림 11〉 「전주 안내도」의 북쪽 부분으로 전주읍성의 북동쪽부에 해당된다.

전매지국 관사가 위치한 곳은 현재 국민은행 전주본점이 위치한 곳이며, 도청 관사는 현재 JS관광호텔이 들어선 일대이다. 전매지국 관사와 도청 관사 사이는 지도상에 협소한 도로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29년 정규 철도가 개설되고 구 전매청 자리에 있던 전주역이 지금의 시청 자리로 이전됨에 따라 전주 최초의 광로(노폭 25m)인 팔달로가 개설되었다. 오거리는 현재 ‘전주 영화의 거리’로 불리는 입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루미나리에(luminarie)가 그 장소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전주영화제가 점차 예술성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도립전주의원 인근에 위치한 지방법원은 풍남동으로 이전되면서 구 법원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KT 전주지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봉래원은 식당에서 결혼식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변하여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5. 1931년 전주역사도심의 기능체 분석

1931년에 제작된 「전주 안내도」는 다양한 경관들의 위치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축척이 부정확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관들의 위치 정보의 차이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1962년도에 제작된 「상공업지도」에 「전주 안내도」에서 확인되는 주요 경관들의 위치를 비정하여 수록하였다.

1931년도 「전주 안내도」에는 329개의 다양한 기능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주역사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기능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며, 지도에 기능별 중심성을 표시한 것이 <그림 12>이다.

당시 전주역사도심의 도심성 기능은 유통서비스, 관리서비스,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통서비스는 주로 소매업을 지칭하며, 관리서비스는 기업관리, 행정관리, 금융 및 사업 및 기타 서비스로 구분되고, 서비스는 주로 개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외에 도심의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주역사도심 안에 제조업과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표 1> 도심성 기능 범주
(1931년 「전주 안내도」에 수록된 기능체들을 중심으로)

		기능군	기능 범주	기능 내용
도 심 성 기 능	유통 서비스	소매업	1	도자기
			2	인쇄, 서점 및 문방구
			3	의류, 하태이물, 의상실, 양복업, 오복업, 면사포직물
			4	공구, 전기, 시계, 자전차업
			5	지업사, 건축토공재료업

		기능군	기능 범주	기능 내용
			6	식료품제집화, 과자업, 생선포모업, 우유판매소, 계란판매소, 빙판매업
			7	석유판매업, 신탄업
			8	잡화점, 총포화약업
			9	가구판매업, 재목업
			10	양품잡화화장품, 화장품
	관리 서비스	기업관리	11	회사
		행정관리	12	중앙 행정관리 기능
		금융	13	은행
		사업 및 기타 서비스	14	법무, 대서인
			15	사무소
			16	신문·잡지, 출판, 극장
			17	협회
			18	운송업, 용달업
			19	건설·건축·토목업
			20	종묘업, 농업경영
			21	제도측량업
	서비스	개인 서비스	22	주점 및 식당
			23	제과, 빙과
			24	숙박, 목욕탕
			25	상패, 명찰, 인각업, 표구업
			26	약국, 병원, 약방
			27	사진업, 세탁업
기 타		제조업	28	정미업, 양조업, 금물업, 주철공소, 제지제유제염업, 첩업
		학교	29	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종교	30	신사불각

〈표 2〉 도심성 기능 범주 분석

(1931년 「전주 안내도」에 수록된 기능체들을 중심으로)

		기능군	기능 범주	계(%)	기능 범주 계(%)	총계(%)
도심성 기능	유통서비스	소매업	1-10	66(24.9)	66(100)	66(24.9)
	관리서비스	기업관리	11	8(3.0)	8(5.8)	137(51.7)
		행정관리	12	32(12.1)	32(23.4)	
		금융	13	7(2.64)	7(5.1)	
		사업 및 기타 서비스	14-21	90(34.0)	90(65.7)	
	서비스	개인서비스	22-27	62(23.4)	62(100)	62(23.4)
계						265(100)
기타		제조업	28	32		64
		학교	29			
		종교	30			
총계						329

도심성 기능 265개 업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서비스’로 137개 업소가 약 52%를 차지하여 절반을 넘는다. 다음으로 유통서비스와 개인 서비스가 각각 66개 업소(약 25%)와 62개 업소(약 23%)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 관리서비스 기능 범주 내에서는 ‘사업 및 기타 서비스’ 기능이 약 89%를 차지하여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심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조업과 학교 및 종교 기능이 64개소로 전체 329개 기능체 대비 약 19.4%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에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전주역사도심의 범위는 고사정의 대부분, 대정정의 1정목에서 5정목까지, 대화정의 대부분 지역, 팔달정, 본정1정목과 2정목의 일부 지역, 풍남정 일부 지역(경기전과 조경묘), 회원정의 대부분

지역 등에 해당된다. 그런데 1931년에 제작된 「전주 안내도」에는 역사도심과 인접한 지역의 기능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한계점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분석하였다.

1) 도심의 중핵 지역인 대정정(지금의 중앙동1·2·3가, 경원동1·2가의 총경로변)

대정정1정목에서 5정목 지역은 전주역사도심의 핵심부에 해당한다. 도심성을 나타내는 유통·관리·서비스 업종들이 망라되어 분포하였다. 소매업은 물론, 행정·금융·회사·사업 및 기타 서비스 업종들이 집적되어 있다. 신문·잡지사 14개 중 10개(71%), 은행 7개 중 7개(100%), 행정관리(학교는 제외) 32개 중 19개(59%), 여관 5개 중 3개(60%), 주점 및 식당 12개 중 7개(58%), 극장 1개 중 1개(100%) 등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을 도심부의 ‘중핵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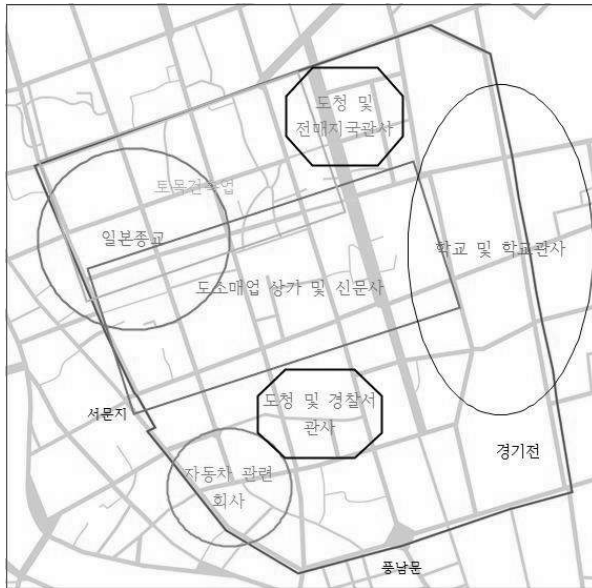
2) 자동차업 및 관사들이 밀집된 팔달정

팔달정은 본정2정목(지금의 다가동1가)과 도청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정통(지금의 전라감영2길)이 일본인 거주지를 남북으로 연결해 주는 주요 간선도로라는 사실과 함께, 주요 관공서와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수단은 바로 자동차였다. 이에 따라 본정통의 시작점인 본정1·2정목과 팔달정 일대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팔달정에는 전북자동차연구소, 안전자동차출장소 및 공화자동차상회 등이, 그리고 본정2정목에는 조일자동차부 등이 분포하였다. 이외에 자동차 수리소와 화물차부 및 석유 판매소 등도 인접하였다. 또한 팔달정은 도청과 경찰서 주변에 해당하여 이들 관공서와 관련된

다수의 관사들도 밀집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팔달정은 입지적 특성상 접근도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 업종들과 관사들이 혼합되어 분포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목건축청부업과 일본 종교가 밀집된 고사정

고사정(지금의 고사동)은 현재의 충경로와 대동로 및 전주객사2길과 팔달로 등으로 에워싸인 지역이었다. 지금은 영화의 거리나 루미나리에 거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30년대 초에는 토목건축청부업자들의 거리였다. 당시 관련 업자 총 26명 가운데 18명이 역사도심에 거주하였고, 이 가운데 13명(72%)이 고사정에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였다.



〈그림 12〉 1931년 전주역사도심 도로망과 기능별 경관 분포

일본계 종교들로는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 및 일본 기독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고사정에는 일본 불교 3곳(쌍전사, 완산사, 대념사)과 일본 기독교회 1곳이 분포하였다. 대념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본정3정목과 본정4정목에 각각 서원사와 일본 신도계인 천리교전주포교소가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일본 종교들이 집적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완산사는 현재 중부교회로, 또 천리교포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장소의 전용에 해당된다.

본정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대정정은 소매업의 중심지로, 팔달정은 자동차 관련 업종들로 발달하였다. 상대적으로 도심 기능이 낮았던 고사정 일대는 토목건축업자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이 조성되었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도심부 대부분의 토목건축업을 도맡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넓은 전용 면적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들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서비스를 위해 고사정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제안 및 한계점

전주역사도심과 관련된 공간 변화를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도로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고지도와 지형도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1931년도에 제작한 「전주 안내도」에 수록된 기능체는 당시의 도로망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전주역사도심은 전주읍성으로 둘러싸인 그 안팎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로 그 읍성의 내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전주읍치의 핵심은 객사를 비롯한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등의 행정경관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7개의 남북 도로(avenue)와 동서 도로(street)가 격자망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행정경관들은 그대로 계승되면서 장소 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 격자망 도로를 따라서 행정 기능 이외에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금까지도 중심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이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전주부영에 입지한 은행 중 한 군데를 선정하여 식민지 경락을 위한 자본의 독점과 이익을 공유하던 일본인들의 거점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알려 주는 안내판이나 표지석 또는 전시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인천이나 군산과 같은 항구도시뿐만 아니라, 전통도시 역시 근대 이행기에 일본인들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중심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감영의 복원으로 무게중심이 너무 집중된다면, 전주부영의 역사적 존재감은 드러낼 기회조차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이외에 기존의 전라감영 안내 표지석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자가용들의 무단 점거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주의 차이나거리(China Street)와 웨딩거리(Wedding street)가 만나는 장소는 화교소학교와 (구)중국인 포목점 및 일본식 건축물 등이 몇 채 남아 있어 이 거리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려 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남은 몇 세대의 중국인들도 점차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중국인 거리로서의 장소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웨딩거리로 향하면서 다양한 소규모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 모색이 기대된다. 차이나거리 인근에 위치한 서문교회와 관련된 초창기 전라도 개신교 선교 거점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거리라는 점도 함께 홍보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서문지 일대는 동학혁명과 관련된 전주읍

성의 격전지로도 잘 알려져 있어 다양한 개발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전주의 ‘관사촌거리’라고 명명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의 오거리공영 주차장에서 KB국민은행 전주종합금융센터를 거쳐 한국전통문화전당 까지 연결된 지대로 1912년 지적도에 따르면, 화원정 14, 21, 26, 33번 지 일대에 해당되어 모두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다. 이 일대에는 법원부장관사, 판사관사, 차석검사관사, 도청관사, 농무과장관사, 재무부장관사, 도립의원장관사, 고등보통학교장관, 고등보통학교관사, 전매국장관사, 서무과장관사, 전매지국관사 등이 분포하였다. 광복 이후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상주 인구의 감소로 관사촌에서 서비스 및 도매업 기능 중심지로 변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의 장소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발굴 및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 역사도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일본인들의 주거주지는 현재의 다가동(본정통)과 함께 이웃한 고사동(고사정)이었다. 동학혁명의 여파로 공터가 된 서문 밖에 서부터 군산에서 온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일본인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자 이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일본 종교들 또한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독교회(상가)를 비롯하여 일본 불교 계열인 쌍전사(개인 집), 완산사(현 전주중부교회), 서원사(개인 집), 일본 신도 계열인 천리교(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와 대념사(상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 일대를 ‘일본 종교의 거리’라고 명명하면, 앞서의 ‘전주 관사촌거리’와 마찬가지로 장소성을 알려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일본 종교경관들이 없는 상태로 그것도 일본 종교의 거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는 지역민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일본 종교들의 입지 원인과 정착 및 소멸 과정의 연구

를 통해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전주역사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점적인 접근이 아닌 면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이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 탓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려고 한다.

참고문헌

- 『병풍도』(전주부), 국립전주박물관.
- 『해동지도』(전주부), 규장각.
- 『대동여지도』(전주 부분), 규장각.
- 『1872년 지방지도』(전주부), 규장각.
- 『1918년 지형도』(전주), 조선총독부.
- 「전주 안내도」, 1931, 조선인쇄주식회사.
- 이상을 외, 『도시지리학』, 시그마프레스, 2016.
- 주경식, 「대전시의 내부구조」, 『국토지리학회지』 제10호, 한국지리교육학회, 1985, 299~330쪽.
- _____, 「한·미 대도시의 중심업무지구 변화에 관한 지리학적 비교연구: 서울과 뉴욕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999, 531~582쪽.
- _____, 「청주시의 주요 기능 구역」,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18월 1호, 2002, 113~130쪽.
- 주경식·서민철, 「서울 도심의 경계 기능 및 내부구조」, 『대한지리학회지』 제69호, 대한지리학회, 1998, 41~56쪽.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의 도시, 법문사, 2005.
- 홍경희, 도시지리학, 법문사, 1999.

